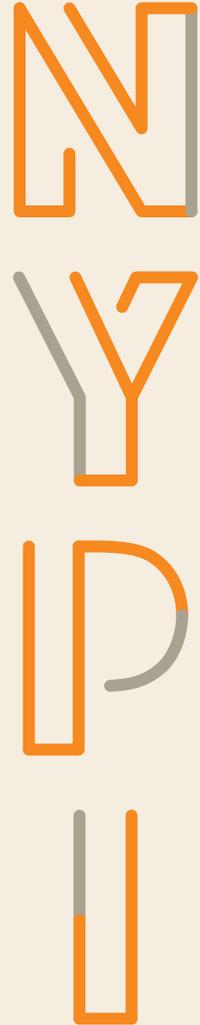


연구보고 20-R24-1

#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 분석보고서

저 자 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연구진 연구책임자\_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김수혜(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을 거쳐 개발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사내용 개선 사항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조사 문항에 대한 시범적 분석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위기청소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목적을 두었다. 본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위기청소년의 실태와 현황 파악을 위해, 예비조사에 사용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예비조사의 조사대상은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중복 위기를 경험하는 고위기군이 주로 분포하는 가출청소년 및 범죄·비행 청소년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표집은 해당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기관의 입소(이용)자수를 조사 모집단으로 삼아 할당표집하였으며, 목표 표본크기는 600명이고, 확보 표본수는 627명, 실제 분석에 사용된 최종 사례수는 565명이다. 조사 내용은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일상생활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정책적 수요’, ‘일반적 특성’ 등 6개 영역 14개 세부 주제 12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이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가출을 경험한 비율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주로 ‘가족간의 갈등’이었고, 가출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의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해서, 여자청소년의 피해율(36.6%)이 남자청소년(11.8%)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응답자의 24.3%는 최근 1년 이내에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지금까지 자해를 시도 해본 청소년 비율은 30.5%,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20.1%로 나타나, 우울자해자살 시도 등을 경험한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위기청소년이 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 간의 갈등’이었고,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로는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예비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연구 과정을 거쳐 개발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음.
  - 예비조사는 조사항목과 문항 등 조사내용 개선 사항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조사 문항에 대한 시범적 분석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위기청소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목적을 두었음.
- 본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으며,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에 사용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음.

### 2.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예비조사의 조사대상은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중복위기를 경험하는 고위기군이 주로 분포하는 가출청소년 및 범죄·비행 연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표집은 해당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기관의 이용자수를 조사 모집단으로 삼아 할당표집하였으며, 목표 표본크기는 600명이고, 확보 표본수는 627명, 실제 분석에 사용된 최종 사례수는 565명임.

● 조사방법

- 예비조사는 COVID-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사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비대면방식(우편조사)으로 실시되었음.

● 조사내용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에 사용된 조사표의 내용구성은 아래와 같음.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조사표의 대영역 및 세부주제 구성]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수(개)
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1-1. 가정 내 경험	8
	1-2. 가정 밖(가출) 경험	15
2. 일상생활 경험	2-1. 유해약물 이용 경험	5
	2-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4
	2-3.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9
	2-4. 성 경험	3
	2-5. 아르바이트 경험	12
3. (성)폭력 피해 경험	3-1. 폭력 피해 경험	6
	3-2. 성폭력 피해 경험	7
	3-3. 조건만남 경험	11
	3-4.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6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4-1. 심리·정서적 특성	10
	4-2. 자해 경험	7
	4-3. 자살 시도 경험	7
5. 정책적 수요		3
6. 일반적 특성		10
총계		123

### 3. 주요결과

- 예비조사 응답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기청소년의 주요 실태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예비조사 분석결과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결과
<b>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b>	
1-1. 가정 내 생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피해 생애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위기청소년의 58.4%는 신체적 폭력(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li> <li>•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38.4%에 그쳤고,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내가 잘못된 것이므로'(29.8%), '가족이라서'(21.8%) 등으로 나타남.</li> </ul>
1-2. 가정 밖 생활(가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중 가출 생애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6.3%,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0.6%로 나타남.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많았음.</li> <li>• 가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li> <li>• 가출 유경험자 가운데,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 부터 숙식 제공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경험은 10.7%, 본인이 스스로 '헬퍼'를 구해본 적은 8.3%로 나타남.</li> <li>• '헬퍼'와 접촉하는 주된 경로는 '메신저'(47.8%), '랜덤채팅앱'(21.7%)이었음.</li> <li>• 가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53.7%)가 가장 높았고,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10.3%로 뒤를 이었음.</li> </ul>
<b>2. 일상 생활 경험</b>	
2-1. 유해 약물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의 최근 1개월 간 흡연율은 54.2%, 음주율은 38.7%,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0.5%로 나타남.</li> <li>• 담배 구입을 위해 대리구매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2.0%, 술을 대리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3.9%로 나타남.</li> </ul>
2-2.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24.9%였고, 최근 3개월 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1%로 나타남.</li> <li>• 최근 3개월 이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돈내기 게임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2회 이상' 했다는 응답이 53.3%로 나타남.</li> </ul>
2-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게임 과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5.2%(잠재적 위험군 30.6%+고위험군 4.6%)로 나타남.</li> <li>• 위기청소년의 4.9%가 게임 과몰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5.5%)의 비율이 여자청소년(3.6%) 보다 높았음.</li> </ul>
2-4. 성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비율은 44.1%였음.</li> <li>•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임을 '항상 또는 대부분' 했다는 응답 비율은 49.6%, '가끔 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0.4%로 나타남.</li> </ul>

구분	주요 결과
2-5. 아르바이트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30.9%로 나타남.</li> <li>• 아르바이트 업종의 경우, 전체 응답에서는 '음식점·식당·레스토랑'(45.8%)이 가장 많았고, '배달·운전 아르바이트'가 13.2%로 2위로 나타남.</li> <li>• 지금까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3%였고, 그 이유로는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li> </ul>
3. (성)폭력 피해 경험	
3-1. 폭력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위기청소년 비율은 21.2%로 나타남.</li> <li>• 폭력 피해 시,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55.0%로 과반을 차지하였음.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로 나타남.</li> </ul>
3-2. 성폭력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사이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비율은 5.5%였고,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은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3.2%)로 나타남.</li> <li>•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주변에 알렸다는 응답 비율은 50.0%로 나타남.</li> </ul>
3-3. 조건만남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조건만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위기청소년의 9.8%가 조건만남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실제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6.0%로 나타남.</li> <li>•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중복응답)로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4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서'(36.7%), '노는데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33.3%),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33.3%) 등으로 나타남.</li> <li>• 조건만남을 하는 주된 경로는 '랜덤채팅앱'(48.4), '채팅사이트 또는 채팅 앱'(45.2%), 'SNS 또는 메신저'(22.6%)로 나타남.</li> </ul>
3-4.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지에서 제시한 10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21.7%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36.6%)의 경험률이 남자청소년(11.8%)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li> <li>• 가장 많이 경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은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로 나타남.</li>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주요 경로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 등)'가 68.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모바일 메신저'(55.3%)도 높게 나타남.</li> </ul>

구분	주요 결과
4. 심리·사회적 특성 및 표출 행동	
4-1. 심리·정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희망이 없다는 기분을 2주 내내 느낀 우울감을 경험한 위기청소년 비율은 24.3%로 나타남.</li> <li>•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위기청소년 비율은 14.5%로 나타남.</li> </ul>
4-2. 자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자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37.5%, 실제로 자해를 해본 적이 있는 위기청소년 비율은 30.5%로 나타남.</li> <li>• 자해를 하게 된 이유(중복응답)에 대해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44.4%),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32.1%),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32.1%) 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li> <li>• 자해 시도 후 주변에게 알렸는지 여부 조사 결과,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49.6%)'로 나타남.</li> </ul>
4-3. 자살 시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위기청소년 비율은 38.0%,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비율은 20.1%로 나타남.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응답자의 35.2%가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li>•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49.4%), '미래에 대한 불안'(10.8%) 등으로 나타남.</li> <li>• 자살 시도 후 주변에게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64.9%로 다수를 차지함.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63.2%로 가장 많았음.</li> </ul>
5. 정책적 수요 및 지원 방안	
5-1. 지원정책 인지도 및 이용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율의 경우, 'Wee센터 /Wee클래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79.6%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전화 1388'도 7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li> <li>• '청소년전화1388'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위기청소년은 25.3%로 나타남.</li> </ul>
5-2. 정책적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이 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44.0%), '가족과의 갈등'(33.0%) 등임.</li> <li>•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로는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남.</li> </ul>

#### 4. 논의 및 제언

-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음.
- [고위기중복위기군인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소위 ‘헬퍼’, ‘조건 만남’ 등 가출청소년이 쉽게 노출되는 온라인 성매매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 가출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출청소년 주거지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음.
- [위기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을 위해, 위기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는 위기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 예방교육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도박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음.
-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으로 피해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체계화하며, 대응 통로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을 논의하였음.
- [자해의 광범한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자해를 유발하는 유해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가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를 실태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며, 정책을 보완해나가야 함을 논의하였음.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 분석 보고서

<b>I.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개요</b>	
1. 조사 목적 .....	3
2. 조사 대상 .....	5
3. 조사 방법 및 절차 .....	7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	8
5. 조사 기간 .....	9
6. 조사 내용 .....	9
7. 기타 .....	14
<b>II.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분석</b>	
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	18
2. 일상 생활 경험 .....	45
3. 폭력·성폭력 피해 경험 .....	79
4. 심리·사회적 특성 및 표출 행동 .....	110
5. 정책적 수요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	132
6. 일반적 특성 .....	136

**Ⅲ. 요약 및 제언**

- 1. 주요 결과 요약 ..... 143
- 2. 논의 및 제언 ..... 163

**참고문헌** ..... 171

**부록** ..... 175

## 표 목차

표 Ⅰ-1 예비조사 표본설계(안) .....	6
표 Ⅰ-2 예비조사 응답자 기본 특성 .....	9
표 Ⅰ-3 예비조사 조사표의 구성 .....	10
표 Ⅱ-1 성장기 가정환경: 부모 간 불화 목격 여부 .....	19
표 Ⅱ-2 방임 경험: 학교 결석에 대한 무관심 .....	20
표 Ⅱ-3 방임 경험: 외박이나 가출에 대한 무관심 .....	21
표 Ⅱ-4 방임 경험: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음 .....	21
표 Ⅱ-5 가정폭력 피해 :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	23
표 Ⅱ-6 가정폭력 피해 : 언어폭력 피해 .....	24
표 Ⅱ-7 가정폭력 경험 여부: 신체적 폭력 및 언어폭력 종합 .....	24
표 Ⅱ-8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알렸는지 여부와 알린 대상(중복응답) ..	25
표 Ⅱ-9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알리지 않은 이유 .....	26
표 Ⅱ-10 가정폭력 대응의 효과 .....	27
표 Ⅱ-11 도움 주체에 따른 가정폭력 대응의 효과 .....	27
표 Ⅱ-12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	28
표 Ⅱ-13 생애 경험 여부 .....	30
표 Ⅱ-14 최근 1년 간 경험 여부 .....	31
표 Ⅱ-15 최초 가출 경험 연령 .....	32
표 Ⅱ-16 가출의 원인(중복응답) .....	33
표 Ⅱ-17 집을 나온 기간 중 최장 기간 .....	34
표 Ⅱ-18 가출 시 지낸 곳(중복응답) .....	34
표 Ⅱ-19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도움을 받은 대상 (중복응답) .....	35
표 Ⅱ-20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경험한 애로 사항(중복응답) .....	36
표 Ⅱ-21 헬퍼 접촉 경험 .....	38
표 Ⅱ-22 헬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로 .....	39
표 Ⅱ-23 '헬퍼'와의 생활 경험 여부 및 함께 생활하게 된 이유 .....	39

표 II-24 '헬퍼'로 인한 부정적 경험 .....	40
표 II-25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	41
표 II-26 버스형태의 이동형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42
표 II-27 생활형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43
표 II-28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44
표 II-29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45
표 II-30 최근 담배 이용 경험 및 피워본 담배 종류 .....	46
표 II-31 최근 음주 및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	47
표 II-32 술이나 담배로 인한 부정적 행동 .....	48
표 II-33 흡연 예방교육 여부에 따른 부정적 행동 차이 .....	49
표 II-34 음주 예방교육 여부에 따른 부정적 행동 차이 .....	50
표 II-35 약물 관련 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	51
표 II-36 약물 관련 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	51
표 II-37 약물 관련 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	52
표 II-38 돈내기 게임 생애 경험 .....	53
표 II-39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경험 및 종류(중복응답) .....	54
표 II-40 돈내기 게임을 알게 된 경로 .....	55
표 II-41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경험 빈도 .....	56
표 II-42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중복응답) .....	57
표 II-43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을 같이 한 사람 .....	57
표 II-44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행동 .....	58
표 II-45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벌린 돈의 액수 .....	59
표 II-46 도박 문제 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	59
표 II-47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60
표 II-48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61
표 II-49 게임 이용 여부 및 이유 .....	63
표 II-50 게임 과몰입 수준(문항합산 점수 평균) .....	64
표 II-51 게임 과몰입 수준 .....	64
표 II-52 성관계 경험 여부 .....	65
표 II-53 최초 성관계 경험 시기 .....	66
표 II-54 성관계 시 피임 여부 .....	67
표 II-55 성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68

표 II-5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70
표 II-57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70
표 II-58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	71
표 II-59 주된 아르바이트 근속 기간	72
표 II-6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73
표 II-61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방식(중복응답)	74
표 II-62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작성 여부	75
표 II-63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해본 경험 여부	75
표 II-64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하게 된 이유	76
표 II-65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할 때 나이확인 여부	77
표 II-66 근로권익 보호 관련 경험	78
표 II-67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79
표 II-68 가족 외 타인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유무	80
표 II-69 가족 외 타인으로부터 당한 폭력 피해 유형	80
표 II-70 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81
표 II-71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중복응답)	82
표 II-72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83
표 II-73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84
표 II-74 폭력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곳(중복응답)	85
표 II-75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86
표 II-76 성폭력 피해 경험	87
표 II-77 성폭력의 주된 가해자(중복응답)	89
표 II-78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90
표 II-79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중복응답)	90
표 II-80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91
표 II-81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92
표 II-82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곳(중복응답)	93
표 II-8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93
표 II-84 조건만남 노출 경험	95
표 II-85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 (중복응답)	96
표 II-86 조건만남을 하는 주된 경로(중복응답)	97
표 II-87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97
표 II-88 조건만남을 하면서 주로 경험한 피해(중복응답)	98
표 II-89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중복응답)	99
표 II-90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	100

표 II-91 조건만남을 그만 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경험	101
표 II-92 조건만남을 그만 둔 계기(중복응답)	101
표 II-93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102
표 II-94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104
표 II-95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경험	104
표 II-96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한 주된 경로(중복응답)	106
표 II-97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가해자	108
표 II-98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중복응답)	108
표 II-99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110
표 II-100 우울감 경험 여부	111
표 II-101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 여부 및 빈도	112
표 II-102 자해 시도 경험 여부 및 빈도	113
표 II-103 자해를 하게 된 이유(중복응답)	113
표 II-104 자해 시도 후 주변에게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중복응답)	114
표 II-105 자해 시도 여부를 주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115
표 II-106 자해 시도에 관해 전문기관 상담치료 경험 여부	115
표 II-107 자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 본 경험	116
표 II-108 자해를 그만두게 된 계기(중복응답)	117
표 II-109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여부	118
표 II-110 자살 시도 경험 여부	118
표 II-111 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	119
표 II-112 자살 시도 후 주변에게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중복응답)	120
표 II-113 자살 시도를 주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120
표 II-114 자살 시도 관련 전문기관 상담치료 경험 여부	121
표 II-115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 본 경험	122
표 II-116 자살 시도를 그만두게 된 계기(중복응답)	123
표 II-117 위기 경험 여부에 따른 자존감 차이 (문항합산 점수 평균)	124
표 II-118 위기 경험에 따른 총동성 차이 (문항합산 점수 평균)	124
표 II-119 삶에 대한 인식: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그에 대한 보답이 있다고 믿는다	125
표 II-120 삶에 대한 만족도: 내 삶에 만족한다	126

표 II-121 신체적 건강 상태 :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	127
표 II-122 정서적 건강 상태: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	127
표 II-123 은둔형 외톨이 성향 .....	128
표 II-124 사회적 위축과 타인에 대한 이해 .....	129
표 II-125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수 .....	130
표 II-126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중복응답) ..	131
표 II-127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와 도움 정도 .....	132
표 II-128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중복응답) .....	134
표 II-129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수요 .....	135
표 II-130 현재 학교 재학 및 학교를 그만 둔 경험 여부 .....	137
표 II-131 학교를 그만둔 주된 이유 .....	137
표 II-132 진로 계획 .....	138
표 II-133 건강검진 수검 여부 .....	139
표 II-13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140
표 III-1 집을 나오게 된 이유(중복응답) .....	146
표 III-2 부모(보호자)동의서 제출 요구로 인한 구직 어려움 경험 여부 .....	151
표 III-3 조건만남 관련 경험 .....	155
표 III-4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 .....	158

## 그림 목차

그림 Ⅰ-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분석 결과 도출 과정	4
그림 Ⅰ-2 예비조사 실시 단계 및 방법	7
그림 Ⅱ-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분석의 흐름 및 구성	17
그림 Ⅱ-2 성장기 가정환경(부모 간 불화 목격)	19
그림 Ⅱ-3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 경험률	29
그림 Ⅱ-4 가출 생애 경험률 및 최근 1년 간 경험률	31
그림 Ⅱ-5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42
그림 Ⅱ-6 돈내기 게임 생애 경험	53
그림 Ⅱ-7 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의 여부 및 알린 대상	82
그림 Ⅱ-8 성폭력 피해 경험	88
그림 Ⅱ-9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한 주된 경로	107
그림 Ⅱ-10 자살 시도 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	121
그림 Ⅱ-11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수	130
그림 Ⅱ-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131
그림 Ⅱ-13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를	133
그림 Ⅲ-1 가정 불화 및 가정폭력 피해 경험	144
그림 Ⅲ-2 가출 생애 경험 및 최근 1간 경험률(단위: %)	145
그림 Ⅲ-3 가출 후 지낸 장소(중복응답)	146
그림 Ⅲ-4 가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점(중복응답)	147
그림 Ⅲ-5 가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148
그림 Ⅲ-6 ‘헬퍼’ 관련 접촉 경험	149
그림 Ⅲ-7 도박(돈내기 게임) 관련 경험	150
그림 Ⅲ-8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 경험률(단위: %)	151
그림 Ⅲ-9 폭력 유형별 경험률(단위: %)	153
그림 Ⅲ-10 성폭력 유형별 경험률(단위: %)	154
그림 Ⅲ-11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중복응답, n=30)	155
그림 Ⅲ-12 조건만남 경로(중복응답, n=31)	156

그림 Ⅲ-13 조건만남 관련 보호요인 .....	157
그림 Ⅲ-14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로(중복응답, n=114) ·	159
그림 Ⅲ-15 자해 시도 경험 및 빈도 .....	160
그림 Ⅲ-16 자살 시도 경험 및 자살을 생각한 이유 .....	161
그림 Ⅲ-17 자해 시도 및 자살 시도에 대한 보호요인 .....	162
그림 Ⅲ-18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및 희망하는 지원서비스 수요 ·	163



# ○ ————— 제1장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2. 조사 대상
- 3. 조사 방법 및 절차
-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 5. 조사 기간
- 6. 조사 내용
- 7. 기타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개요<sup>1)</sup>

## 1. 조사 목적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기존 조사 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FGI 7회(1단계 전문가 FGI 5회 및 2단계 전문가 FGI 2회),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조사, 조사 분야 전문가의 심층 검토 및 청소년 대상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표(안)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조사항목과 문항 등 조사내용 개선 사항을 확인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조사 문항에 대한 시범적 분석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위기청소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목적을 두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떠한 정책적 수요를 내포하는지, 그에 따라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도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목적에서, 본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에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1)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단, <표 1-1>의 예비조사 표본설계(안)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의 예비조사 문항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예비조사의 특성 상, 조사 모집단을 충분히 반영하는 표집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위기청소년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기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지원 욕구 등을 확인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1-1]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예비조사의 조사표 및 분석 결과의 도출 과정이 도식화하여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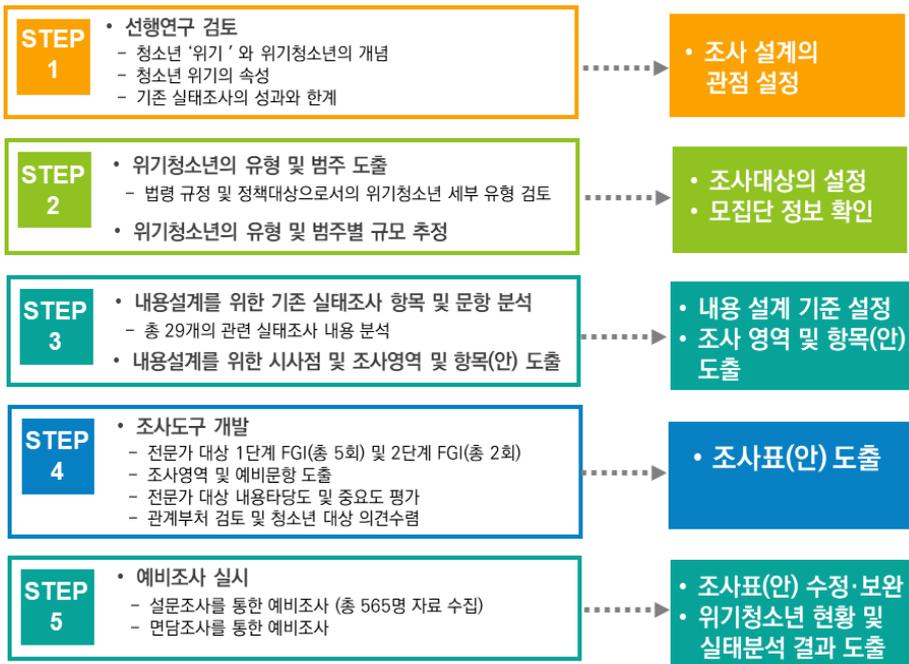


그림 1-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분석 결과 도출 과정

## 2. 조사 대상

예비조사는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주로 가출청소년 및 범죄·비행 연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 및 현장전문가 FGI를 통해 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위기를 경험하는 복합 위기군이며, 고위기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실사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당초 예비조사 표본 설계 단계에서는 가출청소년 및 비행범죄 연루 청소년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되, 그 밖에도 가정폭력·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고위기청소년 등을 일부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 추진 시기에 COVID-19의 2단계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어(전국 2단계, 수도권 2.5단계 격상), 숙박이 가능한 생활시설 혹은 수용시설이 아닌 일반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조사환경을 고려하여 예비조사의 조사 대상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가출청소년 대상 지원기관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치료시설(6호처분 시설) 등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기관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목표 표본크기는 예산 규모와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6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표본 설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예비조사 표본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해당 기관에 입소 경험이 있는 연간 실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되, 예비조사 조사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조사 인원의 비중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으로는 청소년쉼터 250명(41.7%), 청소년자립지원관 50명(8.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50명(8.3%), 소년원 75명(12.5%), 보호관찰소 150명(25.0%), 보호치료시설 25명(4.2%) 등이 표집되었다. 예비조사에 적용된 표본 설계(안)은 <표 I-1>과 같다.

표 1-1 예비조사 표본설계(안)

(단위: 개소, 명)

구분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 지원관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소년원		보호 관찰소		아동보호 치료시설		합계	
	기 관 수	인 원	기 관 수	인 원	기 관 수	인 원	기 관 수	인 원	기 관 수	인 원	기 관 수	인 원	기 관 수	인 원
서울	7	35	1	10	-	-	-	-	4	40	-	-	12	85
부산	4	20	-	-	-	-	1	15	-	-	-	-	5	35
대구	2	10	-	-	-	-	1	15	-	-	-	-	3	25
인천	3	15	2	20	-	-	-	-	1	10	-	-	6	45
광주	2	10	-	-	1	10	1	15	-	-	-	-	4	35
대전	4	20	-	-	-	-	-	-	-	-	-	-	4	20
울산	3	15	-	-	1	10	-	-	-	-	-	-	4	25
세종	-	-	-	-	-	-	-	-	-	-	-	-	0	0
경기	12	60	3	20	-	-	1	15	4	40	1	15	21	150
강원	3	15	-	-	-	-	1	15	1	10	-	-	5	40
충북	2	10	-	-	-	-	-	-	-	-	-	-	2	10
충남	3	15	-	-	1	10	-	-	1	10	-	-	5	35
전북	1	5	-	-	-	-	-	-	2	20	-	-	3	25
전남	-	-	-	-	-	-	-	-	-	-	-	-	0	0
경북	1	5	-	-	-	-	-	-	-	-	-	-	1	5
경남	1	5	-	-	2	10	-	-	2	20	1	10	6	45
제주	2	10	-	-	1	10	-	-	-	-	-	-	3	20
합계	50	250	6	50	6	50	5	75	15	150	2	25	84	600

### 3. 조사 방법 및 절차

예비조사는 COVID-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사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비대면방식(우편조사)으로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집기관 중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이므로,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음으로,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관 시설이므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협조를 얻어,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협조공문 발송 후, 조사대상 기관에서 조사안내문에 따라 설문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사주관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조사에 관한 안내를 진행하고, 기관별 편의를 반영해 조사일정을 정했다. 그런 다음, 조사지를 우편으로 배송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회송 받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 5일~2020년 11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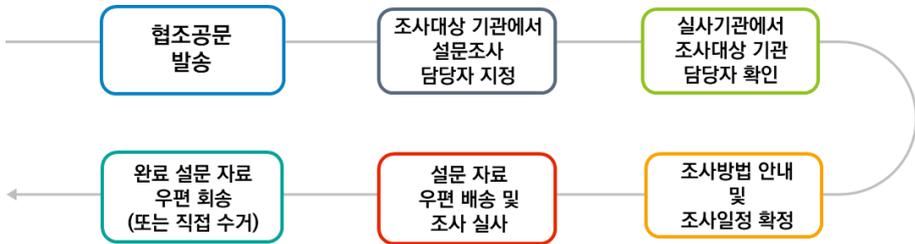


그림 1-2 예비조사 실사 단계 및 방법

#### 4.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자 특성

예비조사는 총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실제 분석에 포함된 최종 사례 수는 565명으로 결정되었다. 분석에 누락된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무응답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 39명이 제외되었다.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23명의 응답이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I-2〉에는 최종적으로 예비조사 결과 분석에 포함된 565명의 응답자의 기본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60.2%, 여자청소년이 39.8%로 남자청소년이 더 많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2.8%, 강원·충청권 19.5%, 경상권 28.0%, 호남·제주권 9.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6세 미만 13.4%, 16세 이상-19세 미만 51.7%, 19세 이상 34.9%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비조사 조사표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조사대상 연령에는 후기청소년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나, 예비조사에서는 문항 내용을 통한 실태 파악보다는 문항의 적절성 및 타당성, 문항 이동 로직의 오류, 표현의 모호성 등 문항의 수정·보완을 위한 검토 의견을 수집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항 검토 역량을 고려하여 후기 청소년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전체 응답자에 후기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조사가 이루어진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위기 유형을 '가출'과 '비행·범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가출' 범주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표집된 대상자가 포함되며, '비행·범죄' 범주에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6호처분시설)에서 표집된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구분해보면,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표집된 응답자가 52.0%, 소년법 처분을 받은 비행·범죄 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서 표집된 응답자가 4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2 예비조사 응답자 기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65	100.0
성별	남자	340	60.2
	여자	225	39.8
연령	16세 미만	75	13.4
	16세 이상-19세 미만	290	51.7
	19세 이상	196	34.9
권역	수도권	242	42.8
	강원·충청권	110	19.5
	경상권	158	28.0
	호남·제주권	55	9.7
위기 유형	가출	294	52.0
	비행범죄	271	48.0

## 5. 조사 기간

본 예비조사는 2020년 10월 5일~2020년 11월 5일까지 한 달 간 실시되었다.

## 6. 조사 내용

본 예비조사에 사용된 조사표의 구성과 문항 번호는 다음과 같다.

표 1-3 예비조사 조사표의 구성<sup>2)</sup>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가정 내 경험	• 부모-자녀 관계	문4-1)~3)
		• 가정 내 분위기(가정불화)	문5-1)~3)
		• 가정폭력·학대 경험 여부 및 빈도	문6-1)~2)
		• 가정폭력·학대 대응 방법	문6-1
		• 대응하지 않은 이유	문6-2
		• 대응의 도움 정도	문6-3
		• 방임 경험	문4-4)~6)
		• 아동학대(가정폭력)예방 또는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문7
	가정 밖(가출) 경험	• 가출 생애경험 및 최근 1년 간 경험 여부 및 빈도	문8
		• 최초 가출 연령	문8-1
		• 가출 이유	문8-2
		• 최장 가출 기간	문8-3
		• 가출 후 주로 지낸 장소	문8-4
		• 가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문8-5
		• 가출 시 주된 어려움	문8-6
		•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문8-7
		• '헬퍼' 접촉 경험	문8-8
		• '헬퍼' 접촉 경로	문8-8-1
		• '헬퍼'와 생활한 경험 및 그 이유	문8-9
		• '헬퍼'와 생활한 이유	문8-9-1
		• '헬퍼'로 인한 피해 경험	문8-9-2
		•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문9
		• 심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문9-1

2) 예비조사 조사표에 사용된 문항의 개발 근거 및 출처는 총괄보고서 제V장(조사내용 설계)를 참조하기 바람.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일상 생활 경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 스마트폰 과의존	문10
		• 게임 이용 여부	문11
		• 게임 과몰입 수준	문11-1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문13
	아르 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문14
		•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문14-1
		• 아르바이트 업종	문14-2
		•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문14-3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문14-4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근로 방식	문15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시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문15-1
		• 아르바이트 시 경험한 어려움 및 부당행위	문16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경험 여부	문17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을 한 이유	문17-1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시 나이 확인 여부	문17-2	
	• 근로권익(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	문18	
	유해약물 이용 경험	• 흡연 여부 및 종류	문19
		• 음주 여부	문20
		• 환각성 물질 이용 여부	문21
		• 약물 유해성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문22
		• 유해약물 이용 관련 비행·범죄 경험	문23
	도박 (돈내기 게임) 경험	• 돈내기 게임 경험(생애경험, 최근 3개월 간 경험)	문24
		• 최근 3개월 간 이용한 돈내기 게임 종류	문25
		• 돈내기 게임 접촉 경로	문25-1
		• 돈내기 게임 빈도	문25-2
		• 돈내기 게임을 하는 이유	문25-3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성) 폭력 피해 경험		• 돈내기 게임을 함께하는 사람	문25-4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문25-5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채무 액수	문25-5-1
		• 도박 문제 예방교육 경험 여부	문26
	성 경험	• 성관계 경험 여부	문31
		• 최초 성관계 경험 연령	문31-1
		• 성관계 시 피임 여부	문31-2
	폭력 피해 경험	•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문27
		• 피해를 알렸는지 여부	문27-1
		• 피해를 알린 대상	문27-1-1
		• 피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문27-1-2
		• 지원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및	문27-2
		• 도움을 받은 기관	문27-2-1
	성폭력 피해 경험	• 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문28
		• 성폭력 피해의 가해자	문28-1
• 피해를 알렸는지 여부		문28-2	
• 피해를 알린 대상		문28-2-1	
• 피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문28-2-2	
• 지원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및 도움을 받은 기관		문28-3	
조건 만남 경험	• 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경험 여부	문29	
	• 조건만남 경험 여부	문30	
	• 조건만남 최초 경험 시기	문30-1	
	•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	문30-2	
	• 조건만남 경로	문30-3	
	• 채팅앱/랜덤채팅앱 이용 시, 성인인증 여부	문30-3-1	
	• 조건만남으로 인한 피해	문30-4	
	•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및 그 대상	문30-4-1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문30-4-2	
	• 조건만남을 스스로 그만두려고 노력한 경험	문30-5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심라·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 조건만남을 스스로 그만두는 데 도움을 준 대상	문30-5-1
		•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문12
	교육경험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	문12-1
		•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가해자	문12-2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	문12-3
		•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문12-3-1
		• 학교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및 성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문32
	심라·정서적 특성	• 자존감	문1-1)~4)
		• 타인에 대한 이해	문1-5)~8)
		• 사회적 철회(위축)	문1-9)~12)
• 자기통제력		문1-13)~17)	
• 갈등해결역량		문1-18)~20)	
• 삶에 대한 인식		문1-21)~22)	
• 건강 상태		문1-23)~24)	
• 은둔형 외톨이 성향		문2-1)	
• 우울		문2-2)	
• 사회적 지지체계		문3, 문3-1	
자해 경험	• 자해 생각 및 시도 경험과 빈도	문33	
	• 자해를 하게 된 이유	문33-1	
	• 자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문33-2	
	•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	문33-2-1	
	•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경험	문33-3	
	• 자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한 경험	문33-4	
	• 자해를 그만둔 요인	문33-4-1	
자살 시도 경험	•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과 빈도	문34	
	• 자살 시도를 하게 된 이유	문34-1	
	• 자살 시도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문34-2	
	•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	문34-2-1	
	•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경험	문34-3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한 경험	문34-4
		• 자살시도를 그만둔 요인	문34-4-1
정책적 수요		•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문35
		• 위기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문36
		•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문37
일반적 특성		• 성별	배문1
		• 연령	배문2
		• 학교 재학 여부	배문3
		• 학업중단 경험 여부	배문4
		• 학업중단 사유	배문4-1
		• 향후 진로 계획	배문5
		• 지난 1년 간 건강검진 여부	배문6
		• 가족구조	배문7
		• 부모님 및 본인의 국적	배문8
	• 빈곤 여부	배문9	

## 7. 기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비조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완료했으며, 조사 내용에 연구윤리 상 문제가 없음을 최종 승인 받았다(IRB 승인번호 202009-HR-고유-018).

## ○ — 제2장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 예비조사 결과 분석

- 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 2. 일상 생활 경험
- 3. 폭력·성폭력 피해 경험
- 4. 심리·사회적 특성 및 표출  
행동
- 5. 정책적 수요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 6. 일반적 특성



이 장에는 예비조사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의 ①‘배경’→②구체적인 ‘위기 상황 경험’→③위기 행동의 표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과 위기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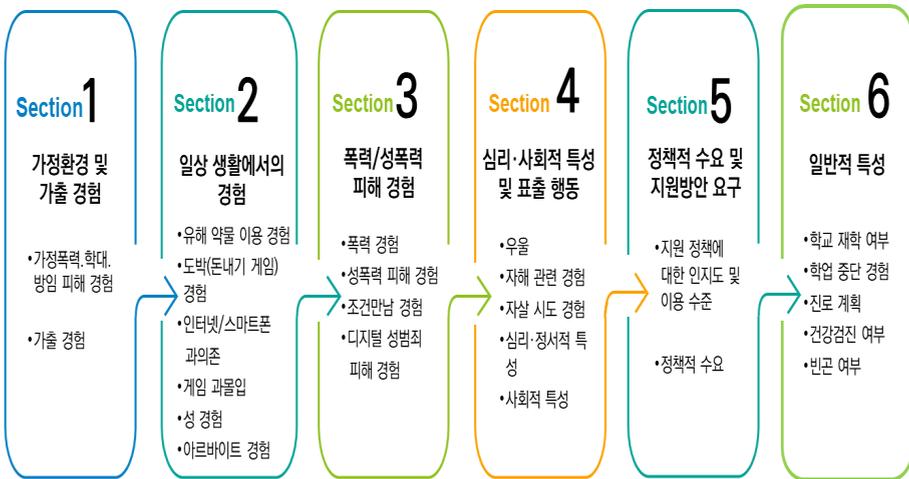


그림 II-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분석의 흐름 및 구성

3) 이 장은 김수혜 교수(강릉원주대학교)가 초고를 작성하고,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이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정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 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 1)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 [주요 결과]

- 가정폭력 피해 생애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위기청소년의 58.4%는 신체적 폭력(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낌)을 경험하였고, 언어폭력(욕 또는 저주의 말을 들음) 피해 경험율은 57.6%로 나타남.

#### (1) 성장기 가정환경

-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빈곤,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 가정환경의 요인을 거론해왔다. 이에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관련 경험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가정불화 여부와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에 관해 질문하였다.
- 먼저 성장기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어릴 때 부모님 사이의 불화(언어폭력, 신체폭력 등)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8%가 ‘본 적이 있음’이라고 응답하였고, ‘본 적이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32.5%에 그쳤다.
  - 부모 간 불화 중 ‘언어폭력’이 54.2%로 높게 나타났고, ‘싸우면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짐(48.1%)’, ‘때리거나 발로 참(3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 성장기 가정환경: 부모 간 불화 목적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본 적이 있음	부모 간 불화 (중복응답)			본 적이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았음)	
			언어 폭력	싸우면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짐	때리거나 발로 참			
전체	(565)	58.8	54.2	48.1	38.9	32.5	8.7	
성별	남자	(340)	49.7	45.9	39.5	32.2	43.2	7.1
	여자	(225)	72.4	66.7	61.2	49.1	16.9	10.7
연령	19세미만	(364)	59.3	54.2	49.5	37.1	31.6	7.4
	19세이상	(195)	57.9	54.1	45.6	42.1	35.4	10.7
위기 유형	가출	(294)	70.1	65.3	59.2	50.3	20.4	9.5
	비행·범죄	(271)	46.5	42.1	36.1	26.4	45.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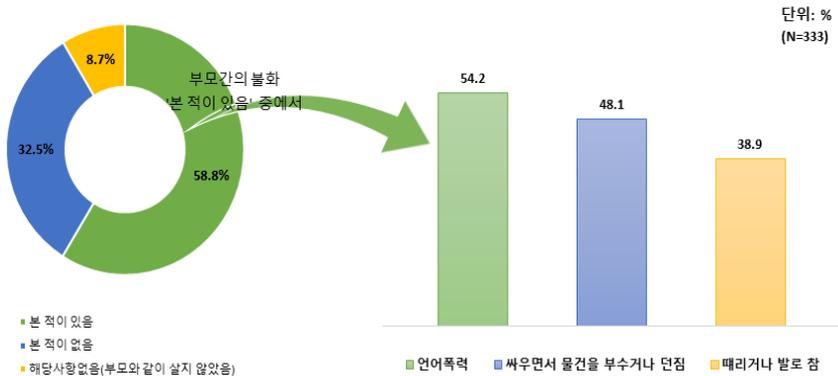


그림 II-2 성장기 가정환경(부모 간 불화 목적)

(2) 방임 경험

○ 부모로부터 얼마나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임'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8.3%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40.7%+그렇지 않다 37.6%)’라고 응답하였고, 21.7%는 ‘그렇다’는 긍정적 반응(그렇다 15.6%+매우 그렇다 6.1%)을 나타냈다.

표 II-2 방임 경험: 학교 결석에 대한 무관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53)	40.7	37.6	15.6	6.1
성별	남자	(333)	42.3	36.3	15.9	5.4
	여자	(220)	38.2	39.5	15.0	7.3
연령	19세미만	(356)	42.7	37.6	14.0	5.6
	19세이상	(193)	36.8	37.8	18.1	7.3
위기 유형	가출	(287)	44.3	32.4	16.7	6.6
	비행·범죄	(266)	36.8	43.2	14.3	5.6

-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비동의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2.1%(전혀 그렇지 않다 47.5%+ 그렇지 않다 34.6%) 를 차지했고, 동의하는 비율은 17.9%(그렇다 12.1%+매우 그렇다 5.8%)에 그쳤다.

표 II-3 방임 경험: 외박이나 가출에 대한 무관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52)	47.5	34.6	12.1	5.8
성별	남자	(333)	49.5	33.6	11.7	5.1
	여자	(219)	44.3	36.1	12.8	6.8
연령	19세미만	(355)	48.7	36.6	10.7	3.9
	19세이상	(193)	45.1	31.1	14.5	9.3
위기 유형	가출	(286)	43.4	32.9	17.1	6.6
	비행범죄	(266)	51.9	36.5	6.8	4.9

○ ‘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9%가 비동의 하는 반응을 나타냈고,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응답 비율은 22.1%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에 따라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청소년(31.1%)이 부모님께서 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청소년(16.2%)보다 높았다. 위기유형에 따른 차이로는 가출 청소년(32.5%)의 긍정적 응답비율이 비행·범죄 청소년(10.9%)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표 II-4 방임 경험: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52)	45.5	32.4	14.1	8.0
성별	남자	(333)	51.7	32.1	9.6	6.6

구분		사례수	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자	(219)	36.1	32.9	21.0	10.0
연령	19세미만	(356)	46.9	33.4	13.5	6.2
	19세이상	(192)	42.7	30.7	15.1	11.5
위기 유형	가출	(286)	31.5	36.0	21.7	10.8
	비행범죄	(266)	60.5	28.6	6.0	4.9

### (3) 가정폭력 피해 및 대응

-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조사해보았다. 먼저, 신체적 폭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을 검토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4%는 가정 내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의 과반이 가정 내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정 내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를 ‘평생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은 41.6%에 그쳤다.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69.8%)이 남자청소년(50.9%)보다 부모님 또는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별 비교에 따르면 가출청소년(70.7%)이 비행·범죄 청소년(45.0%)보다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5 가정폭력 피해 :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경험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한두 번	최근 1년간 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565)	8.7	7.1	7.1	35.6	41.6
성별	남자 (340)	5.6	5.6	6.5	33.2	49.1
	여자 (225)	13.3	9.3	8.0	39.1	30.2
연령	19세미만 (365)	9.6	8.5	7.7	33.2	41.1
	19세이상 (196)	7.1	4.6	5.6	39.8	42.9
위기 유형	가출 (294)	15.0	9.9	8.8	37.1	29.3
	비행범죄 (271)	1.8	4.1	5.2	33.9	55.0

-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6%는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지금까지 ‘평생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은 42.4%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71.8%)이 남자청소년(48.2%)보다 부모(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유형별 비교에 따르면 가출청소년(70.1%)이 비행·범죄청소년(44.0%)보다 부모(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 간 ‘일주일에 한두 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18.6%로 나타나, 위기청소년 5명 중 1명은 일상적으로 부모(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II-6 가정폭력 피해 : 언어폭력 피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님(또는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피해 경험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한두 번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 한 적 없음	
전체	(556)	16.4	7.9	7.2	26.1	42.4	
성별	남자	(336)	10.1	7.1	6.5	24.4	51.8
	여자	(220)	25.9	9.1	8.2	28.6	28.2
연령	19세미만	(360)	18.6	9.2	7.5	23.1	41.7
	19세이상	(193)	12.4	5.7	6.7	31.6	43.5
위기 유형	가출	(288)	26.7	10.8	6.6	26.0	29.9
	비행·범죄	(268)	5.2	4.9	7.8	26.1	56.0

○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통합하여,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산출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63.2%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경험이 없는 비율은 36.8%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의 다수가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77.3%)이 남자청소년(53.8%)보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기유형별 비교에서는 가출청소년(75.8%)이 비행·범죄청소년(49.8%)보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7 가정폭력 경험 여부: 신체적 폭력 및 언어폭력 종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전체	(564)	36.8	63.2

구분		사례수	경험한 적 없다	경험한 적 있다
성별	남자	(340)	46.2	53.8
	여자	(225)	22.7	77.3
연령	19세미만	(365)	35.9	64.1
	19세이상	(196)	38.8	61.2
위기 유형	가출	(293)	24.2	75.8
	비행범죄	(271)	50.2	49.8

○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4%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주변에 알렸다면 누구에게 알렸는지 중복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선후배'가 33.6%로 가장 높았고, '경찰(112)'(21.7%), '선생님'(19.8%), '지원기관'(15.4%)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41.8%)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고 응답한 비율(37.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8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알렸는지 여부와 알린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리지 않음	선생님	친구/선후배	친척/이웃 어른	지원기관	경찰(112)	기타	
전체	(318)	38.4	19.8	33.6	6.0	15.4	21.7	1.6	
성별	남자	(153)	41.8	17.6	30.1	3.9	11.1	17.6	0.7
	여자	(165)	35.2	21.8	37.0	7.9	19.4	25.5	2.4
연령	19세미만	(210)	38.1	21.9	35.2	6.2	13.3	19.0	1.4
	19세이상	(106)	38.7	16.0	31.1	5.7	19.8	26.4	1.9
위기 유형	가출	(205)	34.6	25.4	33.2	6.3	21.0	20.5	1.5
	비행범죄	(113)	45.1	9.7	34.5	5.3	5.3	23.9	1.8

○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된 것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이라서’(21.8%),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16.1%), ‘무서워서’(11.3%),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8.9%)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II-9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무서워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족이라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신고해도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기타	
전체	(124)	11.3	29.8	21.8	3.2	16.1	8.9	8.9	
성별	남자	(67)	9.0	34.3	23.9	6.0	11.9	6.0	9.0
	여자	(57)	14.0	24.6	19.3	0.0	21.1	12.3	8.8
연령	19세미만	(85)	8.2	35.3	22.4	3.5	15.3	8.2	7.1
	19세이상	(38)	18.4	18.4	18.4	2.6	18.4	10.5	13.2
위기 유형	가출	(75)	17.3	22.7	17.3	2.7	22.7	9.3	8.0
	비행·범죄	(49)	2.0	40.8	28.6	4.1	6.1	8.2	10.2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대응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6%(‘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4%+‘알리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었다’ 21.7%+‘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9.5%)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0 가정폭력 대응의 효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렸을 때, 도움 정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알리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전체	(189)	43.4	25.4	21.7	9.5	
성별	남자	(86)	46.5	27.9	19.8	5.8
	여자	(103)	40.8	23.3	23.3	12.6
연령	19세미만	(127)	46.5	24.4	22.0	7.1
	19세이상	(62)	37.1	27.4	21.0	14.5
위기 유형	가출	(128)	43.0	28.1	20.3	8.6
	비행·범죄	(61)	44.3	19.7	24.6	11.5

- 도움을 요청한 대상별로 체감하는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비교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이 ‘친척 또는 이웃 어른’에게 알린 경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비율(68.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반면에 ‘경찰(112)에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체감하는 효과나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도움 주체에 따른 가정폭력 대응의 효과

(단위: 명, %)

도움 주체	사례수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알리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선생님	(63)	54.8	21.0	14.5	9.7
친구나 선후배	(107)	37.5	32.7	25.0	4.8
친척 또는 이웃 어른	(19)	68.8	6.3	12.5	12.5
지원기관(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기관, Wee센터 등)	(49)	54.2	16.7	14.6	14.6
경찰(112)	(68)	35.4	21.5	26.2	16.9

(4)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 향상의 관점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또는 가정폭력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최근 1년 간의 교육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로 나타났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확인되었다.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비율(66.7%)이 남자청소년(55.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12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체		(543)	39.8	60.2
성별	남자	(324)	44.1	55.9
	여자	(219)	33.3	66.7
연령	19세미만	(352)	33.5	66.5
	19세이상	(187)	51.3	48.7
위기 유형	가출	(282)	28.7	71.3
	비행범죄	(261)	51.7	48.3
가정폭력 경험	없음	(201)	41.8	58.2
	있음	(341)	38.7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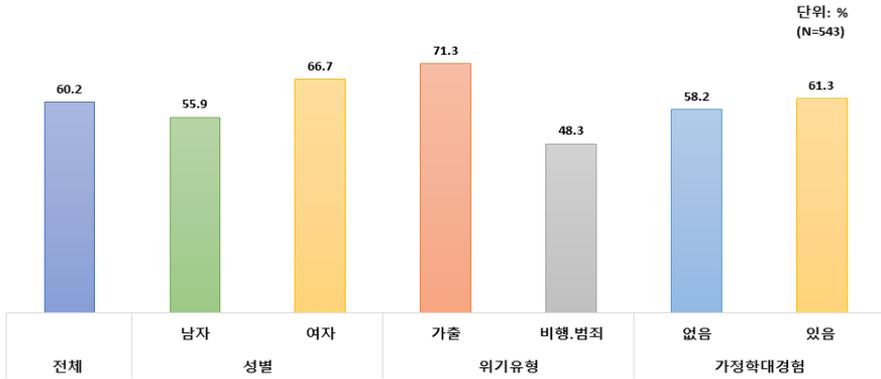


그림 11-3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 경험률

## 2) 가출 경험

### [주요 결과]

-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중 가출 생애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6.3%,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0.6%로 나타남.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많았음.
- 가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 가출 유경험자 가운데,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부터 숙식 제공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경험은 10.7%, 본인이 스스로 '헬퍼'를 구해본 적은 8.3%로 나타남.

### (1) 가출 경험 여부

○ 여기에서는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 가운데 주요 위기에 해당하는 '가출'에 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출을 해본 적이 있는지 '가출 생애 경험'을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66.3%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이러한 결과는 예비조사의 표집 대상이 가출청소년(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

지원관 입소자) 및 비행·범죄(소년원,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치료시설(6호처 분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집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74.1%)이 남자청소년(61.2%)에 비해 가출경험 및 빈도가 더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가정폭력 유무에 따른 차이에 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생애 가출 경험은 75.1%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험율(51.0%) 보다 25.1%p 높게 나타났다.

표 II-13 생애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출 생애 경험 여부 및 빈도						
		해본 적 없다	한 번	2~3회	4~5회	6~9회	10회 이상	
전체	(564)	33.7	12.8	23.2	13.3	3.7	13.3	
성별	남자	(340)	38.8	11.2	22.1	13.2	2.1	12.6
	여자	(224)	25.9	15.2	25.0	13.4	6.3	14.3
연령	19세 미만	(364)	32.7	12.6	25.3	12.1	4.4	12.9
	19세 이상	(196)	34.7	13.3	19.9	15.3	2.6	14.3
가정폭력 경험	없음	(206)	49.0	11.7	21.4	8.3	3.4	6.3
	있음	(357)	24.9	13.4	24.4	16.0	3.9	17.4

- 가출 생애 경험에 이어,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에 대해 별도로 조사한 결과가 아래 제시되어 있다.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6%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 (47.8%)이 남자청소년(35.8%)보다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최근 1년 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최근 1년 간 가출 여부 및 빈도					
		해본 적 없다	한 번	2~3회	4~5회	6~9회	10회 이상
전체	(511)	59.3	13.7	11.9	4.3	3.3	7.4
성별	남자 (302)	64.2	12.3	10.9	3.6	2.0	7.0
	여자 (209)	52.2	15.8	13.4	5.3	5.3	8.1
연령	19세 미만 (329)	54.7	14.3	14.3	4.9	4.0	7.9
	19세 이상 (178)	66.9	12.9	7.9	3.4	2.2	6.7
가정폭력 경험	없음 (190)	74.2	9.5	7.9	3.2	1.1	4.2
	있음 (320)	50.6	16.3	14.1	5.0	4.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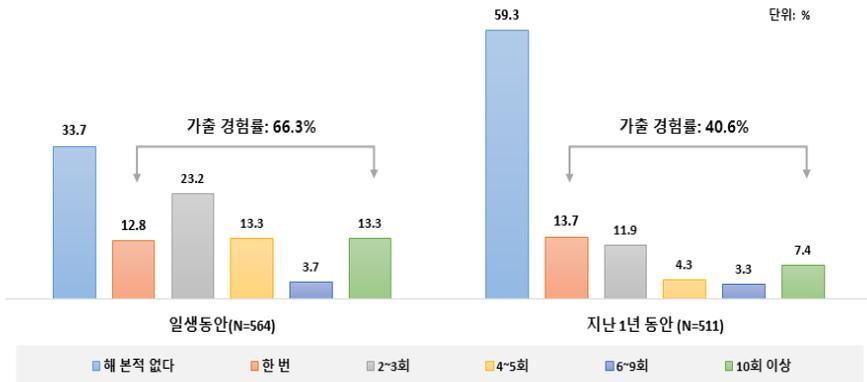


그림 II-4 가출 생애 경험을 및 최근 1년 간 경험률

- 최초 가출 경험 연령에 대한 조사 결과,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13-15세’(55.5%)에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13세 미만에 처음 가출하는 비율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은 4.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13-15세 시기 가출한 비율은 여자청소년(59.9%)이 남자청소년

(51.9%)보다 높게 파악되었다.

- 15세 이전(13세 미만 및 13~15세)에 가출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비교 결과, 19세미만 집단에서는 해당 비율이 72.4%로 나타난 반면, 19세이상 집단에서는 해당 비율이 52.4%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두 개의 연령 코호트(19세미만/19세이상) 비교 결과는 위기청소년 집단에서 가출이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13세 미만에 가출했다고 응답한 비율(11.5%)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피해가 가출의 저연령화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표 II-15 최초 가출 경험 연령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3세 미만	13-15세	16-18세	19-21세	
전체	(375)	10.1	55.5	31.2	3.3	
성별	남자	(208)	14.5	51.9	31.3	2.4
	여자	(167)	4.8	59.9	31.2	4.2
연령	19세미만	(246)	10.2	62.2	27.6	-
	19세이상	(128)	9.4	43.0	38.3	9.4
가정폭력 경험	없음	(106)	6.6	56.5	34.8	1.9
	있음	(268)	11.5	55.2	29.4	3.8

- 가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았고,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44.5%, ‘가족의 폭력을 피하려고’ 30.8%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다.
- 특히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비교 결과,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가족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70.0%, ‘가족의 폭력을

피하려고'라는 응답이 40.4%로, 가정폭력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표 II-16 가출의 원인(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려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학교 폭력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	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기타
전체	(373)	63.0	30.8	3.8	9.9	4.6	5.4	10.7	44.5	4.6
성별	남자 (206)	58.3	25.7	3.9	6.8	2.4	5.3	8.7	45.1	4.9
	여자 (167)	68.9	37.1	3.6	13.8	7.2	5.4	13.2	43.7	4.2
연령	19세 미만 (244)	62.3	29.1	2.9	11.9	4.1	5.7	12.7	46.3	4.5
	19세 이상 (128)	64.8	34.4	5.5	6.3	5.5	4.7	7.0	40.6	4.7
가정 폭력 경험	없음 (105)	44.8	6.7	1.0	9.5	1.9	1.9	13.3	59.0	7.6
	있음 (267)	70.0	40.4	4.9	10.1	5.6	6.7	9.7	38.6	3.4

## (2) 가출 중 생활 실태

- 집을 나와서 지낸 기간 중 가장 길었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가출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6%는 '1개월 미만'으로 응답했고,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9%로 확인되었다.
- 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세 미만 연령 청소년(8.2%)에 비해 19세 이상 후기 청소년(25.0%)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응답률(15.7%)이, 해당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응답률(9.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17 집을 나온 기간 중 최장 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2개월	3~5개월	6~11개월	1년 이상	
전체	(374)	47.6	20.6	10.7	7.2	13.9	
성별	남자	(207)	47.8	19.8	11.6	6.3	14.5
	여자	(167)	47.3	21.6	9.6	8.4	13.2
연령	19세 미만	(245)	55.9	20.8	10.2	4.9	8.2
	19세 이상	(128)	32.0	19.5	11.7	11.7	25.0
가정폭력 경험	없음	(105)	55.2	19.0	11.4	4.8	9.5
	있음	(268)	44.4	21.3	10.4	8.2	15.7

- 가출 후 주거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집을 나와서 지낸 곳'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라는 응답 비율이 72.5%로 가장 높았다.
- 그 밖에 '여관/모텔/달방/월세방'(41.2%), '청소년쉼터'(37.7%), '찜질방/고시원/PC방'(32.9%),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23.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를 제외하면 주거지로 보기 힘든 곳이라는 점에서, 가출 청소년의 주거가 대단히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표 II-18 가출 시 지낸 곳(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청소년 쉼터	친구 또는 선후 배 집	여관/ 모텔/ 달방/ 월세방	찜질방/ 고시원 /PC방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	인터넷 등 을 통해 알게 된 사람 (헬퍼)	가출 팸	친척 집	기타	
전체	(374)	37.7	72.5	41.2	32.9	23.0	2.4	4.3	5.6	0.8	
성별	남자	(207)	31.9	73.9	42.5	32.4	24.2	1.0	4.3	4.8	1.0
	여자	(167)	44.9	70.7	39.5	33.5	21.6	4.2	4.2	6.6	0.6
연령	19세 미만	(245)	35.1	73.5	40.4	30.2	25.7	2.9	4.9	4.9	0.4

구분		사례 수	청소년 쉼터	친구 또는 선후 배 집	여관/ 모텔/ 달방/ 월세방	찜질방/ 고시원 /PC방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	인터넷 등 을 통해 알게 된 사람 (헬퍼)	가출 팸	친척 집	기타
	19세 이상	(128)	43.0	71.1	43.0	37.5	17.	1.6	3.1	7.0	1.6
가정 폭력 경험	없음	(105)	19.0	74.3	48.6	28.6	10.5	2.9	2.9	3.8	0.0
	있음	(268)	45.1	71.6	38.1	34.7	28.0	2.2	4.9	6.3	1.1

○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의 70.6%가 ‘친구 또는 선·후배’라고 답하였다. ‘상담기관/쉼터/보호시설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31.8%로 뒤를 이었고, ‘가족/친척’이라는 응답은 13.6%로 파악되었다.

- 특히 가출청소년의 경우, ‘상담기관/쉼터/보호시설 선생님’이라는 응답 비율(55.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가출청소년에게 이들 기관의 선생님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9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도움을 받은 대상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도움 받지 않음	도움을 받은 대상							
			친구 또는 선후배	가족/ 친척	학교 선생님	상담기관/쉼 터/보호시설 선생님	경찰관	잘 모르는 사람	기타	
전체	(374)	13.9	70.6	13.6	10.7	31.8	8.0	4.8	1.6	
성별	남자	(207)	17.4	69.1	12.1	11.6	28.0	5.8	4.3	0.5
	여자	(167)	9.6	72.5	15.6	9.6	36.5	10.8	5.4	3.0

구분	사례 수	도움 받지 않음	도움을 받은 대상							
			친구 또는 선후배	가족/친척	학교 선생님	상담기관/쉼터/보호시설 선생님	경찰관	잘 모르는 사람	기타	
연령	19세 미만	(245)	13.9	71.8	13.5	9.8	28.6	8.2	4.9	1.6
	19세 이상	(128)	13.3	68.8	14.1	12.5	38.3	7.8	4.7	1.6
위기 유형	가출	(195)	11.8	62.1	11.3	15.4	55.4	10.8	6.7	1.0
	비행·범죄	(179)	16.2	79.9	16.2	5.6	6.1	5.0	2.8	2.2

-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0%가 ‘생활비가 부족함’을 선택하였다. ‘생활비 부족’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 그 밖에 ‘갈 곳이 없음(살 곳이 없음)’이라는 응답이 34.8%로 뒤를 이었고, ‘우울/불안/좌절/두려움/외로움’ 등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도 2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에게는 경제적 요인, 편히 쉴 공간 및 심리적 문제가 가장 주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20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경험한 애로 사항(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374)	26.2	3.5	4.5	16.0	62.0	16.8	27.5	7.2	11.0	34.8	1.3	17.6	
성별	남자	(207)	28.5	0.5	4.3	14.5	61.4	15.0	16.4	5.3	9.7	34.8	1.4	17.9
	여자	(167)	23.4	7.2	4.8	18.0	62.9	19.2	41.3	9.6	12.6	34.7	1.2	17.4

구분	사례수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연령	19세 미만	(245)	24.5	3.7	4.5	14.3	60.8	16.3	25.3	8.6	9.8	36.7	2.0	17.6
	19세 이상	(128)	29.7	3.1	4.7	19.5	64.1	18.0	32.0	4.7	13.3	31.3	0.0	18.0
가정 폭력 경험	없음	(105)	20.0	3.8	1.9	3.8	55.2	9.5	10.5	3.8	2.9	27.6	2.9	26.7
	있음	(268)	28.7	3.4	5.6	20.9	64.9	19.8	34.3	8.6	14.2	37.3	0.7	14.2

주: ① 일자리가 없음, ② 원하지 않는 조건 만남/성매매 하기, ③ 거리에서의 폭력/범죄 피해, ④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 ⑤ 생활비가 부족함, ⑥ 건강이 안 좋아짐, ⑦ 우울/불안/좌절/두려움/외로움, ⑧ 같이 다니는 또래들과의 관계, ⑨ 도움 요청할 곳이 없거나, 어디에 요청할지 모름, ⑩ 갈 곳이 없음(살 곳이 없음), ⑪ 기타, ⑫ 별로 힘든 점 없음

### (3) '헬퍼' 접촉 경험

- 가출 청소년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적확히 진단하고, 그로부터 신규 정책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위 '헬퍼'에 대한 접촉 경험을 조사해보았다.
- 먼저,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부터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가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10.7%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가출 유경험자의 8.3%는 '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줄 사람(헬퍼)을 구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성별 비교 결과,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 보다 '헬퍼'를 구해본 적이 있는 경험(13.2%)과 '헬퍼'로부터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18.0%)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21 헬퍼 접촉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부터 먹을 것과 잡잘 곳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 것과 잡잘 곳을 제공해줄 사람(헬퍼)을 구해본 적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374)	10.7	89.3	8.3	91.7
성별	남자 (207)	4.8	95.2	4.3	95.7
	여자 (167)	18.0	82.0	13.2	86.8
연령	19세 미만 (245)	10.2	89.8	8.2	91.8
	19세 이상 (128)	11.7	88.3	8.6	91.4

- ‘헬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7.8%가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를 통해’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랜덤채팅앱’(21.7%)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비교 결과, 남자청소년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라고 응답한 비율(36.4%)이 여자청소년(8.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청소년은 메신저(51.4%)나 랜덤채팅앱(28.6%) 등 주변의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가능한 매체를 통해 ‘헬퍼’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19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메신저’(53.3%)를 통해 정보를 접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청소년들이 소위 ‘헬퍼’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주된 경로로 인터넷 메신저가 활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표 II-22 헬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출 관련 카페	랜덤 채팅앱	메신저	친구나 선후배	가출청소년 밀집 지역	기타	
전체	(46)	6.5	21.7	47.8	15.2	4.3	4.3	
성별	남자	(11)	18.2	0.0	36.4	36.4	0.0	9.1
	여자	(35)	2.9	28.6	51.4	8.6	5.7	2.9
연령	19세 미만	(30)	6.7	20.0	53.3	13.3	3.3	3.3
	19세 이상	(16)	6.3	25.0	37.5	18.8	6.3	6.3

- 가출로 인해 소위 ‘헬퍼’와 접촉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n=49) 중에서, 실제로 ‘헬퍼’와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30.6%로 나타났고, 69.4%는 헬퍼와 접촉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생활해 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헬퍼와 함께 지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줘서’라는 응답(84.6%)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응답 사례수가 과소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헬퍼와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실제로 낯선 이들과 생활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방증한다.

표 II-23 ‘헬퍼’와의 생활 경험 여부 및 함께 생활하게 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헬퍼와의 생활 경험 여부			헬퍼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유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줘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전체	(49)	30.6	69.4	(13)	84.6	15.4

구분		헬퍼와의 생활 경험 여부			헬퍼와 함께 생활하게 된 이유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줘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성별	남자	(14)	42.9	57.1	(4)	100.0	0.0
	여자	(35)	25.7	74.3	(9)	77.8	22.2
연령	19세 미만	(32)	25.0	75.0	(8)	75.0	25.0
	19세 이상	(17)	41.2	58.8	(5)	100.0	0.0

- ‘헬퍼’와 지내면서 경험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헬퍼’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20.0%는 ‘대출 사기,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집을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각각 13.3%를 나타냈다.
-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 역시 응답 사례수(n=15)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 하거나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결과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후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낯선 이들과 지내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표 II-24 ‘헬퍼’로 인한 부정적 경험

(단위: 명, %)

항목	사례수	있다	없다
•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5)	13.3	86.7
• 집을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다	(15)	13.3	86.7
• 대출 사기,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다	(15)	20.0	80.0
•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15)	13.3	86.7

(4)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이라는 응답이 78.7%로 가장 많았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 제공’(44.8%), 취업지원(39.8%)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이라는 응답이 19세 미만 및 19세 이상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동일하지만, 19세 미만 집단에서는 ‘당장 필요한 생필품 제공’이라는 응답 비율이 4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9세 이상 집단에서는 ‘취업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44.6%로 나타나, 19세 미만 집단(37.5%)의 응답 비율에 비해 7.1%p 더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25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당장 필요한 생필품 제공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지원	학업 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의료 지원	기타	
전체	(362)	44.8	78.7	9.4	9.4	39.8	8.0	7.2	
성별	남자	(202)	49.5	78.7	4.5	7.9	39.1	7.4	9.4
	여자	(160)	38.8	78.8	15.6	11.3	40.6	8.8	4.4
연령	19세미만	(240)	47.1	78.3	8.8	9.2	37.5	7.1	8.3
	19세이상	(121)	39.7	79.3	10.7	9.9	44.6	9.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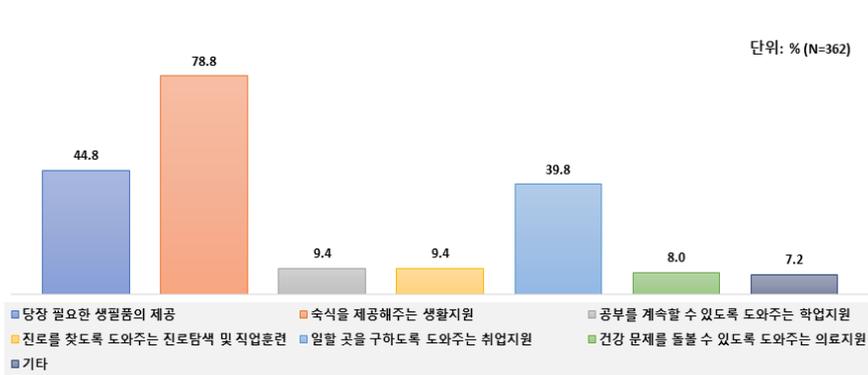


그림 II-5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 <표 II-26>~<표 II-28>에는 순차적으로 가출청소년 대상 지원시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버스 형태의 이동형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0%는 ‘버스 형태의 이동형 청소년쉼터’를 모른다고 답했고, ‘안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
- 해당 서비스를 안다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2%, 없다는 응답이 65.8%로 더 많았다.
  -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시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88.7%(‘약간 도움이 됨’ 41.5%+‘매우 도움이 됨’ 4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26 버스형태의 이동형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시 도움 정도				
	사례수	모른다	안다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533)	70.0	30.0	(158)	65.8	34.2	(53)	3.8	7.5	41.5	47.2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시 도움 정도				
		사례수	모른다	안다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성별	남자	(318)	73.6	26.4	(83)	68.7	31.3	(26)	0.0	11.5	38.5	50.0
	여자	(215)	64.7	35.3	(75)	62.7	37.3	(27)	7.4	3.7	44.4	44.4
연령	19세미만	(340)	71.5	28.5	(95)	66.3	33.7	(31)	0.0	12.9	48.4	38.7
	19세이상	(190)	66.8	33.2	(63)	65.1	34.9	(22)	9.1	0.0	31.8	59.1

○ ‘일정 기간 동안 먹고 자는 것이 가능한 생활형 쉼터’에 대해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를 조사해보았다. 먼저,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1%는 ‘일정 기간 동안 먹고 자는 것이 가능한 생활형 청소년쉼터’를 ‘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생활형 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8%로 파악되었다.

- 생활형 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247)를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93.5%(약간 도움이 됨 31.2%+매우 도움이 됨 62.3%)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생활형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율 및 이용율은 높지 않지만,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생활형 청소년쉼터가 무척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27 생활형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시 도움 정도				
		사례수	모른다	안다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534)	27.9	72.1	(382)	33.8	66.2	(247)	2.8	3.6	31.2	62.3
성별	남자	(319)	35.7	64.3	(204)	40.2	59.8	(121)	0.8	2.5	28.9	67.8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시 도움 정도				
		사례수	모른다	안다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여자	(215)	16.3	83.7	(178)	26.4	73.6	(126)	4.8	4.8	33.3	57.1
연령	19세미만	(343)	27.1	72.9	(248)	33.9	66.1	(160)	3.1	3.8	33.1	60.0
	19세이상	(188)	29.3	70.7	(132)	34.1	65.9	(85)	2.4	3.5	28.2	65.9

-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9.2%로 파악되었다. 이용자의 대부분(89.2%)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 성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인지율은 여자청소년(44.5%)이 남자청소년(32.9%) 보다 높았지만, 이용률은 남자청소년(21.6%)이 여자청소년(16.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28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시 도움 정도				
		사례수	모른다	안다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527)	62.4	37.6	(193)	80.8	19.2	(37)	5.4	5.4	37.8	51.4
성별	남자	(316)	67.1	32.9	(102)	78.4	21.6	(22)	4.5	0.0	36.4	59.1
	여자	(211)	55.5	44.5	(91)	83.5	16.5	(15)	6.7	13.3	40.0	40.0
연령	19세이상	(334)	65.6	34.4	(111)	82.0	18.0	(20)	0.0	10.0	55.0	35.0
	19세미만	(190)	56.8	43.2	(81)	79.0	21.0	(17)	11.8	0.0	17.6	70.6

-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책적 개선사항이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가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10.3%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도 21.3%로 높게 나타나, 세부적인 원인을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가출을 빈번하게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기 위해, 가출 빈도에 따라 비교를 실시해보았다. 가출을 4회 이상 여러 번 경험한 응답자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여전히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16.9%), '쉼터의 규칙 때문에'(13.6%)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9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쉼터가 없어서	이성친구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없어서	쉼터의 규칙 때문에	쉼터 프로그램이 나와 맞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기타
전체(가출 유경험)	(136)	53.7	2.9	1.5	4.4	5.9	10.3	21.3
가출 빈도	1-3회	(71)	52.1	1.4	1.4	4.2	7.0	15.5
	4회 이상	(59)	45.8	5.1	3.4	13.6	6.8	16.9
								8.5

## 2. 일상 생활 경험

### 1) 유해 약물 이용

#### [주요 결과]

- 19세 미만 위기청소년의 최근 1개월 간 흡연율은 52.9%, 음주율은 35.3%,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0.8%로 나타남.
- 19세 미만 위기청소년 중 담배 구입을 위해 대리구매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2.1%, 술을 대리구매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3.3%로 나타남.

(1) 유해 약물 이용 경험

- 여기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유해 약물 이용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흡연 경험과 관련하여, 최근 1개월 간 담배 이용 경험과 피워 본 담배 종류를 조사한 결과, ‘어떤 종류의 담배도 피운 적 없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이용한 담배 종류에 대해서는 일반담배(52.4%), 액상형 전자담배(20.6%), 껴련형 전자담배(14.1%)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흡연은 연령에 따라 법적 허용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행위이므로, 연령에 따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만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 ‘어떤 종류의 담배도 피운 적 없다’는 응답은 47.1%로 나타났으며, ‘일반 담배(껴련)’를 피운 적 있다는 응답이 50.7%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적 있다는 응답은 20.1%, ‘껴련형 전자담배’를 피운 적 있다는 응답은 13.4%로 파악되었다.
- 위기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비행·범죄 청소년의 일반담배 흡연율(65.7%)은 가출 청소년(4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30 최근 담배 이용 경험 및 피워본 담배 종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떤 종류의 담배도 피운 적 없다	일반 담배 (껴련)	액상형 전자 담배	껴련형 전자담배	기타
전체		(553)	45.8	52.4	20.6	14.1	0.4
성별	남자	(332)	42.2	56.0	20.8	15.4	0.3
	여자	(221)	51.1	47.1	20.4	12.2	0.5
연령	19세미만	(359)	47.1	50.7	20.1	13.4	0.6
	19세이상	(190)	43.2	55.8	22.1	15.8	0.0
위기 유형	가출	(288)	56.9	40.3	19.8	11.8	0.3
	비행·범죄	(265)	33.6	65.7	21.5	16.6	0.4

-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7%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음주 경험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 응답률(42.7%)이 남자청소년(36.0%)보다 높았다.
- 음주 역시 흡연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행위이므로 연령에 따라 이용율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19세 미만 집단에서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5.3%로 파악되었다. 19세 이상 집단의 음주 경험율(45.1%) 보다는 약 10%p 낮은 수치이나, 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음주 경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 '최근 1개월 간 환각성물질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0.5%로 파악되었다.

표 II-31 최근 음주 및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			최근 1개월 간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64)	38.7	61.3	(563)	0.5	99.5	
성별	남자	(339)	36.0	64.0	(339)	0.6	99.4
	여자	(225)	42.7	57.3	(224)	0.4	99.6
연령	19세미만	(365)	35.3	64.7	(364)	0.8	99.2
	19세이상	(195)	45.1	54.9	(195)	0.0	100.0
위기 유형	가출	(294)	37.8	62.2	(293)	1.0	99.0
	비행·범죄	(270)	39.6	60.4	(270)	0.0	100.0

(2) 약물로 인한 부정적 행동

- 술이나 담배로 인한 부정적 행동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술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3.9%로 뒤를 이었다.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7.5%로 파악되었다.

- 이 가운데 술담배를 구하기 위해 대리구매를 해본 경험 여부는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연령별로 경험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담배 구입을 위해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의 경우, 19세 미만 집단에서도 42.0%가 이러한 경험을 해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술을 구하기 위해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세 미만 집단에서 33.3%로 파악되었고, ‘술을 마시고, 자전거/오토바이 등을 음주운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9세 미만 집단에서 14.6%로 파악되었다. 또한 ‘술에 취해서 강제로 성희롱이나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9세 미만 집단의 유경험률(2.8%)이 19세 이상 집단의 경험률(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리구매 등의 범법 행위를 유발하고, 음주로 인한 후속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위험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표 II-32 술이나 담배로 인한 부정적 행동

(단위: 명, %)

항목		사례수	있다	없다	
• 술이나 담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적이 있다	전체	(564)	27.5	72.5	
	연령	19세미만	(364)	24.5	75.5
		19세이상	(196)	33.7	66.3
•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전체	(564)	42.1	57.9	
	연령	19세미만	(364)	42.0	58.0
		19세이상	(196)	42.3	57.7

항목		사례수	있다	없다	
• 술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전체	(563)	33.9	66.1	
	연령	19세미만	(363)	33.3	66.7
		19세이상	(196)	35.7	64.3
•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폭행,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전체	(564)	16.8	83.2	
	연령	19세미만	(364)	14.3	85.7
		19세이상	(196)	21.4	78.6
• 술을 마시고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음주운전 한 적이 있다	전체	(564)	15.1	84.9	
	연령	19세미만	(364)	14.6	85.4
		19세이상	(196)	16.3	83.7
• 술에 취해서 강제로 성희롱이나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	전체	(562)	2.1	97.9	
	연령	19세미만	(362)	2.8	97.2
		19세이상	(196)	1.0	99.0

### (3) 약물 관련 교육 경험

- 유해 약물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 향상의 관점에서, 흡연 예방교육여부에 따라 담배 관련 부정적 행동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흡연 예방교육 여부에 따라 담배 대리 구매 비율이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흡연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40.8%) 그렇지 않은 청소년(42.4%)에 비해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II-33 흡연 예방교육 여부에 따른 부정적 행동 차이

(단위: 명, %)

		사례수	흡연 예방교육 여부	
			있다	없다
담배 구입 시,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	예	(235)	40.8	42.4
	아니오	(326)	59.2	57.6
	합계	(561)	100.0	100.0

○ 음주 예방교육이 음주로 인한 부정적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음주 예방교육 경험 여부별 음주로 인한 부정적 행동 경험율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다른 지표들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술을 구입하기 위해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는 질문의 경우, 음주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의 대리구매 경험률(30.8%)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의 대리구매 경험률(35.9%) 보다 5.1%p 낮게 파악되었다.

표 II-34 음주 예방교육 여부에 따른 부정적 행동 차이

(단위: 명, %)

		사례수	음주 예방교육 여부	
			있다	없다
• 술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예	(189)	30.8	35.9
	아니오	(369)	69.2	64.1
	전체	(558)	100.0	100.0
•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폭행,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예	(93)	19.0	15.1
	아니오	(466)	81.0	84.9
	전체	(559)	100.0	100.0
• 술을 마시고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음주운전 한 적이 있다	예	(85)	15.4	15.1
	아니오	(474)	84.6	84.9
	전체	(559)	100.0	100.0
• 술에 취해서 강제로 성희롱이나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	예	(12)	2.3	2.1
	아니오	(545)	97.7	97.9
	전체	(559)	100.0	100.0

○ 음주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0.5%는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75.8%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표 II-35 약물 관련 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음주예방교육 여부			음주예방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560)	39.5	60.5	(335)	7.2	17.0	52.2	23.6
성별	남자	(337)	40.4	59.6	(200)	7.0	13.5	54.5	25.0
	여자	(223)	38.1	61.9	(135)	7.4	22.2	48.9	21.5
연령	19세미만	(363)	32.8	67.2	(242)	8.3	19.0	51.7	21.1
	19세이상	(194)	52.6	47.4	(90)	4.4	10.0	54.4	31.1

○ 흡연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0%는 흡연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72.4%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표 II-36 약물 관련 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흡연예방교육 여부			흡연예방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562)	31.0	69.0	(384)	8.1	19.5	49.0	23.4
성별	남자	(339)	33.0	67.0	(226)	6.6	16.8	52.2	24.3
	여자	(223)	27.8	72.2	(158)	10.1	23.4	44.3	22.2
연령	19세이상	(364)	22.0	78.0	(282)	9.6	20.6	48.9	20.9
	19세미만	(194)	48.5	51.5	(98)	4.1	14.3	50.0	31.6

○ 환각성 물질 위험에 대한 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8.0%는 최근 1년 사이에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0.0%는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표 II-37 약물 관련 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여부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558)	52.0	48.0	(265)	6.0	14.0	49.4	30.6	
성별	남자	(336)	54.5	45.5	(152)	5.9	11.8	48.7	33.6
	여자	(222)	48.2	51.8	(113)	6.2	16.8	50.4	26.5
연령	19세미만	(361)	46.5	53.5	(191)	6.8	16.8	50.8	25.7
	19세이상	(194)	62.4	37.6	(72)	4.2	5.6	47.2	43.1

## 2) 도박(돈내기 게임)

### [주요 결과]

-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24.9%였고, 최근 3개월 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1%로 나타남.
- 최근 3개월 이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2회 이상' 했다는 응답이 53.3%로 나타남.

### (1) 돈내기 게임 경험

- 돈내기 게임 생애 경험 조사 결과, 지금까지 돈내기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조사대상 위기청소년의 24.9%(‘지난 3개월 간 해본 적 있음’ 6.1%+ ‘지난 3개월 동안은 없지만 그 전에 해본 적 있음’ 18.8%)로 파악되었다.
-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남자청소년의 29.4%가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반면에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18.2%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이 돈내기 게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38 돈내기 게임 생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지난 3개월 동안은 없지만, 그 전에는 해본 적이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다
전체		(526)	75.1	18.8	6.1
성별	남자	(317)	70.7	21.5	7.9
	여자	(209)	81.8	14.8	3.3
연령	19세미만	(337)	76.0	17.5	6.5
	19세이상	(186)	73.1	21.5	5.4
위기 유형	가출	(280)	81.1	13.6	5.4
	비행·범죄	(246)	68.3	24.8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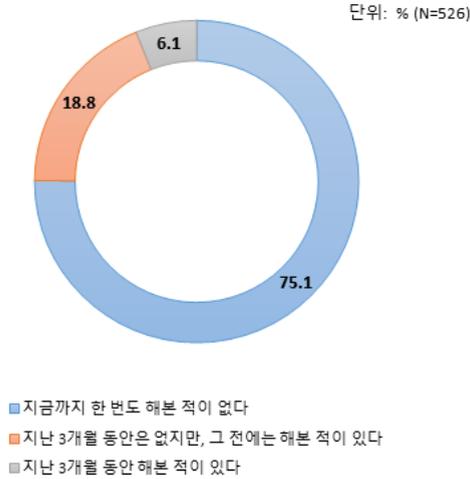


그림 II-6 돈내기 게임 생애 경험

○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돈내기 게임을 경험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돈내기 게임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조사한 결과, '인터넷 스포츠 베팅(토토/프로토 '베트맨' 또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베팅)'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은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50.0%)과 뽑기 게임(50.0%)을 빈번하게 하는 반면에 남자청소년은 인터넷 카지노 게임(25.0%)과 복권 구입(25.0%)과 같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응답 결과는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n=30), 분석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표 II-39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경험 및 종류(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30)	3.3	33.3	10.0	53.3	10.0	20.0	16.7	20.0	43.3	13.3	20.0	3.3
성별	남자	(24)	0.0	33.3	12.5	62.5	4.2	25.0	8.3	12.5	41.7	8.3	25.0	4.2
	여자	(6)	16.7	33.3	0.0	16.7	33.3	0.0	50.0	50.0	50.0	33.3	0.0	0.0
연령	19세미만	(20)	0.0	20.0	10.0	50.0	5.0	15.0	10.0	10.0	35.0	10.0	10.0	0.0
	19세이상	(10)	10.0	60.0	10.0	60.0	20.0	30.0	30.0	40.0	60.0	20.0	40.0	10.0
위기 유형	가출	(13)	7.7	23.1	0.0	53.8	15.4	0.0	7.7	23.1	46.2	15.4	15.4	0.0
	비행범죄	(17)	0.0	41.2	17.6	52.9	5.9	35.3	23.5	17.6	41.2	11.8	23.5	5.9

주: ① 한게임, 넷마블 등에 있는 카드/화투 게임  
 ② 온라인용 그 외 내기 게임(온라인 사다리, 다리다리, 빙고, 달팽이, 그래프 게임 등)  
 ③ 인터넷 복권 구입  
 ④ 인터넷 스포츠 베팅(토토/프로토 '베트맨' 또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베팅)  
 ⑤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베팅(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TV 등)  
 ⑥ 인터넷 카지노 게임(온라인 포커, 바둑이, 블랙잭, 바카라 등)  
 ⑦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홀라, 블랙잭, 바둑이, 유희왕 등)  
 ⑧ 뽑기 게임 (인형뽑기, 경품뽑기 등)  
 ⑨ 스포츠 경기 내기 (축구, 야구, 농구, 볼링 등)  
 ⑩ 그 외 내기 게임 (짬짜이, 사다리타기, 빙고 등)  
 ⑪ 복권 구입(로또, 연금복권 등)  
 ⑫ 스포츠 복권 구입(토토, 프로토)

- 위에서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을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돈내기 게임을 처음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4.0%로 그 뒤를 이었다.
-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돈내기 게임을 접하는 데는 친구나 선후배, 주변 사람 등 주변에서 도박(돈내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표 II-40 돈내기 게임을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친구나 선후 배의 소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TV, 영화, 만화 등을 보고	전단지, 인쇄 광고물 등을 보고	기타
전체		(25)	52.0	24.0	4.0	4.0	16.0
성별	남자	(19)	57.9	15.8	0.0	5.3	21.1
	여자	(6)	33.3	50.0	16.7	0.0	0.0
연령	19세미만	(16)	56.3	18.8	0.0	6.3	18.8
	19세이상	(9)	44.4	33.3	11.1	0.0	11.1
위기 유형	가출	(13)	53.8	23.1	7.7	7.7	7.7
	비행범죄	(12)	50.0	25.0	0.0	0.0	25.0

- 최근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n=30), 돈내기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이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문항에 답한 대상자 중 30%는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내기 게임의 상습적 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응답자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거의 매일’ 하는 비율은 남학생에게서 집중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남학생이 돈내기 게임에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41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경험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지금까지 1~2회 해본 정도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체	(30)	10.0	36.7	23.3	30.0	
성별	남자	(23)	8.7	34.8	17.4	39.1
	여자	(7)	14.3	42.9	42.9	0.0
연령	19세미만	(20)	10.0	40.0	20.0	30.0
	19세이상	(10)	10.0	30.0	30.0	30.0
위기 유형	가출	(14)	21.4	35.7	14.3	28.6
	비행·범죄	(16)	0.0	37.5	31.3	31.3

○ 최근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6.7%가 ‘호기심 또는 일시적인 재미’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지금까지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36.7%), ‘스릴과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33.3%), ‘유홍비 마련을 위해’(26.7%)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 사례수(n=30)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힘들지만, 배경변인별 주요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스릴과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 돈내기 게임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39.1%로 나타나, 여자청소년(14.3%)보다 높았다. 또한, ‘유홍비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30.4%)도 여자청소년(14.3%)보다 높았다.
- 위기유형별로는 비행·범죄청소년의 경우 ‘스릴과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3.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고민, 스트레스, 나쁜 기분을 잊게 위해’라는 응답이 21.4%로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42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스릴과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호기심 또는 일시적 재미로	고민, 스트레스, 나쁜 기분을 잊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기타	
전체	(30)	33.3	46.7	13.3	3.3	26.7	36.7	16.7	
성별	남자	(23)	39.1	43.5	8.7	0.0	30.4	34.8	17.4
	여자	(7)	14.3	57.1	28.6	14.3	14.3	42.9	14.3
연령	19세미만	(20)	30.0	35.0	15.0	5.0	25.0	30.0	20.0
	19세이상	(10)	40.0	70.0	10.0	0.0	30.0	50.0	10.0
위기 유형	가출	(14)	21.4	35.7	21.4	7.1	21.4	14.3	14.3
	비행·범죄	(16)	43.8	56.3	6.3	0.0	31.3	56.3	18.8

- 최근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7%가 친구나 선후배와 같이 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25.5%는 혼자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43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을 같이 한 사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 혼자	친구나 선후배와	아르바이트나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람(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	가족들	
전체	(47)	25.5	61.7	4.3	4.3	4.3	
성별	남자	(36)	33.3	55.6	5.6	5.6	0.0
	여자	(11)	0.0	81.8	0.0	0.0	18.2
연령	19세미만	(30)	13.3	70.0	6.7	3.3	6.7
	19세이상	(16)	43.8	50.0	0.0	6.3	0.0
위기 유형	가출	(22)	18.2	59.1	9.1	9.1	4.5
	비행·범죄	(25)	32.0	64.0	0.0	0.0	4.0

(2)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30) 가운데,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 등 아는 사람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7%로 가장 많았고, ‘돈내기 게임 때문에 내 물건 또는 가족의 물건을 팔았던 적이 있다’ 30.0%, ‘돈내기 게임을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해 각각 26.7%의 응답 비율이 확인되었다.

표 II-44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행동

(단위: 명, %)

항목	사례수	있다	없다
• 돈내기 게임 때문에 내 물건 또는 가족의 물건을 팔았던 적이 있다	(30)	30.0	70.0
• 돈내기 게임 때문에 남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오거나, 사기를 친 적이 있다	(30)	16.7	83.3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다	(30)	26.7	73.3
•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30)	36.7	63.3
• 돈내기 게임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30)	10.0	90.0
• 돈내기 게임을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30)	26.7	73.3

○ 돈내기 게임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빌린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사례수가 11명으로 무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분석 결과 ‘5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빌렸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36.4%로 파악되었다.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27.3%를 차지했다.

표 II-45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빌린 돈의 액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 원 초과
전체	(11)	18.2	9.1	9.1	27.3	36.4

(3) 도박 문제 예방교육 경험

- 최근 1년 사이에 도박 문제 예방교육을 받아 본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9%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 도박 문제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84.7%(도움이 됨 54.4%+매우 도움이 됨 30.3%)로 나타났다.

표 II-46 도박 문제 예방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도박 문제 예방교육 경험 여부			도박 문제 예방교육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558)	59.1	40.9	(228)	4.4	11.0	54.4	30.3	
성별	남자	(337)	57.9	42.1	(142)	2.8	10.6	50.7	35.9
	여자	(221)	61.1	38.9	(86)	7.0	11.6	60.5	20.9
연령	19세미만	(360)	54.2	45.8	(165)	4.8	10.3	57.6	27.3
	19세이상	(194)	68.0	32.0	(62)	3.2	11.3	46.8	38.7
위기 유형	가출	(290)	51.4	48.6	(141)	4.3	11.3	53.2	31.2
	비행·범죄	(268)	67.5	32.5	(87)	4.6	10.3	56.3	28.7

###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 [주요 결과]

-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5.6%(잠재적 위험군 30.9%+고위험군 4.7%)로 나타남.

#### (1)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분류한 결과, 30.9%는 잠재적 위험군, 4.7%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 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 위험군)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 위험군 비율(40.2%)이 남자청소년(32.6%)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9세 미만 집단의 위험군 비율(38.5%)이 19세이상 집단의 비율(29.9%) 보다 높았다.

표 II-47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군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소계	
전체	(559)	64.4	30.9	4.7	35.6	
성별	남자	(335)	67.5	28.7	3.9	32.6
	여자	(224)	59.8	34.4	5.8	40.2
연령	19세미만	(361)	61.5	33.0	5.5	38.5
	19세이상	(194)	70.1	26.8	3.1	29.9
위기 유형	가출	(293)	64.5	31.4	4.1	35.5
	비행·범죄	(266)	64.3	30.5	5.3	35.8

주: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여, 해당 보고서(p.10)에서 청소년의 과의존위험군을 판별하는 데 적용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이에 따라 4점 척도 10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토대로 31점 이상은 고위험군, 23-30점은 잠재적위험군으로 분류함.

(2)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 최근 1년 동안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여부와 교육의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6.3%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남자청소년(49.8%)보다 여자청소년(65.9%)의 교육 경험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19세미만 집단의 교육 경험률(61.9%)이 19세이상 집단(46.1%)보다 높았다.
- 해당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312)를 대상으로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관련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73.7%(도움이 됨 56.4%+매우 도움이 됨 17.3%)로 나타났다.

표 II-48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교육 경험 여부			교육의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556)	43.7	56.3	(312)	8.0	18.3	56.4	17.3
성별	남자	(333)	50.2	49.8	(166)	7.2	16.3	56.6	19.9
	여자	(223)	34.1	65.9	(146)	8.9	20.5	56.2	14.4
연령	19세미만	(360)	38.1	61.9	(223)	8.1	21.5	53.8	16.6
	19세이상	(193)	53.9	46.1	(88)	8.0	9.1	63.6	19.3
위기유형	가출	(291)	31.6	68.4	(198)	7.6	18.7	55.6	18.2
	비행·범죄	(265)	57.0	43.0	(114)	8.8	17.5	57.9	15.8

#### 4) 게임 이용 경험

##### [주요 결과]

- 위기청소년의 4.9%가 게임 과몰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5.5%)의 비율이 여자청소년(3.6%) 보다 높았음.

##### (1) 게임 이용 여부 및 이유

- 조사내용 개발을 위한 현장전문가 FGI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일부는 게임 과몰입 성향을 보이며, 그것이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등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기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실태를 점검해보기 위해, 평소에 게임을 하는지, 게임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비롯해 게임 과몰입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먼저, 평소 게임을 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9.9%로 파악되었다. 바꿔 말하면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중 70.1%는 평소 게임을 즐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게임이용률은 78.0%로, 여자청소년의 게임이용률(58.2%) 보다 약 20%p 더 높게 나타났다.
-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2.3%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답했고,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17.9%), ‘경쟁하는 재미가 있어서’(12.2%)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표 II-49 게임 이용 여부 및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게임 하지 않음	게임을 하는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475)	29.9	22.3	12.2	3.2	17.9	1.3	7.4	2.1	3.8	
성별	남자	(286)	22.0	27.6	14.7	2.4	19.2	1.0	7.3	2.4	3.1
	여자	(189)	41.8	14.3	8.5	4.2	15.9	1.6	7.4	1.6	4.8
연령	19세미만	(297)	28.3	19.5	13.5	4.4	19.5	1.3	6.1	2.0	5.4
	19세이상	(175)	32.6	26.3	10.3	1.1	15.4	1.1	9.7	2.3	1.1
위기 유형	가출	(251)	27.9	24.3	11.6	3.2	17.5	2.0	6.8	2.0	4.8
	비행범죄	(224)	32.1	20.1	12.9	3.1	18.3	0.4	8.0	2.2	2.7

주: ①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②경쟁하는 재미가 있어서, ③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④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⑤게임 세계에서의 내가 좋아서, ⑥게임에서 이기거나 레벨업 할 때의 기분이 좋아서, ⑦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⑧기타

## (2) 게임 과몰입 수준

- 게임 과몰입 수준에 대한 점검은 평소에 게임을 한다고 답한 청소년에 한해, 게임 과몰입을 측정하는 6개 문항(4점 척도)의 합산 점수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 최소 6점~최대 24점으로 측정된 합산 점수의 전체 평균은 10.47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10.65)이 여자청소년(10.12)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연령별 비교에서는 19세미만 집단의 평균 점수(10.62점)가 19세이상 집단의 평균 점수(10.17점) 보다 더 높았다.

표 II-50 게임 과몰입 수준(문항합산 점수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7)	10.47	3.67
성별	남자	(217)	10.65	3.87
	여자	(110)	10.12	3.25
연령	19세미만	(209)	10.62	3.67
	19세이상	(116)	10.17	3.67
위기 유형	가출	(177)	10.99	3.55
	비행범죄	(150)	9.86	3.74

- 6개 문항 합산점수가 18점(각 문항별로 ‘그렇다=3’점×6점) 이상인 집단을 ‘과몰입 가능성군’으로 분류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4.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단 특성에 따라 과몰입 가능성군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남자청소년(5.5%) 이 여자청소년(3.6%)보다 게임 과몰입 가능성군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았다.

표 II-51 게임 과몰입 수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군	과몰입 가능성군
전체		(327)	95.1	4.9
성별	남자	(217)	94.5	5.5
	여자	(110)	96.4	3.6
연령	19세미만	(209)	95.7	4.3
	19세이상	(116)	94.0	6.0
위기 유형	가출	(177)	94.9	5.1
	비행범죄	(150)	95.3	4.7

## 5) 성 경험

### [주요 결과]

- 지금까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비율은 44.1%였고, 성관계 유경험 위기청소년 중에서 피임을 '항상 또는 대부분' 했다는 응답 비율은 49.6%, '가끔 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0.4%로 나타남.

### (1) 성관계 경험

- 지금까지 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전체 응답자의 44.1%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배경변인별 비교 결과,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43.6%)과 여자청소년(44.7%)의 성관계 경험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19세 미만 위기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율은 37.3%로 나타났다.
  - 위기유형별 비교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율(29.3%)에 비해, 비행·범죄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율(60.4%)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I-52 성관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547)	44.1	55.9
성별	남자	(330)	43.6	56.4
	여자	(217)	44.7	55.3
연령	19세미만	(354)	37.3	62.7
	19세이상	(190)	57.4	42.6
위기 유형	가출	(287)	29.3	70.7
	비행·범죄	(260)	60.4	39.6

- 지금까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시기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67.5%는 중학교 때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 시기라고 답한 비율은 24.2%, 초등학교 졸업 전이라고 답한 비율은 6.3%로 파악되었다.
- 성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전' 성관계를 처음 경험해보았다는 응답 비율이 남자청소년은 4.9%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8.3%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 전체적으로 중학교 졸업 전(초등학교 졸업 전+중학생 시기) 성관계를 처음 경험해보았다는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세 미만 집단에서는 해당 비율이 89.3%(초등 졸업 전 7.6%+중학생 시기 81.7%)로 나타났고, 19세 이상 집단에서는 55.1%(초등 졸업 전 4.6%+중학생 시기 5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관계 경험 시기가 점차 저연령화 되는 양상을 반영한다.

표 II-53 최초 성관계 경험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초등학교 졸업 전	중학생 시기	고등학생 시기	고등학교 졸업 후	
전체	(240)	6.3	67.5	24.2	2.1	
성별	남자	(144)	4.9	67.3	25.8	2.1
	여자	(96)	8.3	67.7	21.9	2.1
연령	19세미만	131	7.6	81.7	10.7	0.0
	19세이상	109	4.6	50.5	40.4	4.6
위기 유형	가출	(84)	9.5	55.9	30.9	3.6
	비행·범죄	(156)	4.5	73.7	20.5	1.3

-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했는지 조사한 결과, '항상 피임을 했다'는 응답 비율은 33.8%

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끔 피임을 했다’(28.3%), ‘대부분 피임을 했다’(15.8%)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도 22.1%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응답 비율(25.7%)이 여자청소년(16.7%)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위기유형별로는 가출청소년의 응답 비율(18.1%)에 비해 비행·범죄청소년의 응답비율(24.2%)이 더 높았다.

표 II-54 성관계 시 피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항상 피임을 했다	대부분 피임을 했다	가끔 피임을 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	
전체	(240)	33.8	15.8	28.3	22.1	
성별	남자	(144)	34.7	12.5	27.1	25.7
	여자	(96)	32.3	20.8	30.2	16.7
연령	19세미만	(131)	34.4	15.3	28.2	22.1
	19세이상	(109)	33.0	16.5	28.4	22.0
위기 유형	가출	(83)	31.3	24.1	26.5	18.1
	비행·범죄	(157)	35.0	11.5	29.3	24.2

## (2) 성교육 경험

○ 최근 1년 동안 성교육(임신, 피임, 출산, 성병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교육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5.0%로 파악되었다.

-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교육경험률(72.8%)보다 여자청소년의 교육경험

률(78.5%)이 다소 높게 파악되었고, 연령별로는 19세미만 청소년의 교육경험률(81.3%)이 19세이상 청소년의 교육경험률(63.9%)보다 높았다. 위기유형별로는 가출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80.8%)이 비행·범죄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68.7%) 보다 높았다.

-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교육효과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4%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도움이 됨 54.5%+매우 도움이 됨 29.9%)을 나타냈다.
-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긍정적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긍정적 응답 비율(86.4%)이 여자청소년의 응답 비율(81.7%)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9세이상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 비율(87.9%)이 19세미만 응답자의 응답 비율(83.2%) 보다 높았다.

표 II-55 성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성교육 경험 여부			성교육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557)	25.0	75.0	(418)	6.5	9.1	54.5	29.9	
성별	남자	(334)	27.2	72.8	(243)	6.2	7.4	53.9	32.5
	여자	(223)	21.5	78.5	(175)	6.9	11.4	55.4	26.3
연령	19세미만	(359)	18.7	81.3	(292)	7.5	9.2	57.9	25.3
	19세이상	(194)	36.1	63.9	(124)	4.0	8.1	46.8	41.1
위기 유형	가출	(292)	19.2	80.8	(236)	8.5	10.6	51.7	29.2
	비행·범죄	(265)	31.3	68.7	(182)	3.8	7.1	58.2	30.8

## 6) 아르바이트 경험

### [주요 결과]

-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30.9%로 나타남.
- 지금까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5.3%였고, 그 이유로는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1) 아르바이트 경험

-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실태와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문항도 조사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0.9%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이 11.1%,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2020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8%로 파악되었다.
- 2020년 아르바이트 경험율을 기준으로 배경변인별 비교 결과,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28.0%)보다 여자청소년의 경험율(35.4%)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 연령의 경우, 19세미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21.6%) 대비 19세이상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48.4%)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위기유형별로는 가출청소년의 경험율(27.5%)보다 비행·범죄청소년의 경험율(34.7%)이 더 높았다.

표 II-56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현재 하고 있다	현재 하지 않지만, 올해(2020년) 한 적이 있다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올해(2020년) 한 적이 없다	
전체	(514)	11.1	19.8	69.1	
성별	남자	(308)	10.1	17.9	72.1
	여자	(206)	12.6	22.8	64.6
연령	19세미만	(329)	5.8	15.8	78.4
	19세이상	(182)	20.9	27.5	51.6
위기 유형	가출	(272)	12.1	15.4	72.4
	비행·범죄	(242)	9.9	24.8	65.3

○ 2020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26.5%), ‘스스로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17.4%),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57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스스로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재미 있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155)	7.1	35.5	26.5	17.4	1.9	4.5	7.1
성별	남자	(83)	8.4	27.7	27.7	19.3	2.4	7.2
	여자	(72)	5.6	44.4	25.0	15.3	1.4	6.9

구분	사례 수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하기 때문에	부모님(또는 보호자)께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재미 있을 것 같아서	기타
연령	19세미만 (71)	2.8	32.4	29.6	19.7	4.2	2.8	8.5
	19세이상 (84)	10.7	38.1	23.8	15.5	0.0	6.0	6.0
위기 유형	가출 (74)	6.8	44.6	18.9	14.9	2.7	2.7	9.5
	비행·범죄 (81)	7.4	27.2	33.3	19.8	1.2	6.2	4.9

- 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업종(여러 업종을 경험한 경우, 가장 길게 일한 업종)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8%로 가장 많았고, ‘배달/운전’ 업종이 13.2%, ‘물류/창고관리/택배상하차’도 5.6%로 뒤를 이었다.
-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자청소년(62.1%)은 남자청소년(32.1%)에 비해 ‘음식점/식당/레스토랑’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자청소년은 ‘배달/운전’ 업종 종사 비율이 24.4%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19세미만 청소년 집단은 절반 이상이 ‘음식점/식당/레스토랑’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58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편의점/소형마트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대형마트/쇼핑몰/아울렛/백화점	기타 매장 관리	음식점/식당/레스토랑	뷔페/웨딩홀/연회장	패스트푸드점
전체	(144)	3.5	1.4	2.8	2.8	45.8	2.8	4.2
성별	남자 (78)	0.0	2.6	3.8	2.6	32.1	0.0	6.4
	여자 (66)	7.6	0.0	1.5	3.0	62.1	6.1	1.5
연령	19세미만 (66)	4.5	1.5	0.0	3.0	53.0	4.5	6.1
	19세이상 (78)	2.6	1.3	5.1	2.6	39.7	1.3	2.6

구분	사례수	카페/베 이커리/ 아이스 크림	전단지 배포 (스티커 붙이기)	배달/ 운전	물류/창고 관리/ 택배 상하차	행사 도우미	주차 안내 및 관리	기타	
전체	(144)	3.5	4.2	13.2	5.6	0.7	0.7	9.0	
성별	남자	(78)	3.8	6.4	24.4	10.3	1.3	0.0	6.4
	여자	(66)	3.0	1.5	0.0	0.0	0.0	1.5	12.1
연령	19세미만	(66)	3.0	7.6	12.1	1.5	0.0	1.5	1.5
	19세이상	(78)	3.8	1.3	14.1	9.0	1.3	0.0	15.4

○ 해당 아르바이트 업종에 종사한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일주일 미만’이라는 응답은 13.4%, ‘1주일 이상~1개월 미만’ 8.3%,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3.1%,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5.3%, ‘6개월 이상~1년 미만’ 16.6%, ‘1년 이상’ 13.4% 등으로 파악되었다.

- 1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응답 비율(15.5%)이 여자청소년(11.0%) 보다 높았다. 1년 이상 장기 근속 비율은 연령별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19세미만 집단의 응답율(5.6%) 보다 19세이상 집단의 응답율(19.8%)이 3.5배 더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59 주된 아르바이트 근속 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1일 이상~ 1주일 미만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	(157)	13.4	8.3	33.1	15.3	16.6	13.4	
성별	남자	(84)	11.9	8.3	31.0	17.9	15.5	15.5
	여자	(73)	15.1	8.2	35.6	12.3	17.8	11.0
연령	19세미만	(71)	18.3	11.3	38.0	9.9	16.9	5.6
	19세이상	(86)	9.3	5.8	29.1	19.8	16.3	19.8

-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고자, 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 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9%로 파악되었고,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일부만 포함되었다’는 비율은 3.2%,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15.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38.5%로 파악되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미작성 비율이 46.5%로 나타나, 19세이상 청소년의 미작성 비율(31.8%) 보다 14.7%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근로권익보호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6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일부만 포함되었다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전체	(156)	38.5	15.4	3.2	42.9	
성별	남자	(84)	39.3	17.9	1.2	41.7
	여자	(72)	37.5	12.5	5.6	44.4
연령	19세미만	(71)	46.5	12.7	4.2	36.6
	19세이상	(85)	31.8	17.6	2.4	48.2

## (2)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유입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위기청소년 집단에서 많이 참여하는 배달 아르바이트에서 플랫폼 노동으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은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근로권익보호에 취약한 우려가 있다. 위기청소년이 처한 근로권익 관련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배달/운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방식과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 먼저, 앞서 조사한 아르바이트 주요 업종에서 ‘배달/운전 아르바이트’에 응답한 청소년(n=17)을 대상으로,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응답 결과, ‘배달대행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했다는 응답이 70.6%로 다수를 차지했고, ‘매장이나 업체에 직접 고용되어서’ 했다는 응답은 41.2%로 그보다 훨씬 적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이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61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방식(중복응답)

(단위: 명, %)

	사례수	배달대행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아서(개인사업자)	매장이나 업체에 직접 고용되어서
전체	(17)	70.6	41.2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작성 여부 조사 결과, ‘배달 업무 및 수수료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 비율은 25.0%로 파악되었고,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응답 비율은 16.7%로 파악되었다.

- 응답 사례수(n=12)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추후 표본규모를 확대한 본 조사 추진 과정에서 위기청소년의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62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배달 업무 및 수수료 관련 계약서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			
		작성했다	작성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사례수	작성했다	작성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	25.0	33.3	41.7	(12)	16.7	41.7	41.7

(3)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 '지금까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해 본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남자청소년(7.2%)이 여자청소년(2.4%)보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령별로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만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4.3%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II-63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해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해본 적 있다	일해본 적 없다	
전체	(513)	5.3	94.7	
성별	남자	(305)	7.2	92.8

구분		사례수	일해본 적 있다	일해본 적 없다
연령	여자	(208)	2.4	97.6
	19세미만	(329)	4.3	95.7
	19세이상	(181)	7.2	92.8
위기 유형	가출	(271)	4.8	95.2
	비행범죄	(242)	5.8	94.2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소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고,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20.8%), ‘그때는 청소년이 일하면 안되는 곳인지 잘 몰라서’(16.7%) 등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해당 문항의 경우 ‘기타’ 응답도 25.0%로 높게 도출되어, 세밀한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남자청소년의 36.8%는 더 많은 금전적 혜택 때문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보고한 반면에 여자청소년의 경우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40%)’와 ‘근무 시간이나 날짜 등 조건이 잘 맞아서(40%)’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64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하게 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때는 청소년이 일하면 안 되는 곳인지 잘 몰라서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근무 시간이나 날짜 등 조건이 잘 맞아서	기타
전체		(24)	16.7	20.8	29.2	8.3	25.0
성별	남자	(19)	21.1	15.8	36.8	0.0	26.3
	여자	(5)	0.0	40.0	0.0	40.0	20.0
연령	19세미만	(13)	23.1	7.7	38.5	7.7	23.1
	19세이상	(11)	9.1	36.4	18.2	9.1	27.3
위기	가출	(11)	18.2	27.3	27.3	18.2	9.1

구분		사례수	그때는 청소년이 일하면 안 되는 곳인지 잘 몰라서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근무 시간이나 날짜 등 조건이 잘 맞아서	기타
유형	비행·범죄	(13)	15.4	15.4	30.8	0.0	38.5

-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존 정책 작동실태를 점검해보고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을 할 때, 나이 확인 절차가 작동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n=25) 가운데 ‘나이 확인 절차가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0%,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6.0%로 파악되었다.
-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만19세 미만 응답자 중에서도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 비율은 53.8%,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46.2%로 나타나, 약 절반 정도가 나이 확인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물론 나이를 확인하고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고용이 된 것도 문제이나, 나이 확인 절차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은 기존 정책 작동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65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할 때 나이확인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이를 확인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전체		(25)	64.0	36.0
성별	남자	(20)	55.0	45.0
	여자	(5)	100.0	0.0
연령	19세미만	(13)	53.8	46.2
	19세이상	(12)	75.0	25.0

(4) 근로권익 관련 경험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한 근로권익 보호 관련 문제들을 점검한 결과가 아래 제시되어 있다. 먼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성년자인데 보호자(부모)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일을 구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3.5%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부당노동행위 경험과 관련해서는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9%,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7.1%로 파악되었다.

표 II-66 근로권익 보호 관련 경험

(단위: 명, %)

항목	사례수	있다	없다
• 미성년자인데 보호자(부모)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일을 구하기 어려웠다	(540)	23.5	76.5
•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538)	3.9	96.1
•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538)	7.1	92.9

-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보호요인 작동의 측면에서, 최근 1년 간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있는지 조사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8.8%였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88.0%는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표 II-67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교육 경험 여부			교육의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551)	51.2	48.8	(267)	3.0	9.0	60.7	27.3	
성별	남자	(331)	56.5	43.5	(143)	3.5	6.3	60.8	29.4
	여자	(220)	43.2	56.8	(124)	2.4	12.1	60.5	25.0
연령	19세미만	(355)	48.7	51.3	(181)	2.8	10.5	63.5	23.2
	19세이상	(193)	55.4	44.6	(85)	3.5	5.9	54.1	36.5
위기 유형	가출	(288)	32.3	67.7	(193)	3.1	9.3	59.6	28.0
	비행·범죄	(263)	71.9	28.1	(74)	2.7	8.1	63.5	25.7

### 3. 폭력·성폭력 피해 경험

#### 1) 폭력 피해 경험

##### [주요 결과]

-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위기청소년 비율은 21.2%로 나타남.
- 폭력 피해 시,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55.0%로 과반을 차지하였음.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로 나타남.

#### (1) 가족 외 타인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친구나 선후배, 아는 사람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1.2%로 파악되었다.
- 성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폭력 피해율(15.9%)보다 여자청소년의 피해경험

율(29.3%)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19세미만 청소년의 피해경험율(24.4%)이 19세이상 청소년의 피해 경험율(15.3%)보다 높았다.

표 II-68 가족 외 타인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체		(565)	78.8	21.2
성별	남자	(340)	84.1	15.9
	여자	(225)	70.7	29.3
연령	19세미만	(365)	75.6	24.4
	19세이상	(196)	84.7	15.3
위기 유형	가출	(294)	73.8	26.2
	비행범죄	(271)	84.1	15.9

○ 가족 외 타인으로부터 당한 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이 18.8%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9.6%),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9.2%),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5.5), ‘왕따(따돌림)을 당함’(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69 가족 외 타인으로부터 당한 폭력 피해 유형

(단위: 명, %)

항목	사례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565)	18.8	81.2
•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565)	9.2	90.8
•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65)	5.5	94.5
•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565)	9.6	90.4
• 왕따(따돌림)를 당함	(565)	5.1	94.9

항목	사례수	경험한 적 있다	경험한 적 없다
• 강제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데이터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함	(565)	2.3	97.7
• 돈을 모아 오라고 강요하거나, 대리입금을 요구받음	(565)	3.0	97.0
• 온라인(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565)	3.7	96.3

## (2) 폭력 피해 대응 방법

- 폭력 피해에 대한 자율적 보호능력 및 보호요인 파악을 위해, 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을 조사해보았다. 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친구나 선후배, 아는 사람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45.0%로 파악되었고,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5.0%로 더 높게 파악되었다.
-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는 연령별로 피해 사실을 알린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린 비율이 48.1%로 나타난 반면, 19세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34.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70 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알린 적이 있다	알린 적이 없다
전체		(111)	45.0	55.0
성별	남자	(47)	46.8	53.2
	여자	(64)	43.8	56.3
연령	19세미만	(81)	48.1	51.9
	19세이상	(29)	34.5	65.5
위기유형	가출	(75)	48.0	52.0
	비행·범죄	(36)	38.9	61.1

- 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는지를 알아보았다. 응답 결과, 선생님(49%), 친구나 선후배(49%), 가족(29.4%), 지원기관(23.5%), 경찰(21.6%) 순으로 파악되었다.
- 배경변인별로 특징적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응답 비율이 남자청소년(39.1%)보다 여자청소년(57.1%)에게서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71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가족	선생님	친구나 선후배	지원기관	경찰(112)	
전체	(51)	29.4	49.0	49.0	23.5	21.6	
성별	남자	(23)	34.8	52.2	39.1	21.7	21.7
	여자	(28)	25.0	46.4	57.1	25.0	21.4
연령	19세미만	(40)	32.5	47.5	50.0	17.5	17.5
	19세이상	(10)	20.0	60.0	50.0	50.0	30.0
위기 유형	가출	(36)	25.0	52.8	50.0	30.6	22.2
	비행·범죄	(15)	40.0	40.0	46.7	6.7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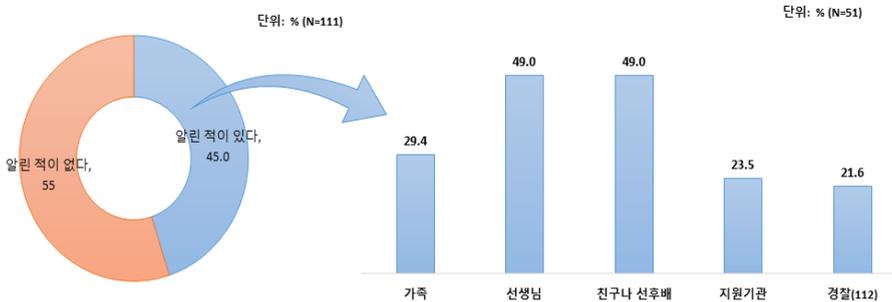


그림 II-7 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의 여부 및 알린 대상

- 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보았다. 분석 결과,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2.4%),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13.8%)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다.
- 배경변인별로 눈에 띄는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남자청소년(21.7%)이 여자청소년(8.6%)보다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은 여자청소년(11.4%)에게서 높게 파악되었다.
- 연령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 비율이 19세이상 집단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19세미만 집단에서는 10.0%로 도출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 중에는 대처방법을 알지 못해서 폭력 피해에 대해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임을 방증한다.

표 II-72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린 후 에 보복 당할 것 이 두려 워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서	내가 혼 자 스스 로 해결 하고 싶 어서	알려 지는 게 창피해서	별로 심 각한 일 이 아니 라고 생 각해서	기타	
전체	(58)	41.4	6.9	6.9	13.8	1.7	22.4	6.9	
성별	남자	(23)	39.1	4.3	0.0	21.7	4.3	17.4	13.0
	여자	(35)	42.9	8.6	11.4	8.6	0.0	25.7	2.9
연령	19세미만	(40)	37.5	5.0	10.0	12.5	2.5	25.0	7.5
	19세이상	(18)	50.0	11.1	0.0	16.7	0.0	16.7	5.6
위기 유형	가출	(37)	48.6	5.4	2.7	10.8	0.0	27.0	5.4
	비행·범죄	(21)	28.6	9.5	14.3	19.0	4.8	14.3	9.5

-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3%에 불과하였고, ‘도움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66.7%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배경변인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28.8%) 보다 여자청소년(36.9%)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눈에 띄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위기유형별로는 가출청소년의 응답 비율(39.0%)이 비행·범죄청소년의 비율(22.5%) 보다 높았다.

**표 II-73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받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없다
전체		(117)	33.3	66.7
성별	남자	(52)	28.8	71.2
	여자	(65)	36.9	63.1
연령	19세미만	(87)	33.3	66.7
	19세이상	(29)	31.0	69.0
위기유형	가출	(77)	39.0	61.0
	비행·범죄	(40)	22.5	77.5

- 폭력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전문상담기관’(38.5%), ‘청소년시설’(35.9%),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20.5%), 학교폭력신고센터(117)(7.7%) 등으로 파악되었다.
- 배경변인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전문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 연령의 경우, 19세미만 청소년은 ‘학교’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비해, 19세이상 청소년은 ‘청소년시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표 II-74 폭력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곳(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학교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전문상담 기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청소년시설	기타	
전체	(39)	53.8	20.5	38.5	7.7	35.9	2.6	
성별	남자	(15)	33.3	13.3	46.7	6.7	33.3	0.0
	여자	(24)	66.7	25.0	33.3	8.3	37.5	4.2
연령	19세미만	(29)	58.6	20.7	34.5	3.4	31.0	0.0
	19세이상	(9)	44.4	22.2	44.4	22.2	55.6	11.1
위기 유형	가출	(30)	56.7	16.7	43.3	6.7	43.3	3.3
	비행범죄	(9)	44.4	33.3	22.2	11.1	11.1	0.0

### (3)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 등 자율적 대응능력 및 보호요인 강화의 관점에서, 최근 1년 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4.2%로 파악되었다.
- 해당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교육효과를 점검해보았다. 그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79.2%(도움이 됨 56.0%+매우 도움이 됨 25.6%)로 나타났다.

표 II-75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여부			학교폭력예방교육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558)	25.8	74.2	(414)	7.7	13.0	53.6	25.6	
성별	남자	(335)	26.0	74.0	(248)	6.9	8.9	56.0	28.2
	여자	(223)	25.6	74.4	(166)	9.0	19.3	50.0	21.7
연령	19세미만	(360)	16.7	83.3	(300)	9.0	12.3	55.7	23.0
	19세이상	(194)	42.8	57.2	(111)	4.5	13.5	48.6	33.3
위기 유형	가출	(292)	18.5	81.5	(238)	9.7	14.3	49.6	26.5
	비행범죄	(266)	33.8	66.2	(176)	5.1	11.4	59.1	24.4

## 2) 성폭력 피해 경험

### [주요 결과]

- 최근 1년 사이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 비율은 5.5%였고,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은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3.2%)로 나타남.
-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주변에 알렸다는 응답 비율은 50.0%로 나타남.

### (1) 성폭력 피해 경험

-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의 5.5%가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함'(2.0%),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2.0%),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1.4%) 등으로 파악되었다.

- 성폭력 피해 경험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제시한 4개 유형의 성폭력 피해를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피해 경험율은 2.4%에 그친 반면, 여자청소년의 피해경험율은 10.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청소년 중 여자청소년은 10명 중 1명 비율로 최근 1년 사이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 세부 문항 가운데 특히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피해율은 0.3%인 데 비해 여자청소년의 피해율은 4.5%로 훨씬 더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76 성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

항목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전체	(565)	5.5	94.5	
	성별	남자	(338)	2.4	97.6
		여자	(224)	10.3	89.7
	연령	19세미만	(364)	6.3	93.7
		19세이상	(194)	4.1	95.9
•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함	전체	(562)	2.0	98.0	
	성별	남자	(338)	0.6	99.4
		여자	(224)	4.0	96.0
	연령	19세미만	(364)	2.2	97.8
		19세이상	(194)	1.5	98.5
•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	전체	(562)	3.2	96.8	
	성별	남자	(338)	1.5	98.5
		여자	(224)	5.8	94.2
	연령	19세미만	(364)	3.3	96.7

항목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19세이상	(194)	3.1	96.9	
	전체	(561)	1.4	98.6	
	성별	남자	(337)	1.2	98.8
		여자	(224)	1.8	98.2
	연령	19세미만	(364)	1.4	98.6
		19세이상	(193)	1.6	98.4
•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	전체	(560)	2.0	98.0	
	성별	남자	(337)	0.3	99.7
		여자	(223)	4.5	95.5
	연령	19세미만	(364)	2.5	97.5
		19세이상	(192)	1.0	99.0



그림 II-8 성폭력 피해 경험

○ 최근 1년 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피해를 준 대상이 누구였는지 가해자의 유형을 파악해보았다. 조사 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29.0%), ‘잘 모르는 사람’(19.4%),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12.9%), ‘같은 시설(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9.7%) 순으로 파악되었다.

- 여자청소년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26.1%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비교 결과,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19세 미만 집단(21.7%)에서 19세 이상 집단(12.5%) 보다 더 높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불특정 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II-77 성폭력의 주된 가해자(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같은 시설 (청소년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기타	
전체	(31)	38.7	29.0	9.7	12.9	19.4	16.1	
성별	남자	(8)	37.5	25.0	25.0	12.5	0.0	0.0
	여자	(23)	39.1	30.4	4.3	13.0	26.1	21.7
연령	19세미만	(23)	39.1	30.4	13.0	13.0	21.7	17.4
	19세이상	(8)	37.5	25.0	0.0	12.5	12.5	12.5
위기 유형	가출	(24)	41.7	20.8	12.5	8.3	20.8	16.7
	비행·범죄	(7)	28.6	57.1	0.0	28.6	14.3	14.3

## (2)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 최근 1년 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는 응답은 50.0%로 나타나, 피해자 가운데 절반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응답 비율이 남자청소년

년(57.1%)이 여자청소년(47.8%) 보다 높게 파악되었다.

- 연령별로는 19세이상 집단에서는 62.5%가 알렸다고 답한 반면, 19세미만 집단에서는 45.5%가 알렸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문항의 경우, 응답자 사례 수가 과소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조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유의해야 한다.

표 II-78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린 적이 있다	알린 적이 없다
전체		(30)	50.0	50.0
성별	남자	(7)	57.1	42.9
	여자	(23)	47.8	52.2
연령	19세미만	(22)	45.5	54.5
	19세이상	(8)	62.5	37.5
위기 유형	가출	(23)	47.8	52.2
	비행·범죄	(7)	57.1	42.9

-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어디에 알렸는지 그 대상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과 '선생님'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경찰(112)'(33.3%), '친구나 선후배'(26.7%), '지원기관'(26.7%) 등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 문항의 경우, 전체 응답자 사례수(n=15)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유의해야 한다.

표 II-79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가족	선생님	친구나 선후배	지원기관	경찰(112)
전체	(15)	46.7	46.7	26.7	26.7	33.3

구분		사례수 (명)	가족	선생님	친구나 선후배	지원기관	경찰(112)
성별	남자	(4)	0.0	75.0	50.0	0.0	25.0
	여자	(11)	63.6	36.4	18.2	36.4	36.4
연령	19세미만	(10)	60.0	40.0	20.0	20.0	50.0
	19세이상	(5)	20.0	60.0	40.0	40.0	0.0
위기 유형	가출	(11)	36.4	45.5	18.2	18.2	18.2
	비행·범죄	(4)	75.0	50.0	50.0	50.0	75.0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고,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가 23.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15.4%로 파악되었다.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라는 응답은 7.7%를 차지했다.

표 II-80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알린 후 에 보복 당할 것 이 두려 워서	내가 혼 자 스스 로 해결 하고 싶 어서	알려지는 게 창피 해서	별로 심각한 일 이 아니라 고 생각해 서	기타
전체		(13)	15.4	15.4	23.1	7.7	30.8	7.7
성별	남자	(2)	0.0	0.0	50.0	0.0	50.0	0.0
	여자	(11)	18.2	18.2	18.2	9.1	27.3	9.1
연령	19세미만	(11)	18.2	9.1	18.2	9.1	36.4	9.1
	19세이상	(2)	0.0	50.0	50.0	0.0	0.0	0.0
위기유형	가출	(10)	20.0	20.0	30.0	0.0	20.0	10.0
	비행·범죄	(3)	0.0	0.0	0.0	33.3	66.7	0.0

-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38.7%, 도움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61.3%로 파악되었다.
-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도움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남자청소년은 25.0%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43.5%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이 지원기관(학교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81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받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없다
전체		(31)	38.7	61.3
성별	남자	(8)	25.0	75.0
	여자	(23)	43.5	56.5
연령	19세미만	(23)	39.1	60.9
	19세이상	(8)	37.5	62.5
위기 유형	가출	(24)	37.5	62.5
	비행범죄	(7)	42.9	57.1

-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 ‘전문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66.7%로 가장 많았고,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33.3%), ‘학교폭력신고센터(117)’(25.0%), ‘청소년시설’(16.7%)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II-82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곳(중복응답)

(단위: 명, %)

		사례수	학교 (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전문 상담기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청소년 시설
전체		(12)	66.7	33.3	66.7	25.0	16.7
성별	남자	(2)	100.0	0.0	0.0	0.0	0.0
	여자	(10)	60.0	40.0	80.0	30.0	20.0
연령	19세미만	(9)	77.8	33.3	66.7	22.2	0.0
	19세이상	(3)	33.3	33.3	66.7	33.3	66.7
위기 유형	가출	(9)	66.7	33.3	55.6	11.1	22.2
	비행·범죄	(3)	66.7	33.3	100.0	66.7	0.0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여부 및 도움 정도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자율적 보호능력 강화 및 보호요인 증대의 관점에서, 관련 예방교육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최근 1년 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육 경험 여부 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76.5%로 파악되었다. 연령별로는 19세미만 집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율(82.5%)이 19세이상 집단의 교육 경험율(6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82.1%로 파악되었다.

표 II-8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교육 경험 여부			교육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안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전체		(557)	23.5	76.5	(426)	6.3	11.5	54.2	27.9
성별	남자	(334)	25.7	74.3	(248)	6.5	9.3	53.6	30.6

구분		교육 경험 여부			교육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안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여자	(223)	20.2	79.8	(178)	6.2	14.6	55.1	24.2
연령	19세미만	(359)	17.5	82.5	(296)	7.4	11.5	57.8	23.3
	19세이상	(124)	34.5	65.5	(127)	3.9	10.2	46.5	39.4
위기유형	가출	(292)	16.1	83.9	(245)	7.8	12.2	52.2	27.8
	비행범죄	(265)	31.7	68.3	(181)	4.4	10.5	56.9	28.2

### 3) 조건만남 피해 경험

#### [주요 결과]

- 위기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조건만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위기청소년의 9.8%가 조건만남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실제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6.0%로 나타남.
-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로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1) 조건만남 경험

-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조건만남’ 관련 경험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위기청소년 주변의 환경이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에 얼마나 취약한지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거나 제안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6.0%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여자청소년이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이나 제안을 받은 경험이 21.5%로 남자청소년(2.1%)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
  - 연령별로는 조건만남 유인이나 제안을 받은 경험 비율이 19세미만 청소년 (10.5%)이 19세이상 청소년(8.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다음으로, 실제로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는 19세 이상 후기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 바, 연령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연령범위를 19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12.28.인출). 이러한 법적 체계를 고려하여, 19세미만을 별도 분리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세미만 청소년 가운데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6.5%로 나타나, 19세이상 집단의 경험율(5.3%)보다 1.2%p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보호가 취약한 현실을 방증한다.

표 II-84 조건만남 노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이나 제안을 받은 경험		사례수	조건만남을 해본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562)	9.8	90.2	(530)	6.0	94.0
성별	남자 (339)	2.1	97.9	(323)	2.5	97.5
	여자 (223)	21.5	78.5	(207)	11.6	88.4
연령	19세미만 (363)	10.5	89.5	(338)	6.5	93.5
	19세이상 (195)	8.7	91.3	(189)	5.3	94.7
위기유형	가출 (293)	9.6	90.4	(279)	5.4	94.6
	비행·범죄 (269)	10.0	90.0	(251)	6.8	93.2

-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갈 곳(잘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서’(36.7%), ‘노는 데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및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가 각각 33.3%,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30.0%) 등으로 파악되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직접적 적용 대상인 만19세미만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갈 곳(잘 곳)이 없어서’(42.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38.1%),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각각 33.3%)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85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노는 데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갈 곳(잘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호기심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30)	30.0	33.3	43.3	10.0	33.3	16.7	13.3	36.7	3.3
성별	남자 (7)	42.9	28.6	14.3	0.0	14.3	28.6	14.3	28.6	14.3
	여자 (23)	26.1	34.8	52.2	13.0	39.1	13.0	13.0	39.1	0.0
연령	19세 미만 (21)	38.1	28.6	42.9	9.5	33.3	14.3	9.5	33.3	0.0
	19세 이상 (9)	11.1	44.4	44.4	11.1	33.3	22.2	22.2	44.4	11.1
위기 유형	가출 (14)	14.3	28.6	35.7	14.3	35.7	7.1	14.3	28.6	0.0
	비행·범죄 (16)	43.8	37.5	50.0	6.3	31.3	25.0	12.5	43.8	6.3

- 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건만남에 대한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조건만남을 하는 경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랜덤채팅앱(모르는 사람과 채팅, 쪽지)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채팅 사이트 또는 채팅앱’(45.2%), ‘SNS 또는 메신저’(22.6%), ‘아는 사람의 소개’(12.9%), ‘술집, 거리 등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제안으로’(3.2%) 등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랜덤채팅앱’을 통해서 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표 II-86 조건만남을 하는 주된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채팅 사이트 또는 채팅앱	랜덤 채팅앱	SNS 또는 메신저	아는 사람의 소개	술집, 거리 등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제안으로	
전체	(31)	45.2	48.4	22.6	12.9	3.2	
성별	남자	(8)	50.0	50.0	25.0	12.5	12.5
	여자	(23)	43.5	47.8	21.7	13.0	0.0
연령	19세미만	(22)	36.4	50.0	22.7	9.1	4.5
	19세이상	(9)	66.7	44.4	22.2	22.2	0.0
위기 유형	가출	(15)	40.0	60.0	33.3	13.3	0.0
	비행·범죄	(16)	50.0	37.5	12.5	12.5	6.3

- 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존 정책 작동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채팅 사이트나 채팅앱/랜덤채팅앱을 이용할 때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확인 절차가 작동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6.2%로 2배 더 높게 나타났다.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는 응답은 30.8%로 나타났다.
- 19세미만 청소년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확인했다’는 응답은 23.5%, ‘확인하지 않았다’ 41.2%,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35.3%로 파악되었다.

표 II-87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전체	(26)	23.1	46.2	30.8	
성별	남자	(6)	33.3	66.7	0.0

구분		사례수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연령	여자	(20)	20.0	40.0	40.0
	19세미만	(17)	23.5	41.2	35.3
	19세이상	(9)	22.2	55.6	22.2
위기 유형	가출	(13)	30.8	30.8	38.5
	비행범죄	(13)	15.4	61.5	23.1

## (2) 조건만남으로 인한 피해

- 조건만남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19세이상 성인에 비해 19세미만 청소년이 조건만남으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를 입은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이 남자청소년은 100.0%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47.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피해를 입은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이 19세미만은 52.4%, 19세이상은 75.0%로 파악되었다.
- 19세미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조건만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원치 않는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23.8%로 가장 많았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었다’는 응답이 19.0%, ‘임신/성병’이 14.3%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II-88 조건만남을 하면서 주로 경험한 피해(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피해를 입은 적 없다	욕설/위협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함	콘돔 사용 거부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줌	내 돈을 빼앗김	임신/성병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서 협박함
전체	(29)	58.6	3.4	13.8	13.8	17.2	10.3	13.8	20.7	3.4
성별	남자	(6)	100.0	0.0	0.0	0.0	0.0	0.0	0.0	0.0

구분	사례수	피해를 입은 적 없다	욕설/ 위협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함	콘돔 사용 거부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줌	내 돈을 빼앗김	임신/ 성병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서 협박함
연령	여자 (23)	47.8	4.3	17.4	17.4	21.7	13.0	17.4	26.1	4.3
	19세미만 (21)	52.4	0.0	9.5	9.5	19.0	9.5	14.3	23.8	4.8
	19세이상 (8)	75.0	12.5	25.0	25.0	12.5	12.5	12.5	12.5	0.0
위기 유형	가출 (13)	53.8	7.7	23.1	15.4	23.1	7.7	15.4	30.8	0.0
	비행·범죄 (16)	62.5	0.0	6.3	12.5	12.5	12.5	12.5	12.5	6.3

○ 조건만남을 하면서 경험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지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다. 특히 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60.0%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표 II-89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상담기관 / 쉼터 선생님	학교 선생님
전체	(12)	58.3	16.7	16.7	16.7	8.3
성별	남자 (0)	-	-	-	-	-
	여자 (12)	58.3	16.7	16.7	16.7	8.3
연령	19세미만 (10)	60.0	20.0	10.0	20.0	10.0
	19세이상 (2)	50.0	0.0	50.0	0.0	0.0
위기 유형	가출 (6)	50.0	33.3	33.3	0.0	0.0
	비행·범죄 (6)	66.7	0.0	0.0	33.3	16.7

○ 조건만남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싫어서' 등이 주된 사유로 거론되었다.

- 특히 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싫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건만남의 특성 상, 청소년이 피해를 당해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을 방증한다.

표 II-90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싫어서	
전체	(7)	42.9	14.3	42.9	
성별	남자	(0)	-	-	
	여자	(7)	42.9	14.3	42.9
연령	19세미만	(6)	33.3	16.7	50.0
	19세이상	(1)	100.0	0.0	0.0
위기 유형	가출	(3)	66.7	33.3	0.0
	비행범죄	(4)	25.0	0.0	75.0

### (3) 조건만남에 대한 자율적 보호

- 조건만남과 관련한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능력 및 보호요인 확인을 위해, ‘조건만남을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경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먼저 ‘조건만남을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88.5%로 가장 많았고,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7.7%,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3.8%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91 조건만남을 그만 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전체		(26)	88.5	3.8	7.7
성별	남자	(5)	80.0	0.0	20.0
	여자	(21)	90.5	4.8	4.8
연령	19세미만	(19)	89.5	5.3	5.3
	19세이상	(7)	85.7	0.0	14.3
위기 유형	가출	(11)	90.9	0.0	9.1
	비행·범죄	(15)	86.7	6.7	6.7

○ 조건만남을 그만 둔 주된 계기로는 ‘나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가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기주체성은 집단 특성을 막론하고 조건만남을 그만 둔 가장 큰 계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는 ‘상담기관/쉼터선생님의 도움으로’라는 응답이 40.9%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92 조건만남을 그만 둔 계기(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나 혼자의 의지와 노력 으로	가족/친 척의 도 움으로	상담기관 /쉼터선 생님의 도움으로	친구 /선후배 의 도움 으로	애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잡혀가서 /처벌을 받아서	일자리를 구해서
전체		(22)	68.2	18.2	40.9	22.7	4.5	27.3	4.5
성별	남자	(3)	66.7	0.0	0.0	33.3	33.3	33.3	0.0
	여자	(19)	68.4	21.1	47.4	21.1	0.0	26.3	5.3
연령	19세미만	(16)	68.8	25.0	43.8	25.0	0.0	31.3	0.0
	19세이상	(6)	66.7	0.0	33.3	16.7	16.7	16.7	16.7
위기 유형	가출	(11)	63.6	9.1	27.3	27.3	0.0	0.0	9.1
	비행·범죄	(11)	72.7	27.3	54.5	18.2	9.1	54.5	0.0

(4)성매매 예방교육

- 최근 1년 동안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9%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2.8%는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의 응답률은 여자청소년(72.6%)이 남자청소년(61.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여자청소년(77.2%)이 남자청소년(87.3%)보다 더 낮게 파악되었다.

표 II-93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성매매 예방교육 경험 여부			성매매 예방교육 도움 정도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557)	34.1	65.9	(367)	5.7	11.4	52.9	30.0
성별	남자	(334)	38.6	61.4	(205)	5.9	6.8	53.2	34.1
	여자	(223)	27.4	72.6	(162)	5.6	17.3	52.5	24.7
연령	19세미만	(359)	29.2	70.8	(254)	6.7	11.8	55.9	25.6
	19세이상	(194)	42.8	57.2	(111)	3.6	9.9	45.9	40.5
위기 유형	가출	(292)	30.5	69.5	(203)	7.4	12.8	49.8	30.0
	비행·범죄	(265)	38.1	61.9	(164)	3.7	9.8	56.7	29.9

#### 4)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 [주요 결과]

-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중에서 제시한 10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21.7%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36.6%)의 경험율이 남자청소년(11.8%)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은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경험’으로 나타남.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 최근 성범죄의 경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온라인 성범죄 피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기청소년의 온라인 성범죄 노출 환경을 진단해보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를 위해 10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래에는 이를 종합하여, 제시된 10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응답자 가운데 21.7%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여자청소년의 피해율(36.6%)이 남자청소년(11.8%)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19세미만 청소년의 피해율(22.7%)이 19세이상 청소년의 피해율(20.4%) 보다 더 높게 파악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나이 어린 여성청소년들이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주로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94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체		(562)	78.3	21.7
성별	남자	(338)	88.2	11.8
	여자	(224)	63.4	36.6
연령	19세미만	(362)	77.3	22.7
	19세이상	(196)	79.6	20.4
위기유형	가출	(291)	75.3	24.7
	비행범죄	(271)	81.5	18.5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2.8%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9.6%)’의 피해가 높게 보고되었다.

-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대부분이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서 여자청소년의 피해경험율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았다. 예컨대,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피해경험율(6.8%)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경험율(21.9%)이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95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경험

(단위: 명, %)

항목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전체	(562)	12.8	87.2	
	성별	남자	(338)	6.8	93.2
		여자	(224)	21.9	78.1
	연령	19세미만	(362)	12.7	87.3
		19세이상	(196)	13.3	86.7

항목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 내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	전체	(562)	6.9	93.1	
	성별	남자	(338)	2.7	97.3
		여자	(224)	13.4	86.6
	연령	19세미만	(362)	8.0	92.0
		19세이상	(196)	5.1	94.9
•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내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	전체	(562)	3.6	96.4	
	성별	남자	(338)	2.7	97.3
		여자	(224)	4.9	95.1
	연령	19세미만	(362)	3.3	96.7
		19세이상	(196)	4.1	95.9
• 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이 있다	전체	(562)	3.0	97.0	
	성별	남자	(338)	1.5	98.5
		여자	(224)	5.4	94.6
	연령	19세미만	(362)	2.8	97.2
		19세이상	(196)	3.6	96.4
•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전체	(562)	9.6	90.4	
	성별	남자	(338)	2.1	97.9
		여자	(224)	21.0	79.0
	연령	19세미만	(362)	11.6	88.4
		19세이상	(196)	6.1	93.9
•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아본 적이 있다	전체	(562)	4.1	95.9	
	성별	남자	(338)	2.1	97.9
		여자	(224)	7.1	92.9
	연령	19세미만	(362)	4.4	95.6
		19세이상	(196)	3.6	96.4
• 불법촬영 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단톡방 포함)에서 유포된 적이 있다	전체	(562)	1.8	98.2	
	성별	남자	(338)	1.2	98.8
		여자	(224)	2.7	97.3
	연령	19세미만	(362)	2.2	97.8
		19세이상	(196)	1.0	99.0

항목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 돈이나 금품 등 대가를 미끼로 내 사진이나 영상물,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전체	(562)	3.6	96.4	
	성별	남자	(338)	0.9	99.1
		여자	(224)	7.6	92.4
	연령	19세미만	(362)	4.7	95.3
		19세이상	(196)	1.5	98.5
•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적이 있다(스팸 제외)	전체	(562)	8.2	91.8	
	성별	남자	(338)	3.0	97.0
		여자	(224)	16.1	83.9
	연령	19세미만	(362)	9.7	90.3
		19세이상	(196)	5.6	94.4
• 온라인에서 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전체	(562)	5.3	94.7	
	성별	남자	(338)	2.1	97.9
		여자	(224)	10.3	89.7
	연령	19세미만	(362)	5.0	95.0
		19세이상	(196)	6.1	93.9

○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한 주된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 등)’라는 응답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모바일 메신저’(55.3%), ‘랜덤채팅앱’(11.4%) 등이 주된 피해 경로로 파악되었다.

표 II-96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한 주된 경로(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개인 방송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랜덤 채팅앱	온라인 게임	기타
전체	(114)	55.3	68.4	6.1	0.9	11.4	7.0	2.6
성별	남자	(36)	50.0	58.3	5.6	0.0	2.8	5.6
	여자	(78)	57.7	73.1	6.4	1.3	15.4	7.7
연령	19세미만	(79)	31.6	54.4	1.3	30.4	8.9	1.3
							2.5	

구분		사례수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개인 방송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랜덤 채팅앱	온라인 게임	기타
위기 유형	19세이상	(35)	28.6	34.3	2.9	31.4	17.1	0.0	11.4
	가출	(67)	52.2	62.7	9.0	1.5	14.9	9.0	3.0
	비행·범죄	(47)	59.6	76.6	2.1	0.0	6.4	4.3	2.1

단위: %(N=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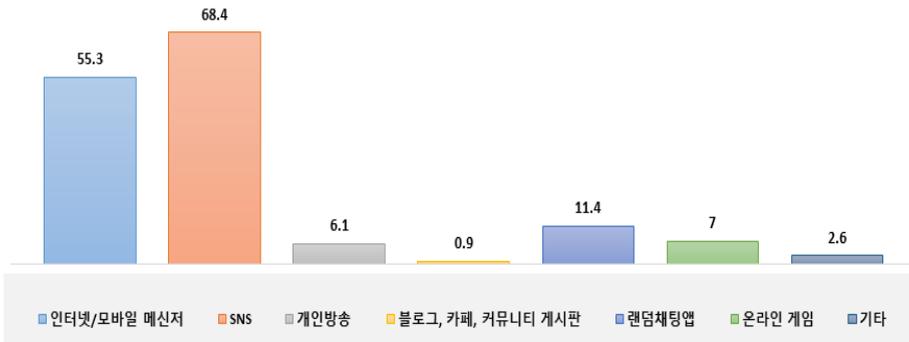


그림 II-9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한 주된 경로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30.7%), ‘친구, 지인, 선후배’(30.7%), ‘현재 또는 과거의 애인’(11.4%) 등의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다.
- 배경변인별 비교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관련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5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불특정타인으로부터 성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을 방증한다.

표 II-97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가해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	유튜버, BJ 등 인터넷방송 진행자	친구, 지인/선후배	현재 또는 과거의 애인	가족/친척	기타	
전체	(114)	30.7	48.2	1.8	30.7	11.4	0.9	5.3	
성별	남자	(35)	17.1	37.1	2.9	37.1	8.6	0.0	11.4
	여자	(79)	36.7	53.2	1.3	27.8	12.7	1.3	2.5
연령	19세미만	(79)	31.6	54.4	1.3	30.4	8.9	1.3	2.5
	19세이상	(35)	28.6	34.3	2.9	31.4	17.1	0.0	11.4
위기 유형	가출	(67)	29.9	47.8	3.0	29.9	13.4	1.5	6.0
	비행범죄	(47)	31.9	48.9	0.0	31.9	8.5	0.0	4.3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피해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대응 방법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고,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19.1%로 그 뒤를 이었다.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17.3%, ‘해당 온라인매체를 탈퇴하거나 새로운 아이디로 다시 가입했다’는 응답이 14.5%로 파악되었다.

표 II-98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그냥 참고 넘어감	탈퇴, 또는 신규 아이디로 재가입	관리자 및 신고 센터에 신고	상대방에게 항의 및 사과/정정 요구	경찰에 신고	부모님 / 선생님에게 알림	친구/지인/선후배에게 알림	지원 기관에 알림	기타
전체	(110)	52.7	14.5	10.9	19.1	6.4	4.5	17.3	5.5	8.2

구분		사례수 (명)	그냥 참고 넘어 감	탈퇴, 또는 신규 아이디로 재가입	관리자 및 신고 센터에 신고	상대방에게 항의 및 사과/정정 요구	경찰 에 신고	부모님 / 선생님 에게 알림	친구/ 지인/ 선후배 에게 알림	지원 기관 에 알림	기타
성별	남자	(33)	54.5	6.1	0.0	15.2	3.0	3.0	18.2	6.1	9.1
	여자	(77)	51.9	18.2	15.6	20.8	7.8	5.2	16.9	5.2	7.8
연령	19세 미만	(74)	48.6	18.9	14.9	20.3	4.1	6.8	17.6	2.7	6.8
	19세 이상	(36)	61.1	5.6	2.8	16.7	11.1	0.0	16.7	11.1	11.1
위기 유형	가출	(64)	46.9	14.1	12.5	23.4	7.8	6.3	17.2	7.8	12.5
	비행· 범죄	(46)	60.9	15.2	8.7	13.0	4.3	2.2	17.4	2.2	2.2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그냥 참고 넘어갔다(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라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 ‘대응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대처방법을 몰라서’, ‘대응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등이 각각 11.3%의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 특히 ‘대응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선택지에 대해 남자청소년은 응답 비율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여자청소년의 응답 비율은 16.2%로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연령별로도 19세미만 집단에서 이러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피해 대상인 19세 미만, 여자청소년들이 적극적 대응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99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대처방법을 몰라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	신고나 처벌 절차 복잡	대응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라서	보복이 두려워서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기타	
전체	(53)	11.3	41.5	3.8	11.3	3.8	5.7	5.7	5.7	11.3	
성별	남자	(16)	18.8	43.8	6.3	0.0	0.0	12.5	0.0	6.3	12.5
	여자	(37)	8.1	40.5	2.7	16.2	5.4	2.7	8.1	5.4	10.8
연령	19세미만	(32)	3.1	40.6	3.1	18.8	6.3	6.3	0.0	9.4	12.5
	19세이상	(21)	23.8	42.9	4.8	0.0	0.0	4.8	14.3	0.0	9.5
위기 유형	가출	(27)	11.1	40.7	0.0	14.8	0.0	3.7	11.1	11.1	7.4
	비행범죄	(26)	11.5	42.3	7.7	7.7	7.7	7.7	0.0	0.0	15.4

#### 4. 심리·사회적 특성 및 표출 행동

##### 1) 우울

###### [주요 결과]

- 최근 1년 사이에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희망이 없다는 기분을 2주 내내 느낀 우울감을 경험한 위기청소년 비율은 24.3%로 나타남.

- 여기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그와 관련한 표출 행동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최근 1년 동안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희망이 없다는 기분을 2주 내내 느낀 적’이 있었는지 ‘우울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3%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구체적으로 집단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여자청소년(38.7%), 19세

미만 청소년(26.3%), 가출 청소년(32.2%)의 응답 비율이 각각 남자청소년(14.8%), 19세이상 청소년(20.6%), 비행·범죄청소년(15.9%)의 우울감 경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100 우울감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559)	24.3	75.7
성별	남자	(337)	14.8	85.2
	여자	(222)	38.7	61.3
연령	19세미만	(361)	26.3	73.7
	19세이상	(194)	20.6	79.4
위기유형	가출	(289)	32.2	67.8
	비행·범죄	(270)	15.9	84.1

## 2) 자해 관련 경험

### [주요 결과]

- 조사 대상 위기청소년 중에서 지금까지 자해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37.5%, 실제로 자해를 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30.5%로 나타남.

#### (1) 자해 생각 및 시도 경험

- 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로 ‘자해의 광범한 확산’을 들 수 있다. 이에 자해 관련 실태를 진단해보았다. 먼저 ‘자해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37.5%는 ‘생각해 본 경험이 있거나,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여자청소년의 64.0%는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며 24.0%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자해를 생각해봤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남자청소년은 ‘평생 경험한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이 80.1%로 파악되었다.

- 연령별로는 19세미만 청소년 중 지금까지 자해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42.6%로 나타나, 19세이상 청소년의 비율(28.9%) 보다 높았다. 특히 19세미만 위기청소년 중 15.1%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자해를 생각한다고 답해, 연령이 어릴수록 자해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II-101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 여부 및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 년에 한두 번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562)	11.6	5.5	6.8	13.7	62.5
성별	남자	(337)	3.3	1.8	3.9	11.0	80.1
	여자	(225)	24.0	11.1	11.1	17.8	36.0
연령	19세미만	(364)	15.1	5.5	7.7	14.3	57.4
	19세이상	(194)	5.2	5.7	5.2	12.9	71.1
위기 유형	가출	(293)	17.4	7.2	8.2	15.7	51.5
	비행·범죄	(269)	5.2	3.7	5.2	11.5	74.3

○ 자해 시도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0.5%는 ‘자해를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자해를 시도한다’는 응답이 7.0%, ‘한 달에 한두 번 시도한다’는 응답이 4.8%, ‘일 년에 한두 번 시도한다’는 응답이 5.2%로 파악되었고, ‘최근 1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다’는 응답이 13.6%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남자청소년 중에서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15.2%인 데 비해,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53.3%로 3.5배 높게 파악되었다.

- 연령별로는 19세미만 청소년의 자해 시도 경험율(35.1%)이 19세이상 청소년의 경험율(22.7%) 보다 더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102 자해 시도 경험 여부 및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 에 한두 번	한 달 에 한두 번	일 년 에 한두 번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560)	7.0	4.8	5.2	13.6	69.5	
성별	남자	(335)	1.8	0.6	3.3	9.6	84.8
	여자	(225)	14.7	11.1	8.0	19.6	46.7
연령	19세미만	(362)	8.8	6.6	6.4	13.3	64.9
	19세이상	(194)	3.6	1.5	3.1	14.4	77.3
위기 유형	가출	(292)	8.9	6.8	6.2	14.4	63.7
	비행·범죄	(268)	4.9	2.6	4.1	12.7	75.7

- 자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44.4%),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32.1%),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24.0%) 등이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기타 응답 비율(28.1%)도 높게 나타나, 자해의 다양한 원인을 밀착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103 자해를 하게 된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196)	18.9	44.4	32.1	24.0	10.2	8.7	8.7	28.1	
성별	남자	(63)	19.0	33.3	20.6	20.6	9.5	7.9	6.3	27.0
	여자	(133)	18.8	49.6	37.6	25.6	10.5	9.0	9.8	28.6
연령	19세미만	(145)	19.3	45.5	35.2	23.4	11.0	9.0	7.6	29.7
	19세이상	(51)	17.6	41.2	23.5	25.5	7.8	7.8	11.8	23.5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위기 유형	가출	(130)	19.2	48.5	34.6	26.2	10.0	8.5	9.2	25.4
	비행·범죄	(66)	18.2	36.4	27.3	19.7	10.6	9.1	7.6	33.3

주: ①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 ②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 ③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④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⑤ 혼자 있을 때 어떤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⑥ 부모님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  
 ⑦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⑧ 기타

## (2) 자해에 대한 대응 방법

- 자해 시도 후 주변에게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경우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4.7%로 파악되었다. 주변에 알린 대상과 관련해서는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7.5%가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고 답하였다.

표 II-104 자해 시도 후 주변에게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리지 않았다	가족에게 알렸다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	선생님에게 알렸다	상담기관에 알렸다	기타
전체		(194)	74.7	5.7	17.5	9.8	3.1	1.5
성별	남자	(63)	77.8	3.2	12.7	7.9	3.2	1.6
	여자	(131)	73.3	6.9	19.8	10.7	3.1	1.5
연령	19세미만	(142)	75.4	4.2	18.3	8.5	3.5	1.4
	19세이상	(52)	73.1	9.6	15.4	13.5	1.9	1.9
위기 유형	가출	(128)	79.7	2.3	13.3	10.9	3.1	0.8
	비행·범죄	(66)	65.2	12.1	25.8	7.6	3.0	3.0

- 자해 시도 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알려줘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16.3%),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13.5%) 순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105 자해 시도 여부를 주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려줘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 문제는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려지게 창피해서	별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체	(141)	49.6	6.4	16.3	12.1	13.5	2.1	
성별	남자	(47)	55.3	8.5	14.9	8.5	12.8	0.0
	여자	(94)	46.8	5.3	17.0	13.8	13.8	3.2
연령	19세미만	(103)	43.7	7.8	18.4	13.6	13.6	2.9
	19세이상	(38)	65.8	2.6	10.5	7.9	13.2	0.0
위기 유형	가출	(101)	49.5	7.9	19.8	8.9	11.9	2.0
	비행·범죄	(40)	50.0	2.5	7.5	20.0	17.5	2.5

○ 자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해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7.0%,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0%로 나타났다.

표 II-106 자해 시도에 관해 전문기관 상담치료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받아본 적 있다	받아본 적 없다	
전체	(194)	33.0	67.0	
성별	남자	(65)	27.7	72.3
	여자	(129)	35.7	64.3
연령	19세미만	(143)	33.6	66.4
	19세이상	(51)	31.4	68.6
위기 유형	가출	(125)	33.6	66.4
	비행·범죄	(69)	31.9	68.1

### (3) 자해에 대한 자율적 보호

○ 자해에 대한 자율적 보호능력과 보호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자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83.3%로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는 응답은 7.3%, ‘그만들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본 적 없다’ 및 ‘그만들 생각을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각각 4.7%로 파악되었다.

표 II-107 자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그만들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본 적 없다	그만들 생각을 해본 적 없다	
전체	(192)	83.3	7.3	4.7	4.7	
성별	남자	(63)	95.2	1.6	0.0	3.2
	여자	(129)	77.5	10.1	7.0	5.4
연령	19세미만	(141)	80.9	7.8	6.4	5.0
	19세이상	(51)	90.2	5.9	0.0	3.9
위기 유형	가출	(126)	77.0	10.3	6.3	6.3
	비행·범죄	(66)	95.5	1.5	1.5	1.5

○ 이전 문항에서 ‘자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자해를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는지 그만둔 계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응답이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의 도움’(26.6), ‘선생님의 도움’(18.4%), ‘가족의 도움’(10.1%), ‘상담기관/의료기관의 도움’(9.5%)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II-108 자해를 그만두게 된 계기(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족의 도움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상담기관/의료기관의 도움	기타	
전체	(158)	73.4	10.1	26.6	18.4	9.5	7.0	
성별	남자	(58)	75.9	6.9	29.3	13.8	5.2	10.3
	여자	(100)	72.0	12.0	25.0	21.0	12.0	5.0
연령	19세미만	(112)	71.4	10.7	25.9	19.6	7.1	8.9
	19세이상	(46)	78.3	8.7	28.3	15.2	15.2	2.2
위기 유형	가출	(96)	72.9	5.2	21.9	19.8	10.4	6.3
	비행·범죄	(62)	74.2	17.7	33.9	16.1	8.1	8.1

### 3) 자살 시도 경험

#### [주요 결과]

- 위기청소년 중에서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38.1%,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위기청소년 비율은 20.1%로 나타남.
-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나타남.

#### (1)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38.1%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 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4.0%로 나타났고, '지난 1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다'는 응답은 14.1%로 나타났다.
- 자살 생각 여부는 성별에 따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2.1%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62.3%로 대단히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109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경험한 적 있음	지난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555)	24.0	14.1	62.0
성별	남자	(335)	12.8	9.3	77.9
	여자	(220)	40.9	21.4	37.7
연령	19세미만	(358)	26.3	14.2	59.5
	19세이상	(193)	20.2	14.0	65.8
위기 유형	가출	(288)	35.8	15.6	48.6
	비행·범죄	(267)	11.2	12.4	76.4

○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평생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79.9%로 나타났고, 20.1%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1%, ‘지난 1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다’는 응답이 10.0%로 파악되었다.

-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10.2%)에 비해 여자청소년(35.2%)의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II-110 자살 시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난 1년간, 경험한 적 있음	지난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전체		(552)	10.1	10.0	79.9
성별	남자	(333)	4.2	6.0	89.8
	여자	(219)	19.2	16.0	64.8
연령	19세미만	(355)	11.5	9.9	78.6
	19세이상	(193)	7.8	10.4	81.9
위기 유형	가출	(285)	15.1	11.6	73.3
	비행·범죄	(267)	4.9	8.2	86.9

○ 자살을 시도한 원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이 49.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12.0%), ‘미래에 대한 불안’(10.8%), ‘경제적인 어려움’(7.2%), ‘학업 문제’(6.0%) 순으로 파악되었으나, ‘가족 간의 갈등’과의 응답 비율 차이는 큰 편이었다.

표 II-111 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업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	(166)	6.0	49.4	12.0	7.2	10.8	14.5	
성별	남자	(62)	9.7	43.5	9.7	11.3	14.5	11.3
	여자	(104)	3.8	52.9	13.5	4.8	8.7	16.3
연령	19세미만	(112)	5.4	52.7	14.3	1.8	7.1	18.8
	19세이상	(54)	7.4	42.6	7.4	18.5	18.5	5.6
위기 유형	가출	(119)	6.7	57.1	7.6	7.6	8.4	12.6
	비행·범죄	(47)	4.3	29.8	23.4	6.4	17.0	19.1

## (2) 자살 시도에 대한 대응 방법

○ 자살 시도 후 주변에게 알렸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9%는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20.8%, ‘선생님에게 알렸다’(13.9%), ‘상담기관에 알렸다’(8.9%), ‘가족에게 알렸다’(6.4%)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II-112 자살 시도 후 주변에게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리지 않았다	가족에게 알렸다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	선생님에게 알렸다	상담기관에 알렸다	기타	
전체	(202)	64.9	6.4	20.8	13.9	8.9	2.0	
성별	남자	(73)	67.1	9.6	16.4	16.4	8.2	0.0
	여자	(129)	63.6	4.7	23.3	12.4	9.3	3.1
연령	19세미만	(141)	66.7	5.0	19.1	14.2	9.2	2.1
	19세이상	(61)	60.7	9.8	24.6	13.1	8.2	1.6
위기 유형	가출	(142)	62.7	3.5	21.1	16.9	9.2	1.4
	비행·범죄	(60)	70.0	13.3	20.0	6.7	8.3	3.3

○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63.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 밖에 ‘내 문제는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15.2%),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8.8%),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6.4%),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2%)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113 자살 시도를 주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 문제는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타	
전체	(125)	63.2	3.2	15.2	6.4	8.8	3.2	
성별	남자	(43)	72.1	2.3	11.6	2.3	9.3	2.3
	여자	(82)	58.5	3.7	17.1	8.5	8.5	3.7
연령	19세미만	(89)	59.6	4.5	18.0	7.9	6.7	3.4
	19세이상	(36)	72.2	0.0	8.3	2.8	13.9	2.8
위기 유형	가출	(88)	64.8	3.4	12.5	5.7	10.2	3.4
	비행·범죄	(37)	59.5	2.7	21.6	8.1	5.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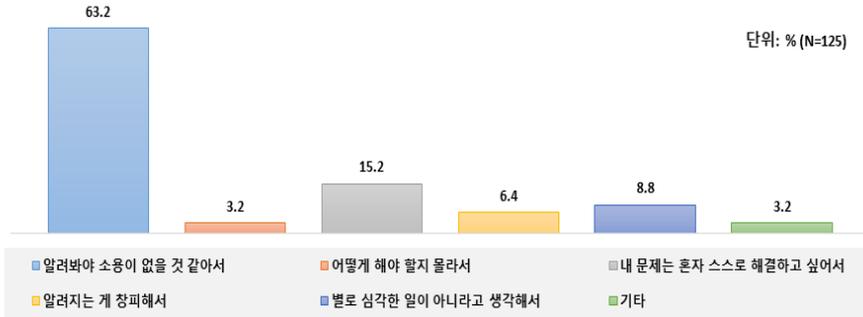


그림 II-10 자살 시도 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

○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9%,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64.1%로 파악되었다.

표 II-114 자살 시도 관련 전문기관 상담치료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받아본 적 있다	받아본 적 없다
전체		(198)	35.9	64.1
성별	남자	(72)	29.2	70.8
	여자	(126)	39.7	60.3
연령	19세미만	(139)	34.5	65.5
	19세이상	(59)	39.0	61.0
위기유형	가출	(137)	36.5	63.5
	비행·범죄	(61)	34.4	65.6

### (3) 자살 시도에 대한 자율적 보호

-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계기로 그만둘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81.5%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는 응답은 4.2%, ‘그만둘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본 적은 없다’(6.3%),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7.9%) 등으로 파악되었다.

표 II-115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그만둘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본 적 없다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전체	(189)	81.5	4.2	6.3	7.9	
성별	남자	(68)	91.2	1.5	1.5	5.9
	여자	(121)	76.0	5.8	9.1	9.1
연령	19세미만	(136)	78.7	4.4	8.1	8.8
	19세이상	(53)	88.7	3.8	1.9	5.7
위기 유형	가출	(132)	75.8	5.3	8.3	10.6
	비행범죄	(57)	94.7	1.8	1.8	1.8

- 자살 시도를 그만두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만둘 수 있었던 계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 혼자 의지와 노력으로’ 그만둘 수 있었다는 응답이 71.5%로 가장 많았고,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의 도움’(28.5%), ‘선생님의 도움’(20.5%), ‘상담기관/의료기관의 도움’(17.2%) 등이 수위를 차지했다.

표 II-116 자살 시도를 그만두게 된 계기(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족의 도움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상담기관 /의료기관의 도움	기타	
전체	(151)	71.5	11.3	28.5	20.5	17.2	5.3	
성별	남자	(63)	76.2	7.9	22.2	17.5	19.0	6.3
	여자	(88)	68.2	13.6	33.0	22.7	15.9	4.5
연령	19세미만	(106)	71.7	13.2	28.3	23.6	17.0	4.7
	19세이상	(45)	71.1	6.7	28.9	13.3	17.8	6.7
위기 유형	가출	(97)	73.2	6.2	25.8	19.6	17.5	5.2
	비행·범죄	(54)	68.5	20.4	33.3	22.2	16.7	5.6

#### 4) 심리·정서적 특성

##### [주요 결과]

- 위기청소년이 인식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내 삶에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65.4%로 나타남.

##### (1) 심리적 특성

- 여기에서는 자존감, 자기통제력 등을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자존감을 측정하는 4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점수를 합산한 결과 응답자의 자존감 평균점수는 12.05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기 경험 여부에 따른 자존감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폭력 피해 경험(11.32점),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11.33점), 조건만남 경험(10.68점)이 있는 집단에서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존감 측정문항을 합산한 평균점수가 낮게 포착되었다.

표 II-117 위기 경험 여부에 따른 자존감 차이 (문항합산 점수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565)	12.05	2.72
폭력 피해 경험	없음	(445)	12.25	2.63
	있음	(120)	11.32	2.92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없음	(440)	12.24	2.64
	있음	(112)	11.33	2.89
조건만남 경험	없음	(498)	12.11	2.72
	있음	(32)	10.68	2.23

주: 자존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나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를 충동성으로 개념화하고 충동성 수준을 확인한 결과, 전체 집단의 문항합산 점수의 평균값은 11.88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위기 경험 여부에 따른 충동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집단의 평균점수(13.77점)가 각각 잠재적 위험군(12.79점), 일반군(11.32점) 평균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 과몰입 위험군의 평균점수는 14.13점으로 일반군 11.68점에 비해 충동성의 경향이 크게 포착되었다.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12.39점으로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 (11.75점)에 비해 충동성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118 위기 경험에 따른 충동성 차이 (문항합산 점수 평균)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565)	11.88	3.21
스마트폰 과의존	일반군	(360)	11.32	3.30
	잠재적 위험군	(173)	12.79	2.59
	고위험군	(26)	13.77	3.46

구분		사례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게임 과몰입	일반군	(311)	11.68	3.03
	위험군	(26)	14.13	3.70
폭력 피해 경험	없음	(445)	11.75	3.27
	있음	(120)	12.39	2.95

주: 충동성은 4점 척도로 측정된 총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무슨 일이든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나는 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다, 나는 쉽게 화를 낸다,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 (2) 삶의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위기청소년의 삶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그에 대한 보답이 있다고 믿는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어진 진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9%가 긍정적(그렇다+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19 삶에 대한 인식: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그에 대한 보답이 있다고 믿는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65)	3.2	15.9	50.1	30.8	
성별	남자	(340)	2.6	12.4	50.9	34.1
	여자	(225)	4.0	21.3	48.9	25.8
연령	19세미만	(365)	3.3	17.0	48.2	31.5
	19세이상	(196)	3.1	14.3	53.1	29.6
위기 유형	가출	(294)	4.8	17.0	49.3	28.9
	비행·범죄	(271)	1.5	14.8	50.9	32.8

-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내 삶에 만족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4%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그렇다 41.1%+매우 그렇

다 24.3%).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은 34.6%(전혀 그렇지 않다 10.1%+그렇지 않다 24.5%)로 파악되었다.

- 삶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삶에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남자청소년은 74.4%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52.0%로, 22.4%p 더 낮게 파악되었다. 예비조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중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표 II-120 삶에 대한 만족도: 내 삶에 만족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64)	10.1	24.5	41.1	24.3	
성별	남자	(339)	7.1	18.6	43.7	30.7
	여자	(225)	14.7	33.3	37.3	14.7
연령	19세미만	(365)	11.2	24.9	41.4	22.5
	19세이상	(195)	8.2	23.6	40.0	28.2
위기 유형	가출	(293)	13.7	30.0	35.2	21.2
	비행범죄	(271)	6.3	18.5	47.6	27.7

-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7.3%가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렇다’ 47.9%+‘매우 그렇다’ 29.4%). 부정적 응답은 22.7%로 파악되었다.
- 신체적 건강에 대한 평가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긍정적 평가(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이 남자청소년은 82.4%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69.7%로 남자청소년 대비 12.7%p 더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II-121 신체적 건강 상태 :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64)	3.7	19.0	47.9	29.4
성별	남자	(340)	2.6	15.0	45.9	36.5
	여자	(224)	5.4	25.0	50.9	18.8
연령	19세미만	(364)	3.8	17.3	48.4	30.5
	19세이상	(196)	3.6	21.9	46.9	27.6
위기 유형	가출	(293)	5.8	23.5	47.4	23.2
	비행·범죄	(271)	1.5	14.0	48.3	36.2

-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8%가 긍정적 응답(그렇다 48.1%+매우 그렇다 24.7%)을 나타냈다.
- 신체적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긍정적 응답 비율이 83.5%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은 56.5%에 그쳐, 27.0%p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서적 건강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122 정서적 건강 상태: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563)	5.5	21.7	48.1	24.7
성별	남자	(340)	2.9	13.5	53.8	29.7
	여자	(223)	9.4	34.1	39.5	17.0
연령	19세미만	(363)	6.3	20.7	49.9	23.1
	19세이상	(196)	4.1	24.0	44.4	27.6
위기 유형	가출	(292)	8.9	28.4	44.9	17.8
	비행·범죄	(271)	1.8	14.4	51.7	32.1

## 5) 사회적 특성

### [주요 결과]

- 밖에 나가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는 등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나타낸 위기청소년 비율은 39.5%로 나타남.
-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위기청소년 비율은 14.5%로 나타남.

### (1) 사회적 성향

-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성향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밖에 나가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9.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을 배경변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자청소년(37.2%)보다 여자청소년(43.0%)이 더 높게 나타났고, 19세미만 청소년(38.0%)보다 19세이상 청소년(41.5%)이 조금 더 높았다.

표 II-123 은둔형 외톨이 성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562)	39.5	60.5
성별	남자	(339)	37.2	62.8
	여자	(223)	43.0	57.0
연령	19세미만	(363)	38.0	62.0
	19세이상	(195)	41.5	58.5
위기유형	가출	(293)	42.7	57.3
	비행·범죄	(269)	36.1	63.9

-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첼회)' 및 '타인에 대한 이해' 항목에 대한 위기청소년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사회적 위축(4점 척도 4개 문항)과 타인에 대한 이해 항목(4점 척도 4개 문항)의 합산점수 평균은 각각 6.75점과 12.79점으로 도출되었다.
- '사회적 위축'을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여자청소년(7.20점), 가출 청소년(7.11점)이 각각 남자청소년(6.46점), 비행범죄 청소년(6.37점)에 비해 사회적 위축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타인에 대한 이해 정도'의 집단별 비교 결과에서는 남자청소년(12.82점), 비행범죄 청소년(12.87점)이 각각 여자청소년(12.53점), 가출 청소년(12.55점)에 비해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124 사회적 위축과 타인에 대한 이해

(단위: 명, 점)

구분		사회적 위축			타인에 대한 이해		
		사례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전체		(565)	6.75	2.49	(565)	12.70	2.10
성별	남자	(340)	6.46	2.53	(340)	12.82	2.13
	여자	(225)	7.20	2.38	(225)	12.53	2.05
위기 유형	가출	(294)	7.11	2.51	(294)	12.55	2.23
	비행·범죄	(271)	6.37	2.43	(271)	12.87	1.95

주: 1) 사회적 위축은 4점 척도로 측정된 총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나는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나는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나는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2) 타인에 대한 이해는 4점 척도로 측정된 총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야 행동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나는 친구들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을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

(2) 사회적 지지체계

○ 위기 극복에 대한 일종의 보호요인으로서 위기청소년이 보유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14.5%로 파악되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4명 이상’ 있다는 응답은 45.5%로 나타났고, ‘2~3명 있다’는 응답이 33.7%, ‘1명’이라는 응답은 6.2%로 파악되었다.

표 II-125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명	2~3명	4명 이상
전체		(433)	14.5	6.2	33.7	45.5
성별	남자	(258)	13.2	6.2	32.9	47.7
	여자	(175)	16.6	6.3	34.9	42.3
연령	19세미만	(277)	15.9	6.1	36.1	41.9
	19세이상	(152)	11.8	5.9	28.9	53.3
위기유형	가출	(240)	16.7	7.1	33.3	42.9
	비행·범죄	(193)	11.9	5.2	34.2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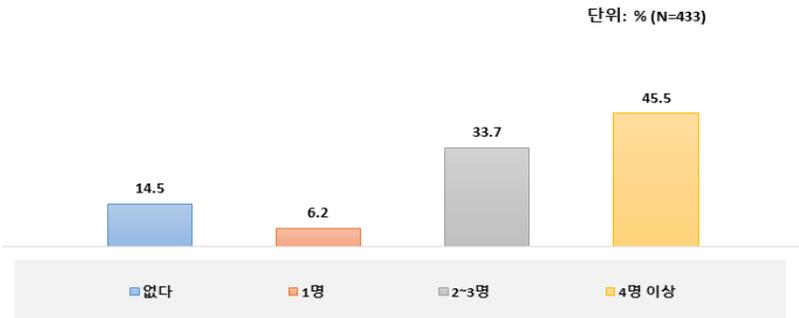


그림 II-11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수

-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선후배’라는 응답이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또는 보호자)’(58.1%), ‘청소년시설 선생님’(39.2%), ‘학교 선생님’(35.1%), ‘형제/자매’(24.4%) 등으로 파악되었다.
-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시설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58.8%로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에게는 청소년시설에서 접한 선생님이 대단히 의미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자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표 II-126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부모님 (또는 보호자)	학교 선생님	친구/ 선후배	형제/ 자매	이웃/ 친척	청소년 시설 선생님	온라인에 서 알게 된 사람	기타	
전체	(439)	58.1	35.1	83.8	26.4	13.0	39.2	7.1	3.9	
성별	남자	(264)	66.7	37.1	85.6	31.1	13.6	34.8	6.4	3.0
	여자	(175)	45.1	32.0	81.1	19.4	12.0	45.7	8.0	5.1
연령	19세미만	(284)	62.0	39.8	83.1	24.6	13.4	37.7	8.5	4.2
	19세이상	(154)	50.6	26.6	85.7	29.9	12.3	42.2	4.5	3.2
위기 유형	가출	(226)	39.8	36.7	77.4	17.3	10.6	58.8	11.1	3.1
	비행범죄	(213)	77.5	33.3	90.6	36.2	15.5	18.3	2.8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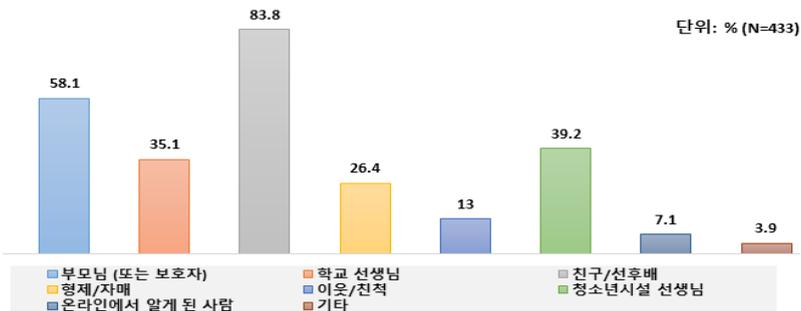


그림 II-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5. 정책적 수요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 1)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수준

#### [주요 결과]

-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율의 경우, 'Wee센터/Wee클래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79.6%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전화1388'도 72.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청소년전화1388'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위기청소년은 25.3%로 나타남.

#### (1) 청소년 복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수준

- 청소년 복지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조사 결과, Wee 클래스 또는 Wee 센터(79.6%), 청소년전화 1338(72.4%) 서비스에 대한 인지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Wee 클래스 또는 Wee 센터(56.9%) 이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82.0%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다.

표 II-127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와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시 도움 정도				
	사례수	모른다	안다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청소년전화 1388	(550)	27.6	72.4	(392)	74.7	25.3	(98)	11.2	13.3	42.9	32.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9)	32.1	67.9	(368)	62.0	38.0	(139)	7.2	10.8	43.9	38.1

구분	인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시 도움 정도				
	사례수	모른다	안다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	(548)	20.4	79.6	(422)	43.1	56.9	(239)	7.9	14.6	43.5	33.9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549)	77.8	22.2	(117)	70.9	29.1	(34)	5.9	14.7	41.2	38.2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디딤센터)	(549)	76.7	23.3	(124)	83.9	16.1	(20)	25.0	5.0	45.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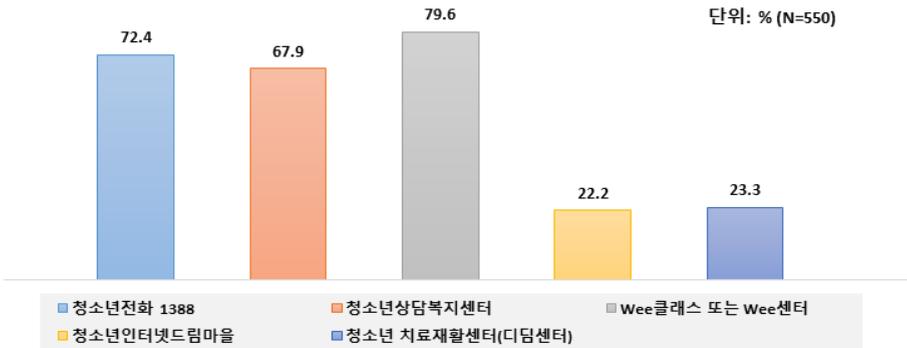


그림 II-13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를

## 2) 정책적 수요

### [주요 결과]

- 위기청소년이 주로 경험하는 어려움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44.0%), '가족과의 갈등'(33.0%)으로 나타남.
-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로는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1)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 위기청소년이 처한 어려움과 지원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0%는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주된 어려움이라고 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그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토로하였다.

- 위기 유형에 따른 어려움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가출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의 갈등(49.8%)'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비행범죄 청소년의 경우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40.3%)'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표 II-128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전체	(552)	33.0	13.6	26.8	16.7	31.9	8.5	6.2	17.2	15.6	44.0	8.5	1.3	1.8	26.4
성별	남자 (331)	23.0	8.2	22.7	10.9	25.1	4.2	3.0	16.3	10.0	33.8	3.9	0.3	1.5	35.0
	여자 (221)	48.0	21.7	33.0	25.3	42.1	14.9	10.9	18.6	24.0	59.3	15.4	2.7	2.3	13.6
연령	19세 미만 (357)	35.9	16.5	23.0	16.5	33.9	8.1	5.3	15.7	17.9	45.1	7.3	1.4	1.7	26.3
	19세 이상 (191)	27.7	8.4	34.6	17.3	28.8	9.4	7.9	19.9	11.5	42.9	11.0	1.0	2.1	26.2
위기 유형	가출 (289)	49.8	16.3	37.4	20.4	31.8	11.4	9.7	19.7	18.3	47.4	10.4	1.4	2.1	18.7
	비행·범죄 (263)	14.4	10.6	15.2	12.5	31.9	5.3	2.3	14.4	12.5	40.3	6.5	1.1	1.5	35.0

주: ① 가족과의 갈등, ② 또래(친구 또는 선후배 등)와의 갈등, ③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④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⑤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 ⑥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⑦ 지낼 곳을 찾기가 어려움, ⑧ 일을 구하기 어려움, ⑨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⑩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⑪ 건강이 안 좋음, ⑫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술, 담배, 폭력, 절도, 성매매 등)이라도 해야 함, ⑬ 기타, ⑭ 어려움이 없음.

## (2)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자리 제공'(82.6%), '건강검진 제공'(78.1%), '각종 질병에 대한 치

료’(77.2%), ‘직업교육 훈련’(74.4%), ‘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보호’(74.2%),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74.2%),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72.3%)에 대해 필요하다(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일자리 및 자립 지원 영역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게 도출되었다.

표 II-129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수요

(단위: 명, %)

구분		필요 정도					긍정적 응답 비율
		사례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진로 준비	1) 학습/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564)	13.1	19.7	46.8	20.4	67.2
	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563)	16.3	23.4	39.4	20.8	60.2
	3)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563)	13.5	20.6	45.3	20.6	65.9
	4)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563)	10.8	14.7	46.2	28.2	74.4
일자리 및 자립 지원	5)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563)	7.6	9.8	42.3	40.3	82.6
	6) 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562)	11.0	14.8	41.6	32.6	74.2
	7) 자산 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와 관련된 정보 제공	(562)	9.6	16.2	41.1	33.1	74.2
건강 관리	8) 건강검진 제공	(562)	8.5	13.3	45.7	32.4	78.1
	9)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562)	9.4	13.3	43.1	34.2	77.2
	10) 성교육 제공	(562)	13.9	24.4	36.8	24.9	61.7
상담 서비스	11)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562)	11.6	20.3	38.8	29.4	68.1
	12) 심리/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561)	11.4	21.6	38.0	29.1	67.0

구분		필요 정도					긍정적 응답 비율
		사례 수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3)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562)	18.0	25.8	33.6	22.6	56.2
	14)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지원	(562)	20.3	30.4	30.8	18.5	49.3
활동기 회/정보 제공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560)	15.4	20.4	37.7	26.6	64.3
	16) 다양한 청소년 활동(문화예술, 체육,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등) 참여 기회	(558)	14.2	18.1	39.6	28.1	67.7
	17)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559)	12.5	15.2	38.8	33.5	72.3

## 6. 일반적 특성

### 1) 학교 재학 여부 및 학교를 그만 둔 경험

-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배경변인으로 제시한 문항을 토대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해보았다. 먼저 학교 재학 여부 및 학업중단 여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5.3%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38.4%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구체적으로 학교 재학 여부에 대한 성별 특성을 비교해보면, 남자청소년(41.1%)은 여자청소년(26.7%)에 비해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중단 경험에 대한 응답률 또한 43.7%로 여자청소년(30.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130 현재 학교 재학 및 학교를 그만 둔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현재 학교 재학 여부			학교를 그만 둔 경험 여부		
		사례수	다닌다	안 다닌다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63)	64.7	35.3	(544)	38.4	61.6
성별	남자	(338)	58.9	41.1	(323)	43.7	56.3
	여자	(225)	73.3	26.7	(221)	30.8	69.2
연령	19세미만	(365)	77.3	22.7	(350)	27.4	72.6
	19세이상	(196)	41.8	58.2	(193)	58.0	42.0
위기 유형	가출	(292)	75.7	24.3	(285)	23.5	76.5
	비행·범죄	(271)	52.8	47.2	(259)	54.8	45.2

2) 학교를 그만 둔 이유

-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이 싫어서’가 2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응답 경향이 포착되었는데, 남자청소년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서(31.6%)’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자청소년은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이 싫어서(41.0%)’가 주된 이유로 파악되었다.

표 II-131 학교를 그만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건강상의 이유	집안의 경제사정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이 싫어서	검정고시 또는 해외유학 준비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서	기타	
전체	(194)	4.1	3.1	5.2	26.3	13.9	5.7	23.2	18.6	
성별	남자	(133)	1.5	3.8	3.8	19.5	14.3	6.0	31.6	19.5

	여자	(61)	9.8	1.6	8.2	41.0	13.1	4.9	4.9	16.4
연령	19세미만	(87)	3.4	2.3	2.3	27.6	12.6	5.7	21.8	24.1
	19세이상	(106)	4.7	3.8	7.5	25.5	14.2	5.7	24.5	14.2
위기 유형	가출	(61)	9.8	6.6	11.5	37.7	6.6	3.3	9.8	14.8
	비행·범죄	(133)	1.5	1.5	2.3	21.1	17.3	6.8	29.3	20.3

### 3)진로 계획

-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8%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다시 학교를 다닐 것이다’고 응답하였으며 26.0%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취업할 것이다’는 응답이 21.1%,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것이다’ 10.9%, ‘창업할 것이다’ 9.6% 등으로 파악되었다.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0.2%로 나타났다.
- 위기청소년의 상당수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결과는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우선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세이상 청소년 중에서도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것이다’ 등 불명확한 진로계획을 보고한 응답 비율이 30.2%를 차지한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표 II-132 진로 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급학교 진학/복학	취업	창업	아르바이트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을 것임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함	기타	
전체	(512)	31.8	21.1	9.6	10.9	0.2	26.0		
성별	남자	(317)	27.1	21.5	13.2	12.0	0.3	25.2	0.6

구분		사례수	상급학 교 진학 /복학	취업	창업	아르바 이트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을 것임	아진 진로를 정하지 못함	기타
	여자	(195)	39.5	20.5	3.6	9.2	0.0	27.2	0.0
연령	19세미만	(328)	34.5	17.1	7.9	9.1	0.3	31.1	0.0
	19세이상	(182)	27.5	28.6	12.6	14.3	0.0	15.9	1.1
위기 유형	가출	(271)	30.6	23.6	5.9	10.7	0.4	28.8	0.0
	비행·범죄	(241)	33.2	18.3	13.7	11.2	0.0	22.8	0.8

#### 4) 건강검진 여부

- 최근 1년 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56.6%는 지난 1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위기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봤을 때, 가출 청소년의 62.5%가 지난 1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에 비행·범죄 청소년의 응답률은 이보다 적은 50.4%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19세미만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59.8%)이 19세이상 청소년의 수검율(51.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133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받았다	받지 않았다
전체		(558)	56.6	43.4
성별	남자	(336)	56.8	43.2
	여자	(222)	56.3	43.7
연령	19세미만	(361)	59.8	40.2
	19세이상	(195)	51.3	48.7
위기 유형	가출	(288)	62.5	37.5
	비행·범죄	(270)	50.4	49.6

## 5) 빈곤 여부

- 빈곤은 가장 광범위한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빈곤 여부를 포착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5%는 ‘그렇다’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거나 과거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응답한 여자청소년의 비율(33.3%)은 남자청소년(23.5%)보다 더 높았다.
  - 위기 유형별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비교해보면 가출 청소년(34.8%)의 응답률이 비행·범죄 청소년(19.5%)보다 높게 나타나 빈곤을 경험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13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수급자에 해당됨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해당됨	해당사항 없음	모르겠음
전체		(561)	21.6	5.9	41.0	31.6
성별	남자	(336)	19.3	4.2	43.8	32.7
	여자	(225)	24.9	8.4	36.9	29.8
연령	19세미만	(365)	19.8	5.8	40.7	33.8
	19세이상	(195)	25.1	6.2	41.5	27.2
위기 유형	가출	(290)	28.6	6.2	32.1	33.1
	비행·범죄	(271)	14.0	5.5	50.6	29.9

## ○ — 제3장 요약 및 제언

— 1. 주요 결과 요약

— 2. 논의 및 제언



## 1. 주요 결과 요약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예비조사 결과 가운데, 각 세부주제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먼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먼저 [그림 III-1]에는 부모 간 관계와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부모님이 서로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4.2%, ‘싸우면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48.1%, ‘서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38.9%로 나타나, 위기청소년의 상당수가 부모 간 불화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고, 그래프의 일부는 이정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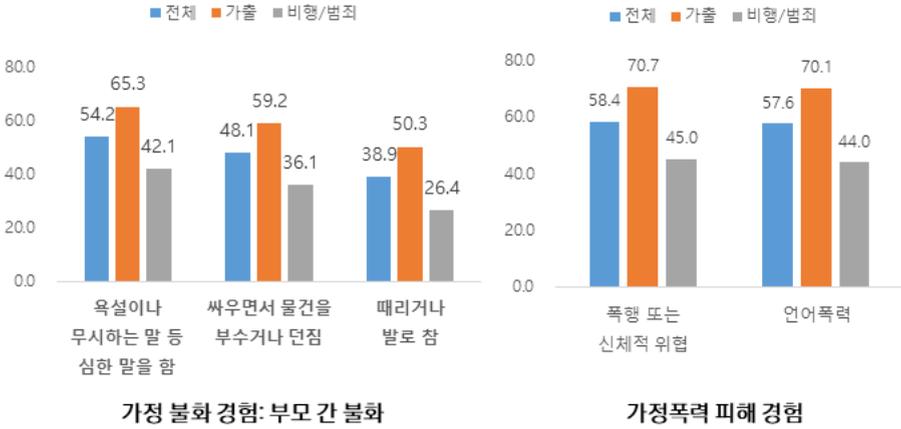


그림 III-1 가정 불화 및 가정폭력 피해 경험

## 2) 가출

가정 밖(가출) 경험 영역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출 경험에 대해 조사 결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6.3%,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40.6%로 파악되었다. 가출 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가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정폭력(신체·언어폭력)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져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 비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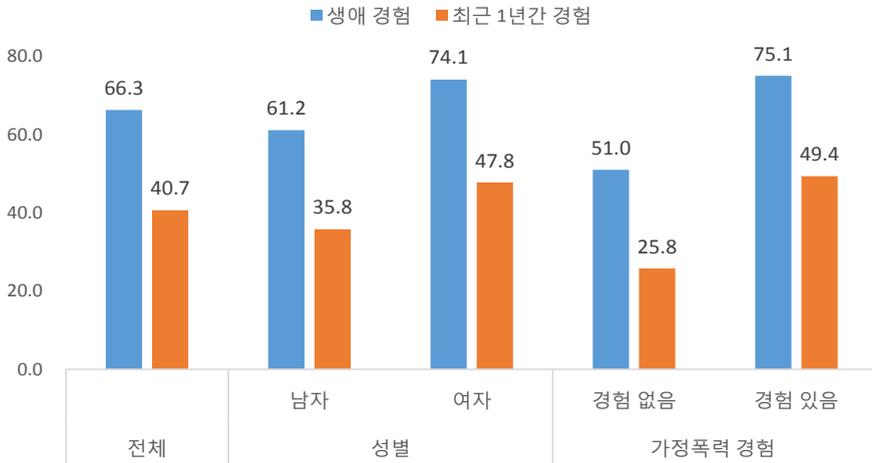


그림 III-2 가출 생애 경험 및 최근 1간 경험률(단위: %)

가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았고,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44.5%,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30.8%, '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응답이 30.8%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가출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가출청소년의 가정 복귀가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 집을 나오게 된 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명)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왕따 등 학교 폭력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기타
전체	(373)	63.0	30.8	3.8	9.9	4.6	5.4	10.7	44.5	4.6
성별	남자 (206)	58.3	25.7	3.9	6.8	2.4	5.3	8.7	45.1	4.9
	여자 (167)	68.9	37.1	3.6	13.8	7.2	5.4	13.2	43.7	4.2
가출 횟수	1-3회 (203)	59.1	31.5	3.0	6.4	4.4	4.4	8.9	36.0	3.4
	4회 이상 (169)	68.0	30.2	4.7	14.2	4.7	6.5	13.0	55.0	5.3

가출 후 지낸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라는 응답이 72.5%로 가장 많았고, ‘여관/모텔/달방/월세방’이 41.2%, ‘청소년쉼터’ 37.7%, ‘찜질방/고시원/PC방’ 32.9% 등으로 파악되었다.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건물 안 계단/지하철역/길거리/놀이터/공원 등)’을 했다는 응답도 23.0%로 나타나, 가출 청소년 4명 중 1명 비율로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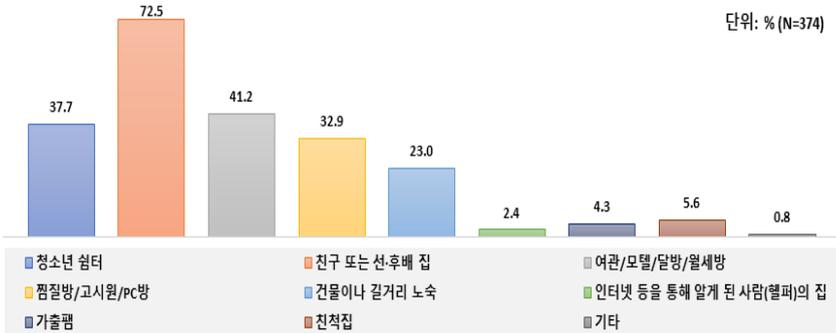


그림 III-3 가출 후 지낸 장소(중복응답)

가출 후 경험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생활비 부족’이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고, ‘갈 곳이 없음(살 곳이 없음)’ 34.8%, ‘우울/불안/좌절/두려움/외로움’이 27.5%, ‘일자리가 없음’이 26.2% 등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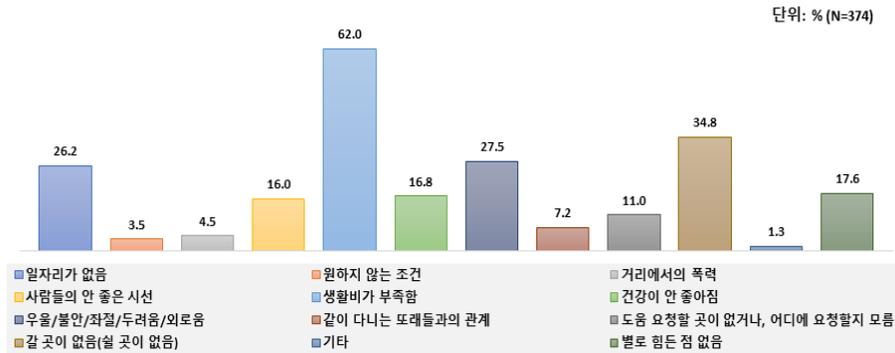


그림 III-4 가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점(중복응답)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종류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1순위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숙식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이라는 응답이 51.4%로 과반을 차지했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의 제공’이 23.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일할 곳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취업 지원’이 14.4%로 3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 청소년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에 요구되는 의식주 및 생필품 해결이 가장 절실함을 시사한다.

단위: %(N=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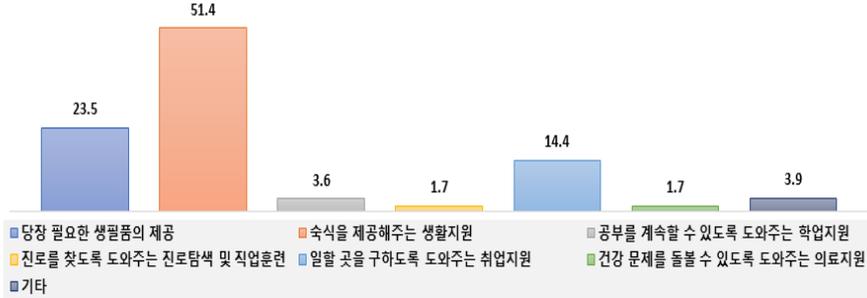


그림 III-5 가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가정 밖(가출) 경험 영역에서는 신규 수요 파악을 위해 소위 ‘헬퍼’에 대한 접촉 경험을 조사해보았다. 먼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n=374명) 가운데,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부터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0.7%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경험률(18.0%)이 남자청소년(4.8%)에 비해 3.8배 더 높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숙식을 제공해 줄 사람(헬퍼)’을 구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가출 유경험자의 8.3%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여자청소년(13.2%)이 남자청소년(4.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헬퍼’와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떠한 경로로 접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고, ‘랜덤채팅 앱을 통해’ 접했다는 응답이 21.7%로 그 뒤를 이었다.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15.2%), ‘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6.5%)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헬퍼’와의 접촉이 메신저나 랜덤채팅 앱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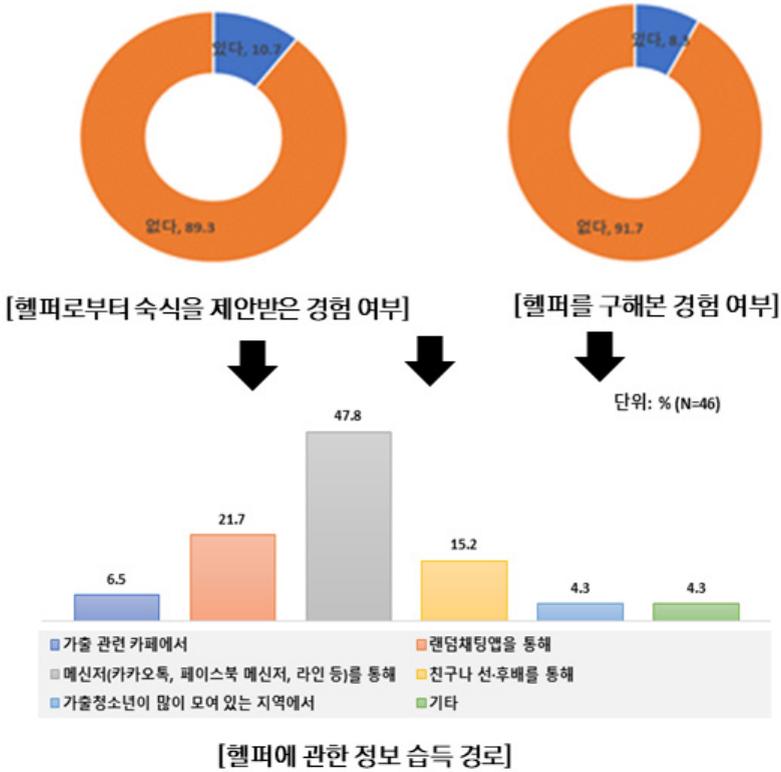


그림 III-6 '헬퍼' 관련 접촉 경험

### 3) 도박(돈내기 게임) 이용

[그림 III-7]에는 도박(돈내기 게임) 관련 경험을 묻는 다양한 문항들 가운데,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률 및 경험 빈도에 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지난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1%로 파악되었다. 지난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돈내기 게임을 했는지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1-2회 해본 정도'라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고, ‘일주일에 1-2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53.3%(‘일주일에 1-2회’ 23.3%+‘거의 매일’30.0%)로 과반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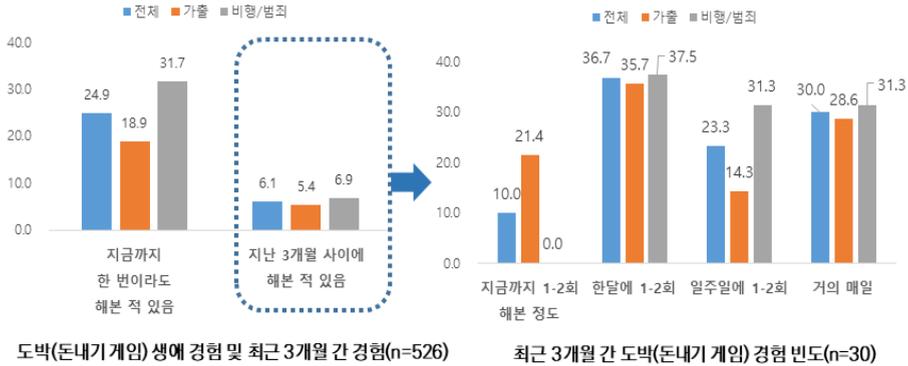


그림 III-7 도박(돈내기 게임) 관련 경험

#### 4)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 세부주제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9%가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35.4%)이 남자청소년(28.0%) 보다 7.4%p 더 높았다. 가출 빈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가출을 해본 적 없다고 답한 청소년(26.7%)에 비해 1~3회(30.2%), 4회 이상(36.5%) 등 가출 빈도가 증가할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도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은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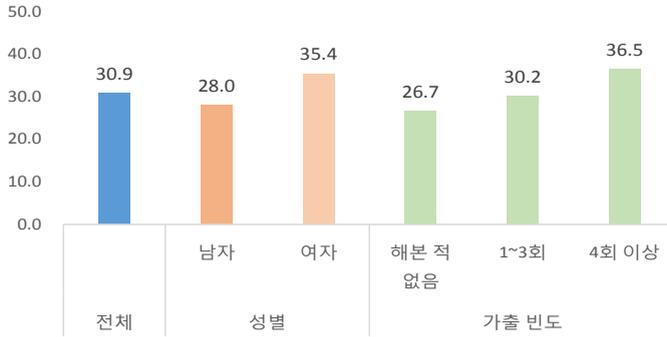


그림 III-8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 경험율(단위: %)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려면 부모(보호자) 동의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기청소년들은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관련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인데 부모(보호자) 동의를 낼 수 없어서 일을 구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분석 결과,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 이러한 경험은 여자청소년(29.1%)이 남자청소년(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가출 경험이 많을수록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 부모(보호자)동의서 제출 요구로 인한 구직 어려움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구직 어려움 경험		계
		있다	없다	
전체	540	23.5	76.5	100.0
성별	남자	19.9	80.1	100.0
	여자	29.1	70.9	100.0
가출 경험 빈도	해본 적 없음	14.4	85.6	100.0
	1~3회	24.9	75.1	100.0
	4회 이상	32.1	67.9	100.0

다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서 일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19세미만 청소년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19세미만 청소년 응답자의 4.3%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에서 일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는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그때 는 청소년이 일하면 안 되는 곳인지 잘 몰라서’(23.1%),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및 ‘근무 시간이나 날짜 등 조건이 잘 맞아서’가 각각 7.7%로 나타났 다. 기타 응답도 23.1%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이 고용금지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경험이 있는 19세미만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을 할 때 나이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나이를 확인했다’는 응답이 53.8%,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6.2%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이 고용 금지업소에서 일할 때,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나이를 확인하고도 일을 하게 하는 사례가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폭력 피해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친구나 선후배, 아는 사람 등)으로부터 경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이 18.8%로 가장 많았고,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9.6%)’,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9.2%)’,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5.5%)’, ‘왕따(따돌림)를 당함(5.1%)’, ‘온라인(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3.7%)’, ‘돈을 모아 오라고 강요하거나, 대리입금을 요구 받음(3.0%)’, ‘강제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데이터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함(2.3%)’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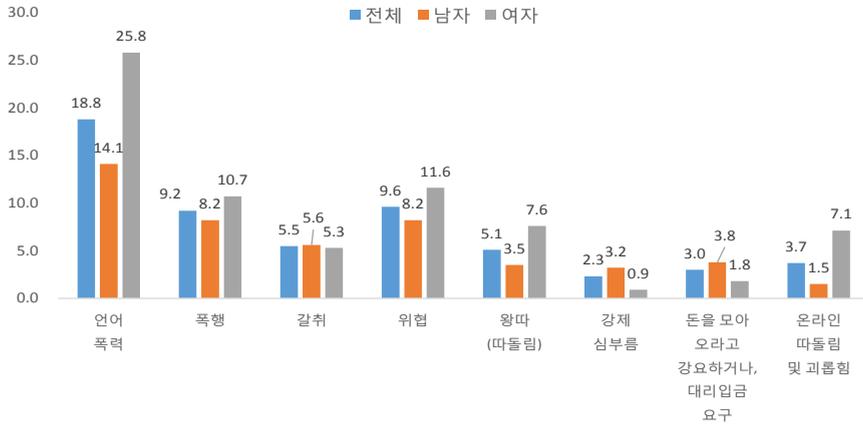


그림 III-9 폭력 유형별 경험률(단위: %)

## 6) 성폭력 피해

[그림 III-10]에는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고,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와 ‘강제로 성관계 및 시도나 피해’가 각각 2.0%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피해율이 높았는데,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여자청소년은 5.8%로 남자청소년(1.5%)에 비해 약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여자청소년은 4.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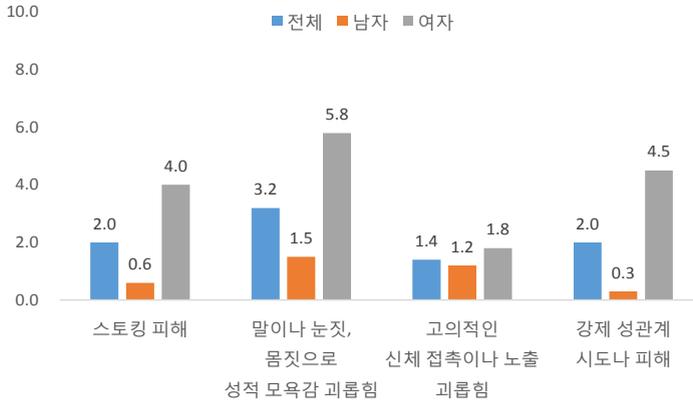


그림 Ⅲ-10 성폭력 유형별 경험률(단위: %)

## 7) 조건만남

〈표 Ⅲ-3〉에는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이나 제안을 받은 경험 및 실제 조건만남을 해본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9.8%가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이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은 6.0%로 파악되었다. 조건만남 경험은 성별에 따라 응답 결과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율은 여자청소년(21.5%)이 남자청소년(2.1%) 보다 10배 높게 나타났고, 실제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도 여자청소년(11.6%)이 남자청소년(2.5%) 보다 4.6배 높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19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조건만남 유인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은 10.5%, 실제로 조건만남을 해본 경험은 6.5%로 파악되었다.

표 III-3 조건만남 관련 경험

구분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		조건만남 경험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62)	9.8	(530)	6.0
성별	남자	(339)	2.1	(323)	2.5
	여자	(223)	21.5	(207)	11.6
연령	19세미만	(363)	10.5	(338)	6.5
	19세이상	(195)	8.7	(189)	5.3
위기 유형	가출	(293)	9.6	(279)	5.4
	비행·범죄	(269)	10.0	(251)	6.8
가출 빈도	해본 적 없음	(189)	3.2	(175)	2.9
	1~3회	(202)	8.4	(192)	4.7
	4회 이상	(170)	18.8	(162)	11.1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갈 곳(잘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서’(36.7%), ‘노는 데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33.3%),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33.3%),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30.0%), ‘호기심에서’(16.7%), ‘자포자기의 심정으로’(13.3%),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없이’(10.0%) 순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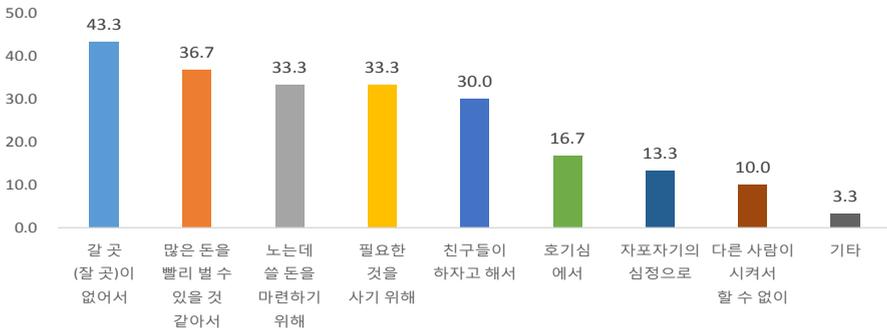


그림 III-11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중복응답, n=30)

조건만남을 주로 어떤 경로로 하는지 조사한 결과, ‘랜덤채팅앱(모르는 사람과 채팅, 쪽기)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채팅 사이트 또는 채팅앱(1:1채팅, 화상채팅 등)을 통해서’ 45.2%, ‘SNS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22.6%, ‘친구, 선후배, 애인 같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12.9% 등으로 파악되었다. ‘술집, 거리 등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제안으로’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3.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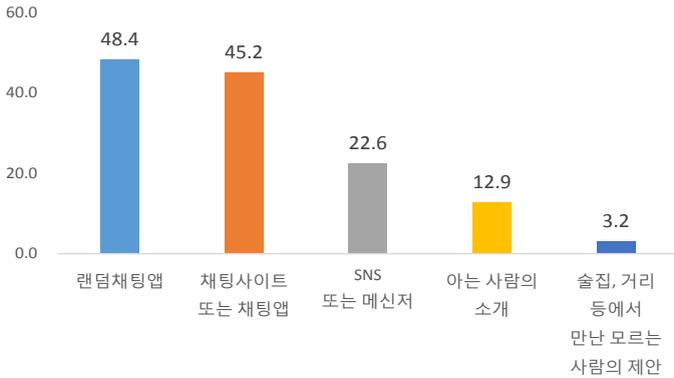


그림 III-12 조건만남 경로(중복응답, n=31)

조건만남을 그만두는 보호요인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조건만남을 그만두는 데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68.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상담 기관/쉼터선생님의 도움으로’가 40.9%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에 잡혀가거나 처벌을 받아서’ 27.3%, ‘친구/선후배/애인의 도움으로’ 27.2%, ‘가족/친척의 도움으로’ 18.2%, ‘일자리를 구해서’ 4.5% 순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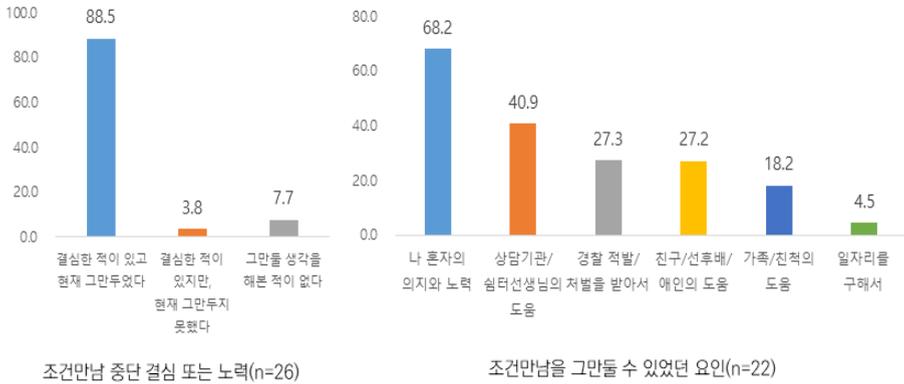


그림 III-13 조건만남 관련 보호요인

## 8) 디지털 성범죄 피해

〈표 III-4〉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제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을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21.7%로 파악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 남자청소년의 피해율(11.8%)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피해율(36.6%)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피해율을 살펴보면,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2.8%로 가장 높았고,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9.6%,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8.2% 등이 비교적 빈번한 피해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4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남자	여자
사례수(명)	562	338	224
<b>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 비율</b>	<b>21.7</b>	<b>11.8</b>	<b>36.6</b>
1)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12.8	6.8	21.9
2) 내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	6.9	2.7	13.4
3)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내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	3.6	2.7	4.9
4) 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이 있다	3.0	1.5	5.4
5)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9.6	2.1	21.0
6)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아본 적이 있다	4.1	2.1	7.1
7) 불법촬영 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단톡방 포함)에서 유포된 적이 있다	1.8	1.2	2.7
8) 돈이나 금품 등 대가를 미끼로 내 사진이나 영상물,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3.6	0.9	7.6
9)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불특정 스팸 제외)	8.2	3.0	16.1
10) 온라인에서 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5.3	2.1	10.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경험을 어디에서 했는지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 등)’라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라는 응답이 55.3%, 랜덤채팅앱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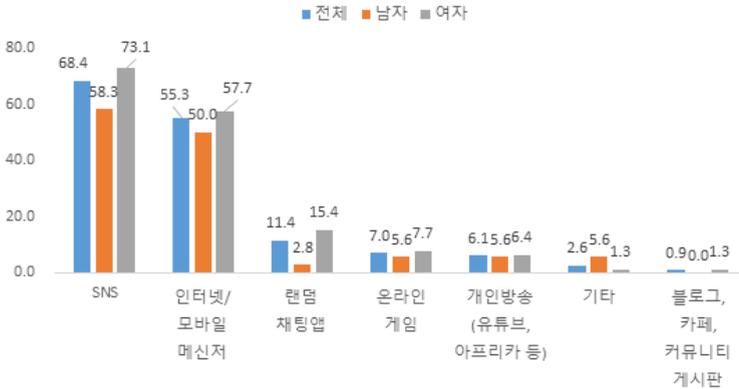


그림 III-14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로(중복응답, n=114)

### 9) 자해·자살 시도

자해 및 자살 시도 경험은 본 연구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 항목 중 하나다. 자해 및 자살 시도는 그 자체로 고위기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 FGI를 통해 최근 비자살성 자해가 광범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자해 및 자살 시도 관련 문항을 포함하고, 관련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III-15]에는 자해 시도 경험을 및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중 30.5%는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해 시도 경험은 성별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자해 시도 경험률(53.3%)이 남자청소년(15.2%)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가출 빈도에 따라 구분해보면,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출을 여러번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해 시도율도 높게 파악되었다. 한편,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41.0%)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12.2%)에 비하여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자해를 시도하는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8%가 1달에 1-2번 이상 자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일주일에 1-2번’ 7.0%+‘1달에 1-2번’ 4.8%). 특히 여자청소년

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5.8%가 '1달에 1-2회 이상' 자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 사이에 자해가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방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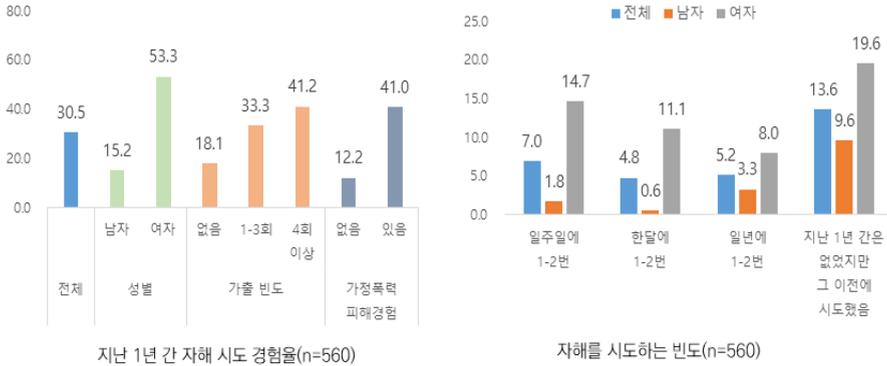


그림 III-15 자해 시도 경험 및 빈도

[그림 III-16]에는 지난 1년 간 자살 시도율과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최근 1년 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를 차지했다. 여자청소년의 자살 시도율(35.2%)이 남자청소년(10.2%) 보다 3배 이상 높았고,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6.9%)에 비해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자살 시도율(27.6%)이 4배 더 높았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았고, 또래와의 갈등(12.0%), 미래에 대한 불안(10.8%) 등이 수위를 차지했다. 다만 자살을 생각한 사유에 대해 선택지에 없는 '기타' 응답이 14.5%로 높게 나온 점은 해당 문항의 선택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타'에 대한 주관식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힘들어서'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살기 싫어서', '무기력', '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의 응답이 다수 언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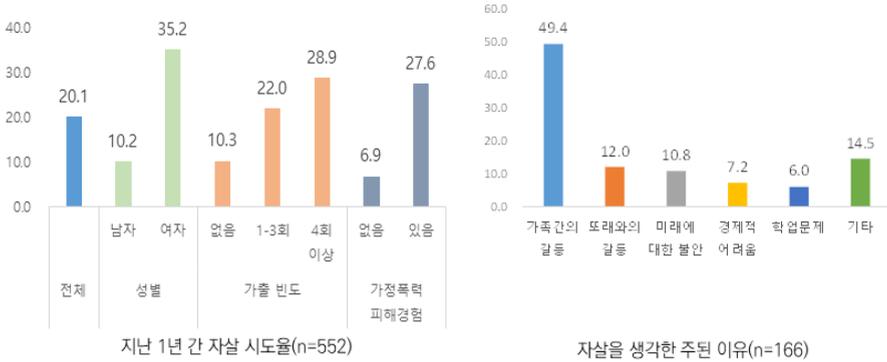


그림 III-16 자살 시도 경험 및 자살을 생각한 이유

[그림 III-17]에는 자해 및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노력했는지, 자해 및 자살 시도를 중단했다면 여기에 도움을 준 요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자해 및 자살에 대한 자율적 보호요인을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자해 시도에 대해서는 83.3%,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81.5%가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결심한 적이 있지만 그만두지 못했다’는 응답은 자해 시도 7.3%, 자살 시도 4.2%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를 그만두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만두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 지인, 선후배의 도움’과 ‘선생님(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의 도움’이 뒤를 이었다. ‘상담기관/의료기관의 도움’이 ‘가족의 도움’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자해 또는 자살 시도를 그만두는 데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의 지지와 도움이 유효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다만,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의 지지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 친구·지인·선후배를 비롯해, 주변 선생님이나 상담기관/의료기관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보다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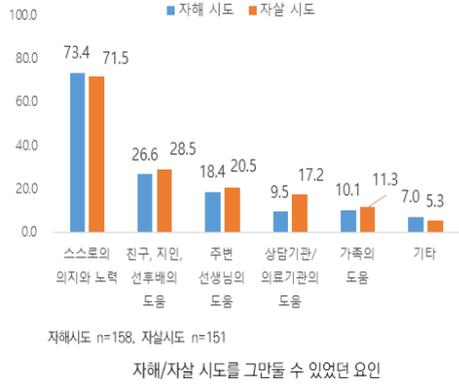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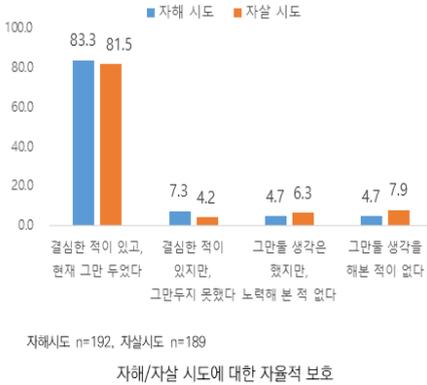


그림 III-17 자해 시도 및 자살 시도에 대한 보호요인

## 10) 정책적 수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44.0%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의 갈등’(33.0%),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어려움’(31.9%),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26.8%)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일을 구하기 어려움’(17.2%),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16.7%), ‘할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15.6%), ‘또래(친구 또는 선후배 등)와의 갈등’(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26.4%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에서는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에 대한 동의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고, ‘건강검진 제공’(78.1%),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77.2%), ‘직업교육 훈련’(74.4%), ‘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보호’(74.2%),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74.2%) 등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계유지나 건강 등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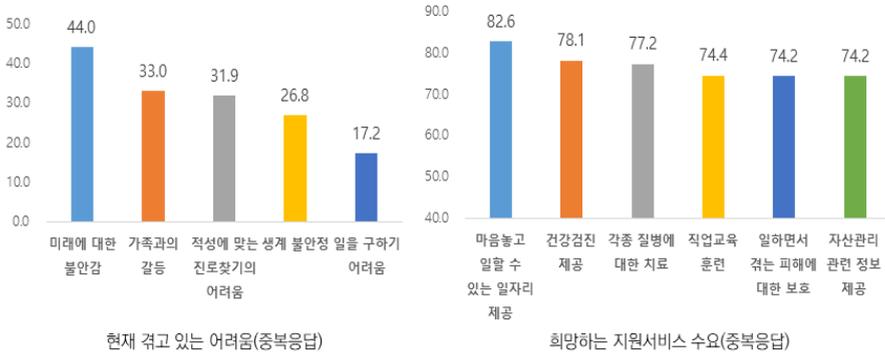


그림 III-18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및 희망하는 지원서비스 수요

## 2. 논의 및 제언

예비조사 응답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논의 사항을 도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1)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지원

예비조사 응답 분석 결과, 부모(보호자)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58.4%로 나타나 위기청소년의 다수가 가정폭력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피해 유경험자의 38.4%에 불과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 중 과반(54.8%)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는데, 이 같은 결과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피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상기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물론이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 아동·청소년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바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가운데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가 잘못했으니까'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김승경, 송미경(2014: 254)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관련 현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거나, 피해자에게 참을성을 요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므로,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개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폭력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귀인할 경우, 자책,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다른 위기 상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잘못으로 귀결하지 않고, 주변의 지원 기관에 알려져 적절한 도움과 개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내용에 가정폭력 피해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는 교육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2) 고위가중복위기군인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가출 청소년들은 체계적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정폭력·학대 경험은 가출로 이어지고, 가출은 조건만남 등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출청소년은 우울감을 느낀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자살 시도 경험율도 51.4%에 달했다.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보이는 응답자 비율(42.7%)도 전체 평균(39.5%)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가출청소년은 위기청소년 중에서도 고위기군에 속하며, 중복위기를 경험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가출청소년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출은 표면적으로 경험하는 위험 외에도, 가출을 유발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내재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바, 가출청소년을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가출청소년이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소위 ‘헬퍼’, ‘조건만남’ 등 가출청소년이 쉽게 노출되는 온라인성매매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지낼 곳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가출청소년이 노출되는 ‘헬퍼’, ‘조건만남’ 등의 위험이 실증적으로 포착되었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집설계에 따라 표집크기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제1차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헬퍼’, ‘조건만남’ 등 최근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하여 확산되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출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비조사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가운데 하나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출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여전히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출청소년 지원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홍보 방법의 문제로 인해 실제 정책대상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시설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고자 함에도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 대상 지원시설의 전달 체계나 제공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이다. 예비조사 결과, 집을 나와서 지낸 곳을 중복응답 방식으로 묻는 문항에 대해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 72.5%로 가장 많았지만, ‘여관/모텔/달방/월세방’(41.2%), ‘찜질방/고시원/PC방’(32.9%),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23.0%)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가출 유경험 청소년의 40% 이상이 여관/모텔/달방/월세방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조건만남’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의 유입을 추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정폭력’ 문제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된 결과는 원가족 문제의 해결 없이 그저 가출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추진하기는 어려움을 방증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쉼터의 확충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생활환경 안에서 보다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주거지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3) 위기청소년의 도박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 필요

다음으로,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비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24.9%였고, 최근 3개월 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1%였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타 다른 위기 요인에 비해 그 비율이 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도박은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하게 나타나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좁은 집단에 한정되어 나타나더라도 그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돈내기 게임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2회 이상’ 했다는 비율이 53.3%(‘일주일에 1-2회’ 23.3%+‘거의 매일’ 30.0%)를 차지해, 상승적 성향을 나타냈다. 또한 돈내기 게임 때문에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약 37%

발생했고, 빌린 돈의 액수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도 36.4%로 나타났다.

도박 중독은 그 자체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며,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행성 게임은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박중독자의 대다수가 청소년기에 사행성 게임을 접하다가 성인이 되어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서 중독에 빠지는 양상을 나타낸다(경향신문, 2020.8.26.). 더구나 위기청소년은 다양한 경로로 이 같은 사행성 게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큰 바, 예방교육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위기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 예방교육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도박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가운데 지난 1년간 도박 문제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40.9%에 그쳤고, 특히 소년원·보호관찰소를 통해 조사한 ‘비행·범죄’ 청소년의 경우 교육수혜율이 32.5%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도박 문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단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청소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도박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 4)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폭력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비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경험한 성폭력 피해는 5.5%로 나타난 반면, 온라인에서 경험한 피해는 21.7%로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이 주로 노출되는 성폭력 피해의 온상으로 자리 잡았

음을 방증한다. 특히 가해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온라인에서 불특정다수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양상을 살펴보면, 50.2%의 청소년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 이유로는 ‘대응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위기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특히 위기청소년들은 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초·중고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2019: 22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위기청소년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먼저 피해회복과 구제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해당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한 주된 통로가 ‘SNS’(68.4%)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55.3%)로 나타난 바,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 5) 자해의 광범한 확산에 대한 대응 시급

마지막으로, 자해의 광범한 확산에 사회적·정책적으로 좀 더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비조사 결과, 지금까지 자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37.5%였고, 실제로 자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도 3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청소년 3명 중 1명 비율로 자해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해를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 경험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11.8%(‘한 달에 한 두 번’ 4.8%+‘일주일에 한 두 번’ 7.0%)를 차지해, 상승적

자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해를 하게 된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나쁜 기분을 멈추기 위해’(44.4%),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32.1%),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32.1%) 등의 비율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해가 비자살성 자해로서 현실 회피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상담·개입이나 치료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자해 시도 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74.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은 경우는 33.0%에 불과했다.

청소년 자해 및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이 자해·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유해 환경에 대한 개입과 개선이 요구된다.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방송이나 SNS를 통해 자살·자해 관련 유해 정보를 쉽게 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28.).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이 같은 유해 환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이 자해·자살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보호요인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자해·자살 등 고위험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25.). 여기에는 전국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 등 고위험 청소년 대상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고, 지역 내 자살예방 전문가(청소년지도사상담사) 양성을 확대하며,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한 ‘청소년동반자’ 배치를 확대하고,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청소년 자살 상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25.). 이러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실태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며, 정책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자해·자살 위기 노출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0.8.26.). “도박중독은 질병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616480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61648002) 에서 2020.12.08.인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2019 교육부 정책보고서. 세종: 교육부.

김승경, 송미경 (2014). **가정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28.). 청소년 자살·자해 문제 해결방안 찾는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769> 에서 2020.12.08.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25.). 청소년 자살·자해 문제 해결방안 찾는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0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01) 에서 2020.12.08. 인출.

### [법령 참고자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 2020.12.28. 인출.



○ — 부 록



# 부록

## 1. 예비조사 설문지

※ ID는 ㈜한국리서치에서 기입하니, 따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D					
----	--	--	--	--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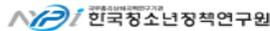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여러분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기관



수행 기관



※ 연구 수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정민 부연구위원

hyj@nypi.re.kr  
jminlee@nypi.re.kr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 1본부 박종경 차장

080-674-1000

### [진행 전 안내사항]

1. 표지 뒷장에 있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고 작성해주세요.
2.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 동의서 다음에 나타나는 “설문 응답 방법”을 읽어주세요.
3. 설문에 대한 궁금증은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Q&A”를 참고해주세요.

## 연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위기환경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출생연도, 가족구성, 출생국가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 설문 응답 방법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을 잘 읽고 난 후, 그에 맞게 응답해주세요.

###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아니다'면 ①에, '조금 그렇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주세요.

1 다음 문항을 읽고, 최근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워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화이트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최근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7 지금까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만화방, PC방, 노래방, VR체험카페, 비디오/DVD방, 소주방, 호프집 등 술집,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에서 일해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③ 18로 가세요

17-1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04 응답하기 전 확인사항

질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질문 아래 당구장 표시(※)가 된 부가설명이 있다면, 응답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20 최근 1개월 동안, 한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 재사, 차레 또는 성한식(종교의사)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① 있다      ② 없다

##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Q & A

Q 이걸 무슨 조사인가요?

A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

Q 이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A 설문지가 어렵지는 않은지, 기억할 수 없어서 대답하기 힘든 문항이 있는지, 응답하기 불편한 문항이 있는지 등, **전체적으로 설문지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청소년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

Q 그럼 설문지에 응답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건가요?

A 네, 설문 응답도 중요하지만 설문에 대한 평가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설문이 어렵고, 불편한지 등, **설문의 문제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설문 평가”에 이를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

Q 이걸 하면 뭔가 보상이 있나요?

A 설문과 설문 평가까지 성실히 응답을 완료해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아무거나 응답하거나, 1~2개 번호만 계속 응답하는 등,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할 경우,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여러분의 최근 기분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심리적 특성**

**1** 다음 문항을 읽고, 최근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2) 소중한 존재다	①	②	③	④
3)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9)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10)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11) 웃을 감이입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3) 무슨 일이든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14)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5) 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7)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속한 집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20) 집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1)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그에 대한 보답이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22)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3)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4)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여러분은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그렇다	아니다
1) 밖에 나가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자기격리를 위해 집에 머물거나, 물건을 사려고 가게에 가는 일과 같은 간단한 외출은 제외하고 답해주세요)	①	②
2)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희망이 없다는 기분을 2주 내내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3**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어느 정도 있나요?

- ① 없다 → **4** 로 가세요
- ② 1명
- ③ 2-3명
- ④ 4명 이상
- 

**3-1**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 (또는 보호자)
- ② 학교 선생님
- ③ 친구/선후배
- ④ 형제/자매
- ⑤ 이웃/친척
- ⑥ 청소년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선생님
- ⑦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II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 내 경험

4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또는 보호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우리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어릴 때 부모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문항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해당사항 없음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았음)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①	②	③
2) 싸우면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졌다	①	②	③
3) 때리거나 발로 찼다	①	②	③

6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일주일에 한 두 번	한 달에 한 두 번	일 년에 한 두 번	최근 1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1)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①	②	③	④	⑤

↳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6-1 로, 둘 다 “평생 경험한 적 없음”이면 7 로 이동하세요.

**6-1**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알렸다면, 어디에 알렸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④ 친척 또는 이웃 어른에게 알렸다

⑤ 지원기관에 알렸다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상담기관, Wee센터 등)

⑥ 경찰(112)에 알렸다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6-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① 무서워서

② 내가 잘못된 것이므로

③ 가족이기 때문에

④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⑤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⑥ 신고해야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⑦ 알리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서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6-3**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알리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었다

④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7** 최근 1년 동안,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또는 가정폭력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아보았다면,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교육 받은 적이		도움이 된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①	②	①	②	③	④

**가정 밖에서 지낸 경험**

**8**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출을 해본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항	해본적 없다	한 번	2~3회	4~5회	6~9회	10회 이상
1) 지금까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지난 1년 동안...	①	②	③	④	⑤	⑥

▶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으면 8-1 로, 둘 다 “해본 적 없다”이면 9 로 이동하세요.

**8-1** 처음 가출했을 때 몇 살이었나요?

살

**8-2**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
- ②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 ③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경제적 어려움)
- ④ 선생님과의 갈등, 학교 규칙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 ⑤ 왕따 등 학교폭력 때문에
- ⑥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⑦ 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 ⑧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_\_\_\_\_)



**8-8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다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1)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부터 먹을 것과 짐잘 곳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 것과 짐잘 곳을 제공해주는 사람(헬퍼)을 구해본 적이 있다	①	②

▶ 하나라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8-8-1** 로 이동하세요.

▶ 둘 다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9** 로 이동하세요.

**8-8-1 헬퍼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가출 관련 카페에서
- ② 랜덤채팅 앱을 통해
- ③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를 통해
- ④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 ⑤ 가출청소년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8-9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헬퍼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 ② 없다 → **9** 로 가세요

**8-9-1 헬퍼와 함께 생활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짐지리어와 먹을 것을 제공해줘서
- ② 용돈을 줘서
- ③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해서
- ④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 ⑤ 그 사람의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가게 해서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8-9-2 헬퍼와 지내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있다	없다
1)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집을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다	①	②
3) 대출 사기,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4)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①	②

9

가출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보호/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었는지 각각 응답해주세요.

문항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도움 정도			
	모른다	안다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버스 형태의 이동형 청소년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2) 일정 기간 동안 먹고 자는 것이 가능한 생활형 청소년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3)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 “청소년쉼터”를 이용해본 적이 없으면 9-1 로, 이용해본 적이 있으면 10 으로 이동하세요.

9-1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 ②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쉼터가 없어서
- ③ 이성친구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없어서
- ④ 쉼터의 규칙 때문에 (예: 부모님 동의 등)
- ⑤ 쉼터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맞지 않아서
- ⑥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III 다음은 여러분의 인터넷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경험

10

다음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답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평소에 게임을 하나요? 그렇다면, 게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게임은 온라인게임, 모바일(스마트폰)게임, 비디오게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① 게임을 하지 않는다 → 12 로 가세요

- ②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 ③ 경쟁하는 재미가 있어서
- ④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 ⑤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 ⑥ 게임 세계에서의 내가 좋아서
- ⑦ 게임에서 이기거나 레벨업 할 때의 기분이 좋아서
- ⑧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1-1 아래 각 문장을 잘 읽고,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경험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자주 게임 생각이 난다	①	②	③	④
2) 게임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게임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3) 불쾌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예: 우울, 초조, 불안, 무기력감, 죄의식, 스트레스로 지치거나 지겨운 느낌 등)을 잊기 위해 게임을 한다	①	②	③	④
4) 게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중요한 일(예: 여행, 집안행사 등)에 빠지거나 가더라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5) 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졌다	①	②	③	④
6) 게임을 하다가 학교나 학원에 지각하거나 약속에 늦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온라인 인권침해 경험

12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인터넷, SNS, 채팅앱 등)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1)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내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내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4) 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이 있다	①	②
5)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6)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7) 불법촬영 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단톡방 포함)에서 유포된 적이 있다	①	②
8) 돈이나 금품 등 대가를 미끼로 내 사진이나 영상물,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9)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적이 있다(스캠 제외)	①	②
10) 온라인에서 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위 10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2-1 로 이동하세요.

위 10가지 모두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13 으로 이동하세요.

12-1 그와 같은 경험은 주로 어디에서 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 등)
- ③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등)
- ④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 ⑤ 랜덤채팅앱
- ⑥ 온라인 게임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2-2 그와 같은 일은 누구로부터 경험했나요? 여러 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
- ②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
- ③ 유튜브, B.J 등 인터넷방송 진행자
- ④ 친구, 지인/선후배
- ⑤ 현재 또는 과거의 애인
- ⑥ 가족/친척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2-3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그냥 참고 넘어갔다(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 ② 해당 온라인 매체를 탈퇴하거나, 새로운 아이디로 다시 가입했다
- ③ 해당 온라인 매체 관리자 및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④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
- ⑤ 경찰(112 또는 117)에 신고했다
- ⑥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알렸다
- ⑦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⑧ 지원기관(Wee센터, 상담기관 등)에 알렸다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13 으로 가세요

**12-3-1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대처 방법을 몰라서
- ② 대응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③ 신고나 처벌 절차가 복잡해서
- ④ 대응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 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 ⑥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⑦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 ⑧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3

**최근 1년 동안,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받아보았다면,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교육 받은 적이		도움이 된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①	②	①	②	③	④

IV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근로 경험

14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 ① 현재 하고 있다
- ②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2020년) 한 적이 있다
- ③ 현재 하고 있지도 않고, 올해(2020년) 한 적이 없다 → 16 으로 가세요

14-1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 ②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또는 보호자)께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어서
- ③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 ④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 ⑤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 ⑥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4-2 올해(2020년) 한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아래 보기 중 가장 길게 한 아르바이트 1개만 선택해 주세요.

구분	아르바이트 종류
매장관리	① 편의점/소형마트 ② PC방/ DVD방/ 노래방/ 만화방 ③ 대형마트/ 쇼핑몰/ 아울렛/ 백화점 ④ 기타(의류, 잡화/ 가전, 휴대폰/ 화장품, 뷰티용품 등)
서빙, 주방	⑤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 ⑥ 뷔페/웨딩홀/연회장 ⑦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햄버거) ⑧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기타	⑨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 ⑩ 배달/운전(오토바이 배달, 배달업을 통한 배달 알바 등) ⑪ 물류, 창고 관리/ 택배 상하차 ⑫ 행사 도우미(이벤트/ 지역축제/ 놀이공원 등) ⑬ 공장(제조, 가공/ 포장, 조립 등) ⑭ 주차안내 및 관리 ⑮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분야(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4-3 그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① 1일 이상-1주일 미만
- ② 1주일 이상-1개월 미만
- ③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④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⑤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⑥ 1년 이상

**14-4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업무 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① 작성하지 않았다
- ②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 ③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일부만 포함되었다
- ④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15

※ 이번 질문은 14-2 에서 “㉔ 배달/운전”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배달대행업체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아서(개인사업자)
- ② 매장이나 업체에 직접 고용되어서
- ③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6 으로 가세요

**15-1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작성했나요?**

문항	작성했다	작성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1) 배달 업무 및 수수료와 관련한 계약서 (위탁계약서, 공유오더수행 서약서, 약관 동의서 등)	①	②	③
2)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 ※ 산재보험은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일하면서 다치거나 일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경우,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②	③





### 술/담배/약물 이용 경험

19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피워본 담배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어떤 종류의 담배도 피운 적 없다
- ② 일반 담배(필런)
- ③ 액상형 전자담배(쥬, 몬스터엑스팟, 비엔토 액상 카트리지 등)
- ④ 궤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아이코스, 글로, 릴 등)
-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0 최근 1개월 동안,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 제사, 차례 또는 성찬식(종교의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 ① 있다
- ② 없다

21 최근 1개월 동안, 환각성 물질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 환각성 물질: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켜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부탄가스, 본드, 마약류(허브마약 등)등이 해당됩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22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술/담배/환각성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교육 종류	교육 받은 적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는 데 도움이 된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음주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 흡연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3)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3 지금까지 술이나 담배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있다	없다
1) 술이나 담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적이 있다	①	②
2)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3) 술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4)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폭행,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①	②
5) 술을 마시고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음주운전 한 적이 있다	①	②
6) 술에 취해서 강제로 성희롱이나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	①	②



## 돈내기 게임 경험

24

돈 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걸고 하는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다면 몇 살 때 제일 처음 해보았나요?

### ※ 돈내기 게임이란?

카드나 화투, (인형 등) 뽑기, 스포츠 경기 내기, 복권/토도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돈 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서 승자일 경우 물건을 가져가고, 패자일 경우에는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내기 성격의 게임을 의미합니다.

- 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 26 으로 가세요
- ② 지난 3개월 동안은 없지만, 그 전에는 해본 적이 있다 → 26 으로 가세요
- ③ 지난 3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다 → 25 로 가세요

25

지난 3개월 동안, 돈 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걸고 하는 아래와 같은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반드시 돈 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건 경우만 해당됩니다.

구분	돈내기 게임 유형
온라인	① 한게임, 넷마블 등에 있는 카드/화투 게임
	② 온라인용 그 외 내기 게임(온라인 사다리, 다리다리, 빙고, 달팽이, 그래프 게임 등)
	③ 인터넷 복권 구입
	④ 인터넷 스포츠 베팅(토도/프로토 '베트맨' 또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베팅)
	⑤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베팅(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TV 등)
	⑥ 인터넷 카지노 게임(온라인 포커, 바둑이, 블랙잭, 바카라 등)
오프라인	⑦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홀라, 블랙잭, 바둑이, 유희왕 등)
	⑧ 뽑기 게임 (인형뽑기, 경품뽑기 등)
	⑨ 스포츠 경기 내기 (축구, 야구, 농구, 볼링 등)
	⑩ 그 외 내기 게임 (뽕뽕이, 사다리타기, 빙고 등)
	⑪ 복권 구입(로또, 연금복권 등)
	⑫ 스포츠 복권 구입(토도, 프로토)
	⑬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투표권 구입

### 25-1 위에서 응답한 돈내기 게임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개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 ②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 ③ TV, 영화, 만화 등을 보고
- ④ 전단지, 인쇄광고물 등을 보고
- ⑤ 대회/축제 등의 행사 참여를 통해
- ⑥ 온라인게임/카페 등의 회원 게시물/댓글 등
- ⑦ 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팝업광고 등
- ⑧ 이메일로 온 광고 메일/쪽지 등
- ⑨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문자
-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25-2 돈내기 게임을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했나요?

- ① 지금까지 1~2회 해본 정도
- ② 한 달에 1~2회
- ③ 일주일에 1~2회
- ④ 거의 매일

25-3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스릴과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 ② 호기심 또는 일시적인 재미로
- ③ 고민이나 스트레스, 나쁜 기분(우울, 불안, 분노, 짜증 등)을 잊게 위해서
- ④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 ⑤ 친구나 선후배가 하라고 시켜서
- ⑥ 유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 ⑦ 지금까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5-4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할 때, 주로 누구와 같이 했나요? 1개만 응답해 주세요.

- ① 나 혼자
- ② 친구나 선후배와
- ③ 아르바이트나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람(오프라인)
- ④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카페, 채팅앱, 게임사이트 회원 등)
- ⑤ 가족들과(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등)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5-5

돈내기 게임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문항	있다	없다
1) 돈내기 게임 때문에 내 물건 또는 가족의 물건을 팔았던 적이 있다 (중고물품 거래, 아이템 거래 등)	①	②
2) 돈내기 게임 때문에 남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오거나, 사기(중고거래 사기, 아이템 거래 사기 등)를 친 적이 있다	①	②
3)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4)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 등 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①	②
5) 돈내기 게임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①	②
6) 돈내기 게임을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①	②

25-5-1

돈내기 게임을 위해 지금까지 빌린 돈은 전부 얼마 정도인가요?

※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 0만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만원

**26** 최근 1년 동안, 돈내기 게임의 위험성을 알리는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받아보았다면,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교육 받은 적이		도움이 된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①	②	①	②	③	④

**V** 다음은 여러분 주변의 생활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폭력 피해 경험**

**27**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친구나 선후배, 아는 사람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없다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①	②
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①	②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4)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①	②
5) 왕따(따돌림)를 당함	①	②
6) 강제 심부름(뺑서들, 와이파이/데이터서들, 게임서들 등)을 당함	①	②
7) 돈을 모아 오라고 강요하거나, 대리입금을 요구받음	①	②
8) 온라인(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①	②

↳ 위 8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27-1** 로 이동하세요.  
 위 8가지 모두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28** 로 이동하세요.

**27-1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① 알린 적이 있다

② 알린 적이 없다

**27-1-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④ 지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
- ⑤ 경찰(112)에 알렸다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7-1-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②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 ③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④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 ⑤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 ⑥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7-2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28** 로 가세요

**27-2-1 도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해당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 ②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 ③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
- ④ 학교폭력신고센터(117)
- ⑤ 청소년사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성폭력 피해 경험

28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없다
1)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함	①	②
2)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	①	②
3)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①	②
4)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	①	②

위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28-1 로 이동하세요.

위 4가지 모두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29 로 이동하세요.

28-1 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
- ②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 ③ 같은 시설(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 ④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 ⑤ 잘 모르는 사람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8-2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① 알린 적이 있다

② 알린 적이 없다

28-2-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④ 지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
- ⑤ 경찰(112)에 알렸다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8-2-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②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 ③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④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 ⑤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 ⑥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8-3

피해를 당한 후 자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29 로 가세요

28-3-1

도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다음 중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 ②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 ③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해버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 ④ 학교폭력신고센터(117)
- ⑤ 청소년사설(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성폭력피해자 자원시설 및 단체, 기관 등)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다음은 조건만남에 대한 질문입니다.

※ 조건만남은 돈, 음식, 선물, 술, 지낼 곳 등 물질적인 대가를 약속 받고, 이성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29

지금까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거나 제안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30

지금까지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31 로 가세요

30-1

조건만남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언제였나요?  
당시 연령에 해당하는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졸업 전
- ② 중1
- ③ 중2
- ④ 중3
- ⑤ 고1
- ⑥ 고2
- ⑦ 고3
- ⑧ 고등학교 졸업 후

**30-2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 ② 노는 데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 ③ 갈 곳(잘 곳)이 없어서
- ④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없이
- ⑤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 ⑥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 ⑦ 호기심에서
- ⑧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 ⑨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 ⑩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 ⑪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0-3 조건만남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채팅 사이트 또는 채팅앱(1:1채팅, 화상채팅 등)을 통해서
  - ② 랜덤채팅앱(모르는 사람과 채팅, 쪽지)을 통해서
  - ③ SNS 또는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를 통해서
  - ④ 친구/선. 후배/ 애인 같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 ⑤ 술집, 거리 등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제안으로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30-4 로 가세요

**30-3-1 채팅 사이트나 채팅앱/랜덤채팅앱을 이용할 때, 성인인증을 위해 나이를 확인 했나요?**

- ① 확인했다
- ② 확인하지 않았다
-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30-4

조건만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피해를 입은 적 없다 → 30-5 로 가세요
- ② 욕설/위협
- ③ 구타
- ④ 감금
- 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함
- ⑥ 콘돔 사용 거부
- ⑦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줌
- ⑧ 내 돈을 빼앗김
- ⑨ 임신/성병
- ⑩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음
- ⑪ 상대방이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서 협박함
- ⑫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0-4-1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에게 요청했는지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 30-5 로 가세요
- ② 친구
- ③ 애인
- ④ 선·후배
- ⑤ 친척
- ⑥ 가족/친척
- ⑦ 경찰
- ⑧ 상담기관/쉼터 선생님
- ⑨ 학교 선생님
- ⑩ 기타  
(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0-4-2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 ② 어디에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 ③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 ④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 ⑤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 ⑥ 도움을 요청할 정도는 아니어서
- ⑦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싫어서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0-5

조건만남을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나요?

- ①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 → 31 로 가세요
- ②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 ③ 그만둘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 본 적 없다
- ④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30-5-1

조건만남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나요?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나 혼자 의지와 노력으로
- ② 가족/친척의 도움으로
- ③ 상담기관/쉼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 ④ 친구/선후배의 도움으로
- ⑤ 애인의 도움으로
- ⑥ 경찰에 잡혀가서/처벌을 받아서
- ⑦ 일자리를 구해서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1 지금까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나요?

① 해본 적 있다

② 해본 적 없다 → 32 로 가세요

31-1 성관계를 처음 해본 것은 언제인가요? 당시 연령에 해당하는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졸업 전
- ② 중1
- ③ 중2
- ④ 중3
- ⑤ 고1
- ⑥ 고2
- ⑦ 고3
- ⑧ 고등학교 졸업 후

31-2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나요?

※ 피임이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콘돔 등 피임도구 이용, 먹는 피임약, 월경주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① 항상 피임을 했다
- ② 대부분 피임을 했다
- ③ 가끔 피임을 했다
- ④ 전혀 하지 않았다

32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각 응답해주세요.

교육 종류	교육 받은 적이		도움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3) 성매매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4) 성교육(임신, 피임, 출산, 성병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 자해 경험

### 33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 자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아프게 하는 등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문항	일주일에 한 두 번	한 달에 한 두 번	일 년에 한 두 번	지난 1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1) 자해를 생각해보는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33-1 로, 둘 다 “평생 경험한 적 없음”이면 34 로 이동하세요.

#### 33-1 자해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
- ②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
- ③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 ④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 ⑤ 혼자 있을 때 어떤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 ⑥ 부모님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
- ⑦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3-2

자해를 시도하고 나서 그 사실을 주변에 알렸나요?  
알렸다면,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알리지 않았다
- ② 가족에게 알렸다
- ③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④ 선생님(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에게 알렸다
- ⑤ 상담기관(청소년전화 1388,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등)에 알렸다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33-3 으로 가세요

33-2-1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알려줘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②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③ 내 문제는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 ④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 ⑤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3-3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 ① 받아본 적 있다
- ② 받아본 적 없다

33-4

자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나요?

- ①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
- ②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 ③ 그만둘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 본 적 없다
- ④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 34 로 가세요

33-4-1

자해를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나요?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나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 ② 가족의 도움
- ③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의 도움
- ④ 선생님(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의 도움
- ⑤ 상담기관/의료기관(청소년전화 1388,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병원, 보건소 등)의 도움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4-4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나요?**

- ①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
  - ②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 ③ 그만둘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 본 적 없다
  - ④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 35 로 가세요

**34-4-1 자살 시도를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나요?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나 혼자 의지와 노력으로
- ② 가족의 도움
- ③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의 도움
- ④ 선생님(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의 도움
- ⑤ 상담기관/의료기관(청소년전화 1388,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병원, 보건소 등)의 도움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VI** 다음은 희망하는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35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었는지 각각 응답해 주세요.

문항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도움 정도			
	모른다	안다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청소년전화 1388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3)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4)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5)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디담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36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과의 갈등
- ② 또래(친구 또는 선후배 등)와의 갈등
- ③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 ④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 ⑤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
- ⑥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 ⑦ 자별 곳을 찾기가 어려움
- ⑧ 일을 구하기 어려움
- ⑨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 ⑩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 ⑪ 건강이 안 좋음
- ⑫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술, 담배, 폭력, 절도, 성매매 등)이라도 해야 함
- ⑬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⑭ 어려움이 없음

37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해당하는 항목의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b>▣ 진로 준비</b>				
1) 학습,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①	②	③	④
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학학교 등)	①	②	③	④
3)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①	②	③	④
4)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①	②	③	④
<b>▣ 일자리 및 자립 지원</b>				
5)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①	②	③	④
6) 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①	②	③	④
7) 자산 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와 관련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b>▣ 건강 관리</b>				
8) 건강검진 제공	①	②	③	④
9)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①	②	③	④
10) 성교육 제공	①	②	③	④
<b>▣ 상담 서비스</b>				
11)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①	②	③	④
12) 심리, 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①	②	③	④
13)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가족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①	②	③	④
14)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지원	①	②	③	④
<b>▣ 활동 기회/ 정보 제공</b>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①	②	③	④
16) 다양한 청소년 활동(문화예술, 체육,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등) 참여 기회	①	②	③	④
17)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①	②	③	④

38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VII 일반적 특성

**배문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여러분이 태어난 해는 몇 년도 인가요?

년도

**배문3**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 방학 중이거나, 격주등교, 부분등교인 경우는 '① 다닌다' 로 응답해주세요.

① 다닌다

② 다니지 않는다

**배문4**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적이 있나요?

① 그만 둔 적이 있다

② 그만 둔 적이 없다 → **배문5** 로 가세요

**배문4-1** 학교를 그만두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②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③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 때문에

④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이 싫어서

⑤ 검정고시 또는 해외유학 준비를 위해

⑥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해

⑦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서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배문5** 여러분은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①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다시 학교를 다닐 것이다 (복학,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검정고시 등)

② 취업할 것이다 (부모님이 하는 일을 도우며 돈을 받는 것 포함)

③ 창업할 것이다 (사업, 자영업 등)

④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것이다

⑤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을 것이다

⑥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설문에 모두 응답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설문을 평가해주세요!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설문 평가하기

01 설문지에는 대답하기 불편한(하고 싶지 않은, 꺼려지는) 문항이 있었다.



02 설문지에는 따라가기 어려운 이동 로직(~로 가세요, ~로 이동하세요 등)이 있었다.



03 설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있었다.



04 설문지에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몰라서 대답할 수 없는 문항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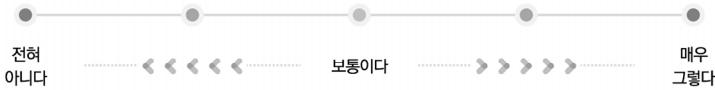
※ 설문에 모두 응답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설문을 평가해주세요!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설문 평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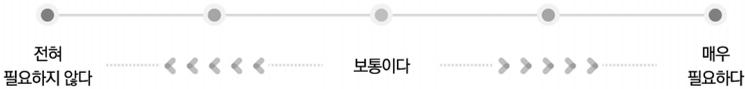
05 설문지에 문항이 많아서 대답하기 힘들거나 지루했다.



06 설문지 구조가 복잡해서 대답하기 어려웠다



07 이 설문을 할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설명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설문에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였나요?      총  분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a survey that will be used to collect basic policy data for the formulation of efficient and systematic policy for youth at-risk. To this end, we reviewed the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Youth At-Risk Survey”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is purpose and conducted a pilot survey to identify problems. The pilot survey was intended primarily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factual survey, but it also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youth at-risk, although in a limited way, through analysis of the preliminary survey. Among the several types of youth at-risk groups, the targets of the preliminary survey were young adults who have run away from home and youths involved in juvenile crime and delinquency, as they belong to the high-risk youth group who are vulnerable to multiple risks. For this study, we used quota sampling by creating a sample involving users of major institutions that support youth at-risk. The target sample size was 600 people, and the number of surveyed samples was 627 people, but 565 people were used as the sample for the actual analysis. The survey consists of 123 items on 14 topics in 6 categories, including experiences related to family and daily life,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uniqueness and related behaviors, policy demand, and general characteristics.

The data analysis showed that over half of youth at-risk had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n the past year and many of them had run away from home. The main reason for leaving home was family conflict, and the support desired most by such youths was support for accommodations and meals. It was also found that 21.7 percent of

adolescents have suffered from digital sex crimes, which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in terms of their experiences of digital sex crimes, with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36.6 percent) being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ir male counterparts (11.8 percent). Among the respondents, 24.3 percent said they had experienced depression that lasted over two weeks in the past year, while 30.5 percent had experienced self-harm and 20.1 percent had attempted suicide, pointing to the need for aggressive intervention and support for such high-risk youths. The difficulties youth at-risk experience include “insecurity about their future” and “family conflict,” and the support they wanted the most was access to employment opportun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that policy for supporting youth at-risk should take.

Keywords: youth at-risk, Youth At-risk Survey, experi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experience of suffering from digital sex crimes, youth at-risk support policy

##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조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 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 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 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 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

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 연구개발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해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작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헌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쓰다 - 동고동락, 다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험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 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0-R24-1

---

##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인 쇄 2020년 12월 23일

발 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다원기획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06-0 94330

979-11-5654-304-6 (세트)



연구보고 20-R24-1

#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0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3060  
ISBN 979-11-5654-306-0 94330  
ISBN 979-11-5654-304-6 (세트)